

청지기 교육 교재

믿음과 재정

재림 성도의
영적 성장
과 정

· 2단계 ·
제자 되기



한국연합회
선교전략연구소

재림성도의 영적 성장 과정

Making Adventist Continuum



재림 성도의 영적 성장 과정

Spiritual Growing In Christ As The Adventist

청지기 교육교재



믿음과 재정



한국연합회 선교전략연구소

오늘날 반드시 실천해야 할 교회의 중요한 기능과 사명은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고,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교회가 세상을 교화시키는 사업을 위해서 신자들을 훈련시키고 적절하게 하기를 원하신다”(6T, 431).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인 일꾼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MH, 135).

이 말씀과 같이, 교인들을 실제적으로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일이 각 교회마다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 한 교회의 부흥과 사명의 성취는 요원(遙遠)한 일입니다. 그동안 재림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일을 등한시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강조는 많이 하였지만 지역 교회 차원에서 실천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니다. 교회 성장의 가장 기본 요소인 평신도 훈련을 이제라도 새롭게 시작해야 교회 미래에 희망이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교회 성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새 힘 2015’ 사업의 일환으로, 체계적인 재림성도 양육과정 시스템과 교재들이 제작되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이 방대한 작업을 완성시킨 선교전략연구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단계의 과정을 13권의 교재로 공부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양육 교재가 각 교회에서 적절하게 사용되어 새로운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한국의 모든 재림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9월
한국연합회장 / 목회부장 김대성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간과 기회와 재능과 재산과 세상의 축복들과 그 자원들을 위탁받은 그분의 청지기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청지기 직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탁하신 모든 것- 생명, 육체, 시간, 재능, 재정 등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사용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정당하게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청지기 직분은 자비로운 품성을 계발하고 이기심과 탐욕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합니다. 청지기 직분을 잘 수행할 때 우리는 자신은 물론 주변의 사람들도 커다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성도들에게 믿음의 관점에서 재정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문제는 신앙과 실제 삶에 매우 중차대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본 교재가 개발되었습니다. 총 12과로 구성된 이 교재를 통해 돈 관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왜 그토록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실제적 방법들을 잘 습득하므로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돈이 오히려 믿음을 부요케하는 축복의 통로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베드로전서 4:10)

Lesson
01

돈 관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이유...8

Lesson
02

삶을 위한 재정 계획 세우기...26

Lesson
03

드리는 일...42

Lesson
04

빛에서 벗어나기...66

Lesson
05

지출 계획 세우기...94

Lesson
06

자녀 훈련, 돈과 결혼, 돈과 독신자들...112

Lesson
07

주요 물품 잘 구매하기...136

Lesson
08

정직과 청렴 & 일...154

Lesson
09

은퇴를 위한 계획...176

Lesson
10

저축과 투자...198

Lesson
11

유산과 재산 분배 계획...220

Lesson
12

재정적 충실에 대한 보상...240

돈 관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이유

돈은 왜 그토록 매혹적이고 유혹적인가? 공과금 납기일이 다 되어
가는데 낼 돈이 없다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깜짝 생일 선물로 새
돈 5만 원짜리 지폐 두 장을 얻었을 때의 기분은 어떠했는가? 수중
에 넉넉한 돈이 있으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든든하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살 수 있다. 적어도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돈으로 무얼 할까?”



돈 관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이유

마태복음 6:33,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이 돈에 몰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돈을 더 많이 버는 방법, 돈을 투자하는 법, 돈을 쓰는 법 등. 돈은 성공과 권력, 인정과 지위, 업적과 중요성 등과 동일시된다. 반면에 돈이 없으면 나약하고 실패한 사람으로 간주된다.

하나님과 경쟁하는 돈

돈 없이 살아 보겠다고 마음먹은 적이 있는가? 하나님 없이 살아 보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만일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하나님과 돈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마태복음 6:24). 이 경쟁은 현실이다.

예수님의 비유 중의 3분의 2는 돈과 물질의 소유, 혹은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다루고 있다. 하나님은 돈에 대한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음에 틀림없다. 돈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논점은 돈이 우리의 삶

에서 얼마나 중요하며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어느 위치를 차지하느냐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즉 우리 열정을 어디에 쏟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예수께서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가복음 12:30)고 말씀하신다. 바울은 젊은 일꾼인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디모데전서 6:10)라고 충고한다.

올바른 출발점-우리의 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곳(창세기 1:1)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성경의 첫 주장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창조주라는 것이다. 이 점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등 성경의 모든 교훈의 기초가 된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사실은 만물이 그에게 속하였음을 의미한다(시편 24:1~2).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소유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모색하려 할 것이다. 우리는 돈이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통하여 안전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돈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올바로 알 수 있다. 돈은 도구요 상징에 불과한 것이다. 유다는 은 30개를 받고 자신의 주인을 배반하였다(마태복음 26:15; 27:3~9 참조). 과부의 두 렵돈은 외로운 과부의 믿음과 신뢰를 예증한다. 과부의 유일한 후원자는 그녀가 경배하는 하나님이었다(마가복음 12:42~44 참조).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전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말인가? 물론 아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위탁하신 이들을 돌보는 것이며 그러한 돌봄 또한 예배의 연장이다. 핵심 논점은 우리의 태도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그 돈의 소유주로 인정하지 않으면 반대로 그 돈이 우리를 소유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누구/무엇을 섬기고 있는지를 대조하신 것이다.

복음과 하나님의 주님 되심(Lordship)

구원(구원의 내용)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말한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에베소서 3:16~17). 예수께서는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주신다(고린도후서 5:17). 결국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다(갈라디아서 2:20).

구원을 받은 사람(구원의 결과)은 제자도와 순종의 삶을 나타낸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그 내면에 거하시면 변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에스겔 36:26~27) 그의 원칙에 따라 행하도록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빌립보서 2:13).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서 경험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런 결과는 우리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심은 우리를 청지기 직분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다. 이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삶의 전 영역에 미치고 그것이 청지기의 직분에서 집대성되기 때문이다. 그

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죄 많은 본성과 죄의 영향력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주재권(Lordship)에 굴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도록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하며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임재를 통하여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힘겨운 씨름을 하는 동안 우리를 도우셔서 마침내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순종은 즐거운 경험이 되는 것이다.

희생과 드림

희생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 즉 “우리에게 손해가 될 때까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 및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히브리서 11:4). 이러한 순종의 희생이 전체적인 개념의 기초가 된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과 드리는 방식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내면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사울은 아말렉 민족에게서 뺏은 동물들을 제물로 드렸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시를 거역한 것이므로 하나님은 반역적인 태도에서 드린 제물을 받을 수 없으셨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사무엘상 15:22~23).

하나님께 희생이란 죄인을 살리기 위해 무죄한 한 분이 죽는 것을 의미했다. 우

리에게 희생이란 굴복, 하나님과 함께 죽음 그리고 찬양과 예배의 삶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해야 한다. 하나님께 희생이란 피조물을 회복시키기 위한 손실과 고통을 의미했다. 우리에게 희생이란 고통의 해결책, 즉 죄에 대해 죽고 그의 생명과 능력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한다.

우리가 어떤 것을 희생한다고 해도 그것은 원래의 소유주께 되돌려 드리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 내어 당신의 보좌로 들어 올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이다(에베소서 2:6). 사실 우리가 포기했다고 해 보아야 죄 많은 우리 자아 외에는 아무것도 포기한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드리는 일이나 전통적으로 “희생”이라고 일컫는 기타 모든 행위에 있어서 고통이라고 말할 게 없다. 드릴 때에 고통이 있었다면 그 말은 우리가 계속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었음을 의미할 뿐이다. 거기서는 희생을 손실로 생각하며, 이는 왜곡된 예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심화 연구

- »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창세기 1:1, 26~28).

1 ▶ 하나님은 누구이며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참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사실은 만물이 그에게 속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께 속하였다.

2 ▶ 이 세상의 일에서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이며,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참고 하나님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것들을 관리하는 그분의 청지기이다.

- »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와의 것이로다”(시편 24:1~2).
- »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신명기 10:14).

- »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시편 50:10~12).
- »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학개 2:8).
- »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며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역대상 29:10~14).

3 ▶ 하나님은 무엇을 소유하고 계신가?

참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이시며 소유주가 되신다.

4 ▶ 우리가 소유한 물질을 취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참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표로써 우리 소유 가운데 십분의 일을 먼저 하나님께 돌려 드린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생존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함을 보여 준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소유주로 받아들이

기 어렵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때에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올바르게 취급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을 첫째로 둬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물질을 그것의 참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할 것임을 나타낸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히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모색하려 할 것이다.

- »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마가복음 12:30).
- »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로마서 12:1~2).

5 >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참고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요 만물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의 존재 및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자신을 드리는 것은 희생을 의미하며 그것은 예배의 근본적 의미이다. 예배는 최초의 희생의 배경이었다. 하나님께 희생이란 죄인을 살리기 위해 무죄한 한 분이 죽는 것을 의미했다. 우리에게 희생이란 굴복, 그분과 함께 죽음 그리고 찬양과 예배의 삶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한다. 하나님께 희생이란 피조물을 회복시키기 위한 손실과 고통을 의미했다. 우리에게 희생은 우리 고통의 해결책, 즉 죄에 대해 죽고 그의 생명과 능력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한다. 그리스

도 안에서 삶은 곧 예배이다.

6 ▶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을 따르고 있는가?

참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각각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왔다. 그러나 가인의 제물은 거부되었고, 아벨의 것은 받아들인 바 되었다. 차이점은 드리는 이들이 보여 준 태도에 있었다. 가인은 자만심이 가득하여 자신의 방식을 선택했고, 아벨은 하나님의 지시를 기꺼이 따랐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가인은 결국 세상을 따른 것이다. 이러한 순종의 희생이 전체적인 개념의 기초가 된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과 드리는 방식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내면의 태도를 반영한다.

»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린도전서 10:31),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골로새서 3:17)

7 ▶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명예와 영광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참고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

8 ▶ “주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참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섬기는 자의 정신과 품성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여 모든 일을 하라는 의미이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매일 영원을 위해 품성을 건설하고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조심하고 자신을 언제나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

- » 마태복음 25:14~30(달란트의 비유)과 누가복음 16:1~12(어리석은 청지기)을 읽고 답해 보라.

9 이 비유들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참고 두 비유는 우리 각자가 서로 다른 재정적 자산, 은사 그리고 기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았음을 우리에게 보여 주며 우리가 그것들을 이생에서 어떻게 투자했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임이 있음을 보여 준다. 우리는 그의 나라의 확장을 촉진하고 그분의 자산을 현명하게 투자함으로써 주인이 돌아올 때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다.

10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능과 자원을 우리에게 위탁하셨는가?

참고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몇 사람에게만 그의 달란트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재능을 주셨으며, 이로 인하여 각 사람은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시간, 이성, 재물, 힘, 지적 능력, 마음속에 있는 친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인류를 축복하는 큰 사업에 사용하라고 위탁하신 것이다”(화잇주석, 마태복음 25:14~15).

11 세상의 부를 취급하는 방법은 우리의 진실성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참고 “주께서는 각 사람이 그의 달란트를 현명하고 이기심 없이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영달만을 추구할 것인지를 보시려고 주목하고 계신다.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주께서 달란트를 나누어 주시고 각자가 그것을 지혜롭게 투자함으로써 달란트를 늘이도록 하신다. 각 사람은 자기의 행한 대로 주님께 회계하여야 한다”(엘렌 화잇, 서신, 180, 1907).

»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태복음 6:19~24).

12 돈을 섬긴다는 것(혹은 “재물의 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참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소유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때에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즉 우리의 재물을 올바르게 취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동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모색하려 할 것이다. 특히 물질주

의 세계에서 우리는 돈이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통하여 안전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은 재물에 매이게 되고 궁극적으로 물질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다.

13 ▶ 돈이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는가?

참고 우리 손에 돈을 쥐어 주시며 관리하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그 돈의 소유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그 돈이 우리를 소유하고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된다.

14 ▶ 돈 대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참고 우리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곳, 즉 창세기 1장 1절(“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사실은 만물이 그에게 속하였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의 제일 위에 모시기로 선택할 수 있다. 특히 돈을 관리하는 방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장부, 신용 카드, 은행 계정 등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의 어느 부분에 두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끊임없는 일기장과 같다. 우리는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부를 축적하고자 했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발걸음 속에서 우리의 의미와 안전을 찾아야 한다.

»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

리라”(빌립보서 4:13, 19).

- »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베드로후서 1:3~4).

15 ▶ 이 구절들에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

참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로서 그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물질들을 다 공급해 주실 것이다. 물질 때문에 마음을 쓰고 불안해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마태복음 6:33). 하나님의 뜻은 죄로부터 정결하게 함을 받고 우리 안에 ‘신의 성품’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16 ▶ 당신은 현재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자원을 필요로 하는가?

참고 “하나님께서서는 우주의 부요함을 모으시고 무한하신 능력의 자원을 펼쳐 놓으신 다음에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시면서, 이 모든 것은 다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 선물들을 사용하여 사람에게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라. 사람의 최대 행복은 오직 나를 사랑하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시대의 소망, 57).

»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에스겔 36:26~2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린도후서 5:17).

17 ▶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애의 어떤 영역을 새롭게 하셨는가?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 사람들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참고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신다. 순수한 회심은 잘못을 저지르는 유전되고 배양된 경향성들을 바꾸어 놓는다. 하나님의 종교는 셀 수 없이 많은 실을 가지고 솜씨와 기술로 짠 질긴 직물과 같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야만 이 직물을 완전하게 만들 수가 있다”(화잇주석, 고린도후서 5:17).

» 하나님의 주님 되심에 관하여

18 ▶ “주님 되심”(Lordship)의 개념이 새로운가? 그것은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참고 하나님의 주님 되심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도록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하며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임재를 통하여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힘겨운 싸움을 하는 동안 우리를 도우셔서 마침내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된다. 그렇게 되면 마지못해 하거나 의무감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된다.

19 ▶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가?

참고 “위대하신 예술의 거장, 하나님께서 들에 핀 영혼 없는 꽃으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시면서 한 송이의 꽃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색상과 다양한 명암을 가리켜 보이신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그의 솜씨와 거기에 쏟으신 관심을 나타내시고, 이 사실로서 그는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갖고 계시는 크신 사랑을 보여 주신다. 모든 꽃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서신, 24, 1899).

20 ▶ 당신이 “하나님과 협력 관계”에 있음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참고 십일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 주는 시금석이다. 십일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삶의 물질적인 영역 안으로 이끌고 들어가는 것이며, 하나님이 나와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이다.

21 ▶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은 어떤 역할은 하시는가?

참고 성령은 그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에베소서 3:16~17).

22 ▶ 당신은 성령을 통하여 삶 속에 하나님을 매일 초청하기를 원하는가?

믿음과 재정 양식 #1

주님 되심과 생활 양식

1.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에 대해 현재 이해하고 있는 바를 설명하여 보라.
2.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매우 개인적으로 관여하고 계신다고 느끼는가? 몇 가지를 적어 보라.
3.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초청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이곳에 짧은 기도의 형태로 헌신의 글을 적어 보자.

»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

Lesson

02

삶을 위한 재정 계획 세우기

재정 계획에는 교육과 직업 선택, 돈을 벌고 모으는 일, 절약과 저축 그리고 은퇴와 재산의 분배,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일 등등을 결정하는 일이 포함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삶은 개인과 가정들에게 단순한 생존을 넘어 더 유쾌하고 스트레스가 없는 경험이 되고, 더불어 미래의 삶을 위해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삶을 위한 재정 계획 세우기

잠언 3:9~10,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사람들은 너무도 자주 자신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물건들을 구매한다. 어떤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서 자신과 가족들을 재정적 곤경에 빠뜨린다. 버는 것보다 적게 소비하는 것은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을 성취하기 위해서 해야 할 꼭 필요한 기본 법칙이다. 소비 계획을 잘 세워서 돈을 사용하면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다. 재정적 곤경의 주원인은 과(過)지출이다. 성경은 자신의 재정 현황을 잘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네 양 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 떼에게 마음을 두라”(잠언 27:23~24). 농경 사회에서는 양 떼의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하였다. 금융 사회와 경제 활동에서 우리의 현 재정 상황을 아는 것 또한 꼭 그만큼 중요하다.

대차 대조표

개인이나 가정의 경제 상황을 점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도구는 대차 대조표이다. 이 도구를 사용하면 아주 신속하게 재정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대차 대조표를 통하여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재정상 어떤 영역이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모든 사람, 모든 가정은 수입, 지출, 관리 능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기본 대차 대조표를 사용하되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만을 사용하고 필요한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재정 목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재정계획 없이 다만 현재 가장 시끄럽게 뼈격대는 청구서를 우선 지불하면서 그때그때의 월급에 따라 살아간다. 결국 그저 현재 살아남기 위해 허우적대다가 절망하게 된다. 이상적인 일은 결혼 초기에 부부가 함께 앉아 그들의 재정 상황에 대한 장·단기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계획을 짜는 것이다.

장기 목표는 단기 목표 및 눈앞의 목표를 반영·조정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저축은 단기 목표로서 장기 목표인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가치관 또한 목표에 영향을 준다. 가치관이란 옳거나 바람직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상(理想)과 원칙들을 말한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린도전서 10:31)이다. 가치관은 지금 소비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를 위해 저축할지, 혹은 계속 공부할 것인지 아니면 직업을 가질 것인지 등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육과 직업 선택

많은 요인들 중 고용 상황은 재정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다음으로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잠재적 수익 능력은 증가한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만일 우리가 교육을 받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면 우리 가정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더 잘 공급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사업에 기여하는 입장에 설

수 있다.

교육은 간단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학 졸업자 대부분은 그들이 받은 학위와 관련 없는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전공을 선택하여 일자리를 얻기에 용이한 분야에 연결되도록 미리 적성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일단 취업이 용이한 연구 분야를 찾게 되면 대학을 다니기 위해 사용한 돈은 낭비가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기회 비용과 돈 관리

생활비나 교제비로 많은 돈을 쓰게 되면 미래를 위하여 저축하고 투자할 금액이 그만큼 준다. 그 역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즉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투자하게 되면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 우리 생의 마지막 기간 동안에는 신체적 및 정신적 한계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현재 소득의 일부를 미래의 필요를 위하여 떼어 놓아야 한다.

신용 구매는 우리가 미래에 사용할 수입을 묶어 버린다. 또 어떤 물건을 사려고 저축한 돈을 깨뜨리면 그 결과 이자를 잃게 된다. 그러면 저축한 원래의 목표는 연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출 결정에는 많은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발품을 팔아 값을 일일이 비교한 후 물건을 사게 되면 돈은 아낄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귀중한 시간을 써야만 하는 것이다.

돈 관리 문서들

적절하게 돈 관리를 하려면 장부와 문서들이 필요하며 그것들을 보관할 안전한 장소가 있어야 한다. 적어도 대차 대조표, 재정 목표 문서(이 과의 부록에 있음),

현금 흐름도(현재의 월 소득 및 지출을 정리한 것), 예산서(혹은 소비 계획서), 저축 계획서 그리고 은퇴 후 계획서 등이 있어야 한다.

재정상황을 기록해 두면 지출을 결정할 때나 지출 계획을 세울 때, 청구서를 제 때에 납부하려고 할 때 도움이 된다. 연초에 대차 대조표를 작성하면 순 자산의 변동상황을 볼 수 있어서 자신의 재정계획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다. 기록을 남기면 훌륭한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고 소득세 보고서 작성 또한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자주 사용하는 항목은 가정 서류철에 보관해야 한다. 여기에는 개인 정보 및 고용, 세금, 금융 서비스, 위에서 언급한 돈 관리 상황, 신용 카드 관련 기록, 소비자 구매 상황 그리고 가전제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한 보증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보험과 투자에 관한 기록과 재산 분배 계획과 은퇴 기록이 기입되어야 한다. 집수리 비용은 훗 매각할 때 자본 이득 목적의 근거(재산의 순 가치)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기록들을 통해 주택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등의) 권리증 등을 어디 두었는지 알고 관리 상황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대체하기 어려울 것 같은 기록들은 대여 금고(귀중품 보관 상자)에 보관해야 한다. 그런 기록에는 출생, 결혼, 사망 증명서, 주민 등록증, 입영 통지서, 입양 및 자녀 양육권 서류, 소중한 사진들 등이 포함된다. 또한 예금 증서, 대출 증서, 계약서, 권리증 그리고 생명 보험 증권 등을 보관된다. 주식 증권과 채권, 동전과 수집할 수 있는 다른 것들, 유언장 사본, 다른 신탁 서류 등도 대여금고에 보관되어 있어야 한다.

기준 예산(소비 계획)

가족이나 개인의 기준 예산은 그날그날의 재정 계획 문서이다. 대부분의 가족들은 예산서를 갖고 있지 않으면 번 돈을 다 써 버릴 것이다. 간단한 예산서를 준비하여 그것을 토대로 재정적 결정을 하기를 적극 권고한다.

빛은 나쁘다

최근에 미국의 신용 카드 발급 기관들은 70억 건 이상의 카드 신청서를 뿌렸다. 부채는 이제 서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선전하는 광고 상품이 되었다! 개인들뿐 아니라 기업까지도 신용 대출 제의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결과 점점 더 깊이 빚에 예속되어 가고 있다. 개인파산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여 3만 가구 이상의 미국인 가정이 매주 파산이행조정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내부적으로 파탄이 나서 장기근속 직원들의 연금 기금을 털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30년 이상 미국은 국제 수지 적자로 인하여 세계 제일의 채권국에서 세계 제일의 채무국으로 바뀌었다.

가정들은 그러한 경제적 혼란을 보고 교훈을 배워야 하였다. 즉 은행과 신용 카드 회사가 진심으로 고객들에게 최고의 관심을 갖고 그들을 적절하게 지도하고 보호해 주리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가정들은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정들은 스스로 예산을 세우고 합리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대출을 결정해야 한다. “소비자가 평균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빛의 규모는 얼마인가?” 제한된 소득에 빛이 한없이 늘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은?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발맞추어 살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재정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사고방식)을 보여 주어야 하는가? 예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며(마태복음 5:14) 소금으로서 삶에 그 맛을 더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13절). 그러나 불행하게도 돈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 소금을 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종 세상이 우리에게 소금을 뿌리고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빛에 허덕이고 있다.

재정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들

무지. 많은 사람들 심지어 대학 졸업자들까지도 재정 문제에 무지하다. 그들은 한 번도 돈 관리의 성경적인 원칙에 대해서, 심지어 세속적인 원칙에 대해서도 들어 본 적이 없다.

탐욕과 이기심. 사람들은 광고를 보고 단순히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물건을 구입한다.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능력 범위 안에서 입고 운전하며 살고자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들은 너무 가난해서 십일조를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혜와 축복을 떠나 살아간다(잠언 3:5~10 참조).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변화와 만족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약속을 수용해야만 희망이 있다(디모데전서 6:6~9).

개인적 불행. 어떤 이들은 건강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중병에 걸린 경험이 있거나 돈을 헤프게 쓰는 배우자에게 버림받기도 한다. 자연재해로 하루아침에 소유물을 잃거나 혹은 지독하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을지 모른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희망은 있다. 그리스도인 친구의 지원, 경건한 상담자의 도움, 교육을 받

으며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를 통하여 얼마든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가난한 자를 도움으로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지 않으시며,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친히 돌보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품성의 변화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결과를 가난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보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명하신다.

세 공관 복음은 모두 청년 부자 법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마태복음 19:16~26, 마가복음 10:17~27, 누가복음 18:18~27). 예수께서는 청년에게 만일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면 하늘에서 보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최후의 큰 심판에 대한 기사(마태복음 25:31~46)에서는 가난한 자들과 고통 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선행을 베풀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원받는 사람들과 잃어버림을 당하는 자들을 분리하는 선이 그어진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재정 계획에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중요하게 보셨다는 것이다. 부자 청년과 달리 삭개 오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선언했다. 예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누가복음 19:9)”고 선언하셨다.

성경의 일곱 가지 재정 원칙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주이시다(시편 24:1; 50:12; 역대상 29:13~14).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아무 것도 갖고 가지 못하며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관리할 뿐이다. 충실함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하나님과 및 그의 지혜와 권면이 삶의 첫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잠언 3:5~9; 마태복음 6:33).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선이 무엇인지를 아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삶의 이 부분에 대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라고 물어야 한다.

당신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마태복음 5:16; 고린도전서 10:31).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여 소비하고 비축하고자 번영을 추구한다. 그리스도인은 자신과 타인의 필요를 공급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담당하기 위하여 번영을 추구한다.

번영이란 당신이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 갖는 것이다(빌립보서 4:19; 마태복음 28:20; 이사야 26:3).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으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친히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빛은 나쁘다(잠언 22:7; 신명기 28:15~68; 로마서 13:8; 시편 37:21). 빛은 가정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개인의 삶에는 스트레스를 유발시킨다.

십일조는 그리스도인의 헌신을 입증하는 최소한의 증거이다(창세기 14:20; 28:20~22; 레위기 27:30; 말라기 3:6~11).

모든 사람은 언젠가 자신의 돈 관리에 대하여 하나님께 보고해야만 한다(마태복음 25:19; 고린도후서 5:10; 요한계시록 22:12).

심화 연구

- » “죽음과 세금 이외에는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속담이 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구원의 확실성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실행한 청지기 직무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새”(마태복음 25:19).

우리는 희망을 갖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누가복음 19:13)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께서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실천한 삶을 통하여 심판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변호할 것이다.

이 주기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주기는 약 20년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것을 생의 주기라고 부르지만 그것이 모든 인류의 운명이기 때문에 주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선(線)이다. 우리의 삶은 각각 배우는 기간, 돈을 버는 기간, 보존하는 기간, 돌아가는 기간으로 구성된다. 어떤 세속 금융 설계자는 축적, 보존, 분배로 나누기도 한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로서 생의 세 요소에 각각 적용할 수 있는 훌륭하고 견고한 권면을 갖고 있다. 그 권면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공하시려고 했던 풍성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요한복음 10:10 참조).

- 다음 쪽에 나오는 대차 대조표를 완성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시작하라. 오늘

은 특히 당신이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산에 집중하라. 사물을 평가할 때 현실적이 되고자 힘써라. 당신은 어떤 항목의 자산 가치를 알기 위하여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생길지도 모른다.

-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부채를 대차 대조표에 기입하여 완성하라. 학자금 대출, 가계비 대출 등과 같은 부채를 빠짐 없이 확실하게 포함시켜라.
- 장·단기 목표를 세우는 일을 시작하라. 단기 목표는 여러분이 1~2년 안에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이다. 장기 목표는 2년 이상을 요하는 것들이다.

단기 목표에는 십일조와 현금을 체계화하는 일, 신용 카드 대출 잔고를 완납하는 일, 대차 대조표를 완성하는 일, 예산을 세우는 일, 소득 안에서 사는 일, 급여 자동 공제를 이용하여 저축을 시작하는 일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장기 목표에는 학자금 대출, 자동차, 주택 담보 등과 같은 더 큰 부채를 만기 전에 상환하는 일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또한 다음 번 자동차는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저축하는 일과 은퇴 후 생활을 위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일이 포함된다.

- 재정 목표 양식을 채워 넣어라. 이 시간에는 구체적인 말로 목표를 서술하라. 장·단기 목표를 언제까지 완성하겠다는 구체적인 기간을 정하라. 계획표나 일정표 안에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입하라. 예를 들면 당신은 “나는 비자 카드 대출 잔고를 _____ 까지 완불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다. 당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적어라.
- 대차 대조표와 재정 목표 양식을 검토하고 두 양식에 포함되어야 할 다른 항목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 목표를 이행하는 일을 시작하라.

대차 대조표

대차 대조표의 목적은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현재의 재정 상황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제일 첫째 줄에 채워야할 내용은 작성한 날짜이다.

지침. 아래 자산 범주 안에 있는 각 항목의 현재 수치를 기록하라. 여러 가지 채무 금액을 써라. 전체 자산에서 전체 채무를 빼서 순 자산을 결정하라.

_____ 의 대차 대조표

자산(소유하고 있는 것)			
유동 자산	은행 당좌 예금 잔고		총 유동 자산
	저축/금융 시장 계정		
	생명 보험의 해약 환급금		
	기타 _____		

가족 자산과 소유물	기타 부동산		총가족 자산
	자동차의 현 시세가		
	레크리에이션용 차량(RV)		
	개인 재산, 가구, 연장 등		
	오디오, 사진기, 컴퓨터		
	기타 _____		
투자 자산	예금 채권		총투자 자산
	주식 증권과 채권		
	개인 퇴직금 적립 계정		
	상호 펀드		
	기타 _____		
총자산			

부채(갚아야 할 빚)			
현 부채	외상 거래 계정과 신용 카드 잔고		총 현 부채
	자동차 대출		
	기타 매월 납부금 (공공요금 제외)		
	기타 _____		
장기 부채	주택 담보 대출		총 장기 부채
	학자금 대출		
	기타 _____		
총부채			
순 자산(자산-채무)			

재정 목표 세우기

개인 및 가정의 대차 대조표와 미래의 예상치에 나타난 대로 현 상황에 기초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장·단기 재정 목표를 세워라.

단계 1. 당신의 현재 상황을 토대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라.

A. 단기 목표

.....

B. 장기 목표

.....

단계 2. 당신의 목표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용어로 진술하라.

a.

b.

단계 3. 목표 달성까지의 기간을 설정하라.

a.

b.

단계 4.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적어 보라.

a.

b. _____

만일 당신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어떤 길이든 이끌리는 대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위탁하신 자원에 대하여 충실한 청지기가 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 생활하라. 그러면 훨씬 더 적은 스트레스를 갖고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드리는 일

— 십일조, 헌물, 다른 사람을 도움

“당신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

이것은 시중에 나와 있는 재정 전문가들의 저서의 한결같은 권고이다. 자신의 상황을 가장 먼저 고려하라는 뜻이다.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말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계획은 기껏해야 하나님을 두 번째 자리에 두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위반하고 있다.



드리는 일

- 십일조, 헌물, 다른 사람을 도움

신명기 16:16~17,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뵈옵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뵈옵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라는 명령은 구약과 신약 성경이 모두 담고 있다. 대부분의 충실한 그리스도인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족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신 구체적인 실례를 들 수 있다고 말한다.

돈 관리의 성경적 기본 원칙

하나님께 바치는 일은 영적인 헌신이나 철학적 선택이 아니라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잠언 3:5~10; 신명기 28:1~14; 말라기 3:6~12).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 하셨음(창세기 1:1)과 그러므로 그가 만물의 소유주이심(시편 24:1)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는 일이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지하시고,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몫인 십일조를 먼저 돌려 드리고 그다음으로 우리의 수입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에 비례하여 헌물을 가져옴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관리하는 일임을 이해한다(레위기 27:30).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

불행하게도 교회 지도자들은 헌금을 드리도록 호소할 때 종종 전통적이고 인간적인 동기 부여 방식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인정과 칭찬, 때때로 죄책감을 사용한다. 또는 기부자에게 올 혜택을 강조한다. 이 모든 방식들은 기부자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혹은 바라는 것들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런 일들은 이기심의 지배력을 더 강화시킬 뿐이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드리는 일이란 **예배 행위**임을 기억해야 한다. 십일조와 헌물의 주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우리의 생애에서 하나님과 물질적인 측면을 통합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경험한 은혜에 반응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복에 감사하여 드린다.

성경적으로 십일조 드리기

십일조를 드리는 일은 너그러움이나 감사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직, 즉 하나님과의 정직의 문제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확실하게 정립해야 할 첫 번째 사상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라는 것이다(창세기 1:1). 이런 사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연결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그 밖의 다른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된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배타적인 동시에 정당한 만물의 소유주가 되신다. 그분은 창조주/소유주이시다. 우리는 피조물/창지기이다.

그러면 십일조는 정확히 무엇인가? 십일조는 우리의 소득이나 (혹은 우리가 자영업자라면) 우리의 수익금의 10분의 1이다. 십일조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창세기 14:20에 나온다. 아브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모든

전리품 가운데 “십분의 일”을 드렸다. 성경에서 십일조에 대한 마지막 언급이 히브리서 7:1~10에 나온다.

덧붙여서 이 이야기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은 십일조 헌납은 레위 제사장들이 수행한 유대인의 의식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멜기세덱은 레위 족속이 존재하기 전에 십일조를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으며 히브리서 7장에서 십일조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언급한다.

중앙 참고

십일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성경은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말라기 3:10)고 말씀한다. “창고는 무엇이며 어디에 있다는 건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고를 규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들 모두 1년에 세 번 그곳에 갔기 때문이다(신명기 12:10~11; 16:16~17)!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소득의 4분의 1을 십일조와 헌물, 성전 후원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선물의 형태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직접 드렸다. 이러한 개인적인 전달 체계 때문에 그들은 1년에 적어도 한 달간 가정과 일터에서 멀리 떠나 있어야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25퍼센트를 드리고 한 달간 가정을 떠나 있는 것이 진실로 번영과 축복의 기초임을 알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충성스런 모든 사람들이 이를 실천했다(시편 116:18; 19; 122:1~4 참조).

십일조의 용도

하나님께서서는 십일조의 용도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값”는다고 매우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말씀하셨다(민수기 18:21). 십일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으셨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십일조의 용도는 종교지도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후원하는 것이었다.

헌물은 어떤가?

헌물은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남아 있는 90퍼센트에서 나온다. 여기서 비로소 너그러움이 시작된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여러 유형의 헌물들을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의 보호, 건강의 축복, 번영 그리고 유지시키시는 능력을 인정하여 드리는 화목 제물(감사 예물),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물, 예배하는 집을 건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드리는 헌물 등.

성전세 외의 모든 헌물은 십일조처럼 비율에 따라 드리지 않았다. 헌물은 드리는 이들의 마음이 감동되어 드러졌고 때때로 십일조를 능가했다. 하나님의 단순한 명령은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신명기 16:17)라는 것이었다..

드림의 동기

믿음이 없이 드릴 때 그러한 드림은 예배가 될 수 없다. 믿음의 관계나 구원의 확신 이외의 다른 것에 기초하여 드릴 때 그것은 거짓 예배가 된다.

최선의 드림에는 의무가 아닌 비전이 따른다. 하나님의 비전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오늘날의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교회의 사업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비례하여 이 비전을 발견한다.

최선의 드림에는 기관이 아닌 사명이 따른다. 마태복음 28:18~20에서는 가장 분명하고 가장 힘 있는 사명이 나타나 있다. 우리가 이 사명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과 긴밀한 협력 관계 안에서 동행함을 확신한다.

최선의 드림에는 프로그램이 아닌 사람이 따른다. 하나님은 개인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개인적인 접촉이 필요하다. 드리는 일로 참여하는 일을 대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선의 드림에는 강요나 압력이 아닌 열정이 따른다. 그리스도인에게 진실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친 놀라운 개인적 헌신과 마음에서 우러나는 참여의 결과이다(출애굽기 35:5; 고린도후서 9:7).

최선의 드림에는 유지가 아닌 성장과 전진이 따른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복한 땅은 유지되어야 하지만 우리의 시간과 자원의 중요한 부분들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계속 사용되어야 한다.

최선의 드림에는 선전(宣傳)이 아닌 정보가 따른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사람들에게 드리는 일과 관련하여 확신을 줄 권리를 갖고 계신다. 우리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성령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그의 사명에 참여하는 일에 대해 정확하게 알면 드릴 수 있게 된다.

최선의 드림에는 조작이 아닌 확신이 따른다. 성령 하나님만이 확신을 불러일으키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마음에 열망을 불러낼 수 있으시며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능력을 주신다.

십일조를 드리는 일은 구속(救贖)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회복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레위기 20:26). 십일조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식적으로 고백한다(마태복음

6:33).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굴복할 때에만 진실로 십일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십일조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십일조가 거룩하고 독특한 것이며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거룩하신 분에게 속하였고, 그분의 것으로서 운영된다. 십일조는 예배의 일부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관리하시도록 드리는 것이다. 드린 십일조에 어떤 일이 발생해도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며, 우리의 유일한 책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십일조를 드리는 일이 개혁과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한다(역대하 31장, 느헤미야 12~13장, 말라기 3장). 진정한 논점은 항상 예배, 즉 소유주와 구속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방법에 있다.

십일조를 드리도록 명하신 이유를 이해하려 할 때 우리는 마태복음 6:25~34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서 돈과 물질적인 것들이 하나님과 직접 경쟁하는 경쟁자의 위치에 있다고 말씀하셨다. 문맥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사치품이 아닌 기본 생활필수품이라는 점은 흥미롭다. 음식과 의복 등과 같은 기본적인 필요에 맞추어진 삶은 이교적인 것이라고 규정하신다. 이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3절)라는 도전을 제시하신다.

마태복음 6장의 문맥에 직접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십일조를 드리는 일은 물질 세계를 취급할 때에 우리가 계속하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주요한 도구이다. 우리가 십일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의 소유주로서 인정하고 우리

는 그분의 청지기, 즉 관리자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남태평양의 한 섬에 사는 열세 살 된 어떤 소년이 이러한 예배 태도를 실증해 보여 주었다. 그는 자신이 잡은 큰 물고기를 가져와서 교회 장로에게 그것이 자신이 드리는 십일조인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그 장로는 그 “물고기 십일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설명한 뒤에 물고기를 열 마리나 잡은 것에 대하여 소년에게 축하의 말을 해 주었다. 그러자 소년은 대답했다. “오, 아니에요! 이것은 첫 번째 물고기예요. 다른 것들은 아직 바닷속에 있어요. 이제 그 물고기들을 잡으러 가려고 해요.”

하나님은 헌물을 준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산에 가서 그의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 하셨다. 이삭이 제물에 대하여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들이 산꼭대기에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설명했다. 그 이야기의 뒷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덩불에 걸린 숫양을 준비해 주셨다 (창세기 22:13).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항상 제물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면 제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태도이다!

“하나님께서 헌금을 받으시는 이유는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없으면 영광과 부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 아니다. 다만 그분의 종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결한 사랑이 없다면 가장 값비싼 제사라도 너무 빈약한 것이어서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으신다” (교회증언 2권, 652~653).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여호와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시편 68:8~9)라고 요청한다.

하나님께서서는 물질세계에서 현대판 시금석(선악과)을 갖고 계신다. 그것은 소유물 중에서 드리는 헌물로써 정규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관계이며, 구체적인 확신에 의하여 발전해 가는 협력 관계이다. 먼저 십일조를 되돌려 드리는 것은 우리의 충성심을 시험하는 시금석이다. 그다음으로 헌물은 태도를 달아보는 시금석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일부로서 정규적이고 체계적으로 후원하는 방법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가장 좋은 것을 헌물로 드릴 것을 요구하신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보다 못한 것을 드리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을 먼저 드린 후에야 헌물로써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할 수 있다(롬 12:1).

예배와 찬양으로서의 헌물

드리는 은혜를 얻을 수 있기 전에 우리는 받은 은혜를 소유해야만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한복음 3:16).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후에만 우리는 드릴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갖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소유하고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돈을 드릴 수 없다. 우리는 헌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없다. 이기심의 치료제인 헌물은 감사의 표현이다. 헌물은 변화시키는 은혜의 대리인이다. 이는 우리가 드릴 때 우리는 이기심과 싸우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우리 편에서 보이는 반응이 헌물이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협력관계의 이행으로서 인간의 부족함보다는 하나님의 풍성함 때문에 작용한다. 헌물을 두고 우리는 우리의 죄 많은 본성 안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기심과 싸운다. 얼마를 드려야 하는가? 오직 당신과 하나님만이 그 질문의 답을 알 수 있다.

헌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인류와의 협력 관계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증언하고, 지상에서 당신의 사명을 후원하고, 교회의 통일성을 확고히 하고, 궁핍한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드리는 일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드리는 이들에게 확신을 주고 지도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드리는 일을 가능하게 하고 능력을 주시며, 법인 단체와 사역에 있어서 그 지도자들을 인도하시는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돈을 취급할 때 우리는 거룩한 것을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완전한 청렴과 완전한 공개, 완전한 솔직함, 완전한 책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헌금의 동기는 액수보다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최소 금액이 아닌 최대 금액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신다. 우리는 성령께서 확신을 주실 때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즉 아낌없이 무한정 드릴 필요가 있다. 우리가 헌금액을 조정하고자 시도하면 심지어 그것을 드린 후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진정으로 드린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외의 다른 곳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주님은 우리의 헌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시편 기자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타인을 위한 자기희생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분의 자비에 대한 감사의 마음

을 표하도록 허락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를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도 규정하지 않으셨다”(리뷰 앤드 헤럴드, 1887년 12월 6일).

심화 연구

»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고린도후서 9:6~11).

1 ▶ 어떤 핵심 원칙들이 드리는 일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참고 드리는 일은 우리가 경험한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신 복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이러한 마음은 우리의 소유와 우리 자신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러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인과 청지기의 협력관계인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 그 외의 의도에서 드리는 헌물은 예배가 아니라 이기심에서 촉발된 뇌물일 뿐이다.

2 ▶ 누가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며 그것은 우리의 드리는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참고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신명기 8:18). 이 점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실상 하나님께 받은 것을 되돌려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역대상 29:14).

»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고린도후서 8:1~5).

3 마게도니아 교회의 모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참고 “마게도냐 신자들은 거의 모두가 이 세상 물질에는 가난하였으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 넘쳐흘렀다. 그들은 복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쁨으로 바쳤다. …마게도냐 신자들이 행한 자원하는 희생은 전심으로 헌신한 결과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고후 8:5) 그 후에 복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의 재물을 기쁜 마음으로 아낌없이 바쳤다. …그들은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단순성과 성실로 즐거이 자아를 부정하였으므로 자비의 열매가 풍성하였다. …이기심이 없는 너그러움은 초기 교회를 기쁨에 넘치게 하였다. …그들의 자비심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증거 하였다”(사도행적, 343~344).

- »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창세기 14:17~20).
- » “…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동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창세기 28:10~22).

4 야곱이 십일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는가?

참고 “이곳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약정을 하고자 하지 않았다. 주께서 이미 그에게 번영을 약속하셨으며 이 맹세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보증에 대한 감사로 그의 마음에서 넘쳐 나온 것이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요구하신 것들을 시인해야 함을 느꼈으며 또 자기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은총의 특별한 표에 보답해야 함을 느꼈다”(화잇주석, 창 28:16~22).

5 아브라함과 야곱이 십일조를 드린 일은 어떤 의미에서 예배 행위가 되는가?

참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할 때 십일조는 예배가 된다. 하나님과의 협력 관계에서 하나님의 돈을 그의 나라를 위해 투자할 때 헌물은 예배가 된다. 아브라

함과 야곱은 모두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에 깊은 감사의 마음에서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렸다.

6 ▶ 아브라함과 야곱이 십일조를 드린 일은 어떤 점에서 이미 받은 축복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가?

참고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십일조를 주석하면서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십분의 일을 그에게 주었”다고 설명한다(히브리서 7:4). 야곱 역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고 서원하였다.

» “그리고 그 땅의 십분의 일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십분의 일은 여호와와 것이니 여호와와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십일조를 무르려면 그것에 오분의 일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십일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 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와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레위기 27:30~33).

»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십일조를 너희

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십일조의 십일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 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십일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민수기 18:21~28).

7 > 십일조는 헌물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참고 십일조를 드리는 일은 너그러움이나 감사의 문제가 아니다. 성경은 십일조가 기록하며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배타적인 동시에 정당한 만물의 소유주가 되신다. 그분은 창조주/소유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창지기인 관계에서 정당한 소유주께 당연히 드리는 것이 십일조이다. 한편 헌물은 남은 90퍼센트에서 나온다. 경험한 은혜에 반응해 드리는 속죄 제물, 하나님의 보호, 건강의 축복, 번영 그리고 유지시키시는 능력을 인정하는 뜻에서 드리는 화목 제물(감사 예물),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물, 예배하는 집을 건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드리는 헌물 등이 헌물의 유형이다. 성전세를 제외하면 모든 헌물은 십일조와 같이 비율에 따라 드리지 않았다. 헌물은 감사와 너그러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8 > 우리는 이 구절들로부터 십일조에 관한 어떤 원칙을 배울 수 있는가?

참고 십일조는 하나님의 성물이며 임의로 바꾸거나 그 액수를 조정할 때 하나님께 열납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정직의 문제이다. 혹 십일조에 손을 댔을 경우에는 배상법에 따라 20퍼센트를 더하여 드려야 한다. 십일조는 성막을 위하여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보수로 지급되었던 것처럼 복음 사업의 유지와 확

장을 위하여 사용된다.

- »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 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신명기 12:6~17).

9 신명기에 나오는 다른 십일조와 비교해 볼 때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십일조의 용도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참고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십일조는 제1십일조로서 성막 봉사에 참여하는 레위인을 위한 보수로 사용되었고 신명기에 나오는 이 십일조(신명기 14:22~29 참조)는 여호와 앞에서 먹도록 되어 있던 제2십일조로서 일반 백성들도 먹을 수 있었다. 3년마다 이 규정들이 적용되었고, 제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으로서 그 해에는 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그냥 묵혀 두어 추수를 하지 않았으므로 십일조가 요구되지 않았다(SDA 성경주석, 신명기 14:22).

- »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일 년에 세 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뵈옵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뵈옵지 말고”(신명기 16:16).

- »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잠언 3:9~10).
- »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사도행전 20:35).

10 ▶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리는 일은 왜 중요한가?

참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하나님이 만물의 정당한 소유주이시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그분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이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인정하는 행위이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그러한 관계를 부인하고 자신이 자신의 소유의 주인으로 주장하는 행위가 되어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된다.

11 ▶ 우리가 드릴 때 어떤 방식으로 축복을 받는가?

참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 » “옛적에, 주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일 년에 세 번씩 당신께 경배하러 모이도록 지시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에 바칠 십일조와 속죄 제물과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이 성회에 나왔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다시 이야기하

고, 그분의 놀라운 행적들을 알리고, 그분의 이름에 영광과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모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가리키는 희생 제사에 참여해야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세속주의와 우상 숭배의 부패시키는 세력으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이었다. 믿음과 사랑과 감사가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고, 이 신령한 예배를 통하여 함께 교제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과 및 피차간에 더욱 밀접하게 결속될 것이었다”(교회증언 6권, 39).

- » “나는 기록하는 천사가 창고에 들어가는바 하나님께 바친 모든 헌물과 이렇게 바친 재물의 최후 결과에 대해서 빼놓지 않고 충실하게 기록하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업에 바치는 모든 푼돈까지, 또한 바치는 자의 자원하는 마음이나 혹은 주저하는 마음까지도 다 보시고 아신다. 또한 바치는 동기 역시 기록된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것을 그분께 돌려 드리는, 희생적이며 헌신적인 사람들은 그 행위에 따라 보상을 받을 것이다”(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21).
- » “히브리인들에게 종교적 목적과 자선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요구한 헌물은 결국 저희 수입의 4분의 1은 족히 되었다. 백성들에게 것처럼 무거운 부담을 지우게 되면 그들이 빈곤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와 반대로 이 규칙들을 충실히 준수하는 것은 그들이 번영하는 조건 중의 하나였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조건으로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말 3:11, 12)’”(부조와 선지

자, 527).

12 돈으로 드리는 헌금과 더불어 어떤 다른 종류의 헌물을 드릴 수 있는가?

참고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의 사업을 중단하고 상당한 시간(한 달이나 때로 그 이상)을 떼어 놓고 해외 선교 여행에 가서 자신들이 가진 전문 기술(의료, 건축, 구호 등)을 사용하며 봉사하기도 한다. 즉 재능 기부나 자원봉사 등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말라기 2:17~3:12).

13 말라기 3:7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참고 “이는 마치 각 사람의 마음이 이 초청에 응답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당신과 연합하여 이 땅에서 당신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의 죄 많은 자녀들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하신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손을 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잡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와 함께 유업을 나누도록 하시기 위하여 극기와 자기희생의 좁은 길을 걷도록 도와주신다”(선지자와 왕, 706~707).

14 십일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 왜 도둑질인가?

참고 “자신들을 주님의 편에 두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주께서 요구하시는 봉사를 주님께로부터 훔치고 있는 것이다. 주의 집인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그분께 집세를 어느 정도나 내고 있는가? 그들은 그들이 세상을 창조하거나 한 것처럼 행하고, 그들이 가진 것을 그들 좋을 대로 쓸 수 있는 권리라도 가진 것같이 행한다”(원고, 50, 1901).

15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을 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참으로 누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참고 “재산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소유를 흠으신다 하더라도 놀랄 필요가 없다. 주의 일과 그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의당 버려야 할 것을 붙잡아 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서 심판하실 것이다. 계속 많은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만약 주의 청지기들이 주님께로부터 빌려 받은 재산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기를 거절하면 주께서는 그 재산을 흠어 버리실 수도 있으시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손실 중에서 하나도 찾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의무를 태만히 한 것을 생각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하지만 그들의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절망적일지도 모른다”(화잇주석, 말라기 3:11).

- »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일 년에 세 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뵈옵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뵈옵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신명기 16:16, 17).
- »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시편 122:1~4).

16 ▶ 중앙 창고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참고 “역사상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직적 자선과 헌물과 연보 제도를 실천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과 비례하여 그들의 모든 활동에 번영이 따를 것이라는 불변의 약속을 깨달았다. 그들이 하나님의 요구를 인정하고 그분의 요청에 응함으로써 그들의 물질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할 때에 그들의 창고는 풍성하게 채워졌다”(교회증언 3권, 395).

17 ▶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십일조와 헌물을 드리기 위하여 일 년에 세 차례 예루살렘으로 여행해야 했던 것은 어떤 필요성 때문이었는가?

참고 “옛적에, 주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일년에 세 번씩 당신께 경배하러 모이도록 지시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에 바칠 십일조와 속죄제물과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이 성회에 나왔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다시 이야기하고, 그분의 놀라운 행적들을 알리고, 그분의 이름에 영광과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모였다. … 그리하여 그들은 세속주의와 우상숭배의 부패시키는 세력으로부터 보호 받게 될 것이었다. 믿음과 사랑과 감사가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고, 이 신령한 예배를 통하여 함께 교제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과 및 피차간에 더욱 밀접하게 결속될 것이었다”(교회증언 6권 39).

18 ▶ “빈손으로 여호와를 뵈옵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설명하라.

참고 “옛날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1년에 세 번씩 당신께 경배하러 모이도록 지시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에 바칠 그들의 십일조와 속죄제물과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이 성회에 나왔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다시 이야기하고, 그분의 놀라운 행적들을 알려 주고, 그분의 이름에 영광과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모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가리키는 희생 제사에 참여해야 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세속주의와 우상 숭배의 타락시키는 세력에서 보존될 것이었다. 믿음과 사랑과 감사가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고, 이 신령한 예배에서 함께 교제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과 피차간에 더욱 밀접히 결속될 것이었다”(증언보감, 2권 378~379)

즐겁게 십일조 드리려면...

단계 1-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받아들여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기뻐하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에 있으며, 십일조를 돌려 드림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원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주(救贖主)로서 기리는 것이다. 이 구속은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회복한다.

단계 2-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여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새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

단계 3-우리의 소유권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받아들여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선물을 주의 깊게 감독하여 하는 책임을 받아들인다.

단계 4-하나님의 돌보심과 지도와 사랑을 인정하라

십일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삶의 모든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긴밀하게 관여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필요를 위해 공급해 오셨음을 상기시켜 준다.

단계 5-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은 소유주이시고 우리는 그분께 속하였으므로 거룩하다. 우리의 십일조는 우리 역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었음을 고백하는 행위가 된다(레위기

20:26).

단계 6-우리 생애를 하나님께 다시 거룩하게 구별하라

십일조를 드리는 일은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성별(聖別)하는 기회가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새 생애를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는 물질세계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리며 이와 같이 영적 세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셨음을 인정한다.

빛에서 벗어나기

보통 미국인 가정은 빛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약 43%의 가정이 매년 그들이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한다. 평균 가구들은 8천 달러의 신용 카드 채무를 안고 있다. 매달 갚지 않고 이월되는 신용 카드 채무 총액은 이제 9150억 달러를 웃돌고 있다! 개인 파산은 지난 10년 동안 두 배로 늘었다. 그리고 1,000만 가정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주택의 현재 가치를 초과하는 담보 대출금을 갖고 있다.



빛에서 벗어나기

잠언 22:7,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빛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설문 조사에 따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독교 원칙들을 공언하지 않은 사람들 만큼이나 빚 때문에 큰 재정적 곤경에 빠져 있다! 그리스도인이 적자 재정운영에 면역이 되어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평범한 개인이나 가족들이 자신이 채무 상태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기에 부채가 증가하는 이유와 간단한 해결책 몇 가지를 제시한다.

1. 소비 양식

현대인들은 이전 세대들에게서 결코 볼 수 없었던 비율로 소비하고 있다. 때로 가정들은 모든 수입을 다 쓰기도 모자라 그 이상을 쓰고 있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 먼저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혹은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아주 다양한 물건이 있다. 둘째로 물건 사는 게 재미 있고, 또는 아주 싸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은 많은 물건을 구매한다. 싼 물건들은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에만 싼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그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인 양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해결책. 꼭 사야 할 품목을 적은 후에 “필요에 따른 소비”를 하겠다는 철학을 가져라. 구매할 물건의 목록을 갖고 소비하라. 지출 액수의 한도를 정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의류나 가구와 같은 물건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그렇다.

2. 신용 구매의 용이함

오늘날 일반 사람들이 신용 카드를 쉽게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전 세대들이 보았다면 놀랄 것이다. 일단 우리가 어떤 신용 카드 회사의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그 회사에서는 우리가 신용 카드를 가지고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정기적으로 청구서를 보낸다. 청구 금액을 갚지 못하면 높은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신용 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대개는 가게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쉽게 물건을 사게 된다.

해결책. 신용 카드가 재정적 파멸을 불러온다면 그 계정들은 정리하고 카드는 잘라 버려야 한다. 초기 교회 당시 에베소에서 마술에 관한 책을 대중 앞에서 불살랐던 것처럼(사도행전 19:18~20) 신용 카드들을 잘라 버리는 가족 행사를 가져라.

3. 성인용 장난감

중상층 미국인들이 사는 이웃 마을 거리에는 다양한 성인용 장난감, 예를 들어 레저 차량, 레저용 보트, 제트 스키 그리고 설상차(雪上車) 등이 바깥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종종 우리는 특별한 이유 없이 차를 바꾼다. 예를 들면 우리는 최신 모델의 매끈매끈한 라인이나 새로운 실내 장식 용품 등에 이끌리는데, 이는 대개 동료들의 시선이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그러면서 “내 고객들이 그런 것을 기대한다.”는 구실을 붙인다. 요약하면 이러한 것들은 이웃집 수준에 맞추려는 공색한 변명일 뿐이며 분명 자기만족과 자존심에 뿌리를 둔 것이다.

해결책. 자동차를 바꿀 때는 올바른 이유, 예를 들면 안전이나 경제적 문제가 있을 때 바꿔라. 즉 차량이 차고에 있을 때보다 정비소에 있을 때가 더 많다는 사실

을 알게 되었다면 새 차(적어도 다른 차)를 알아보아야 할 때이다.

4. 외식

성인과 십 대들의 공통적인 습관은 밖에서 음식을 사 먹는 것이다. 매주 교제비를 위하여 사용된 이런 과소비 때문에 다른 필수품을 구입할 재원이 줄어든다. 하루에 한 번 외식하게 되면 매월 부식비가 두 배로 늘어난다고 한다!

해결책. 생일이나 데이트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위한 외식 접대(한턱 내기)를 아껴라. 음식의 영양의 질이 떨어지거나 물리지 않게 하되 단순화하라. 그러면 당신의 지갑과 몸은 당신에게 감사할 것이다.

5. 예기치 않은 청구서

여기에는 (1) 차량 (구입, 수리, 유지), (2) 의료비, (3) 주택 담보 대출 이외의 세금, 보험, 건물 보수와 같은 가계비가 포함된다. 이러한 세 영역은 때로 “비로 그치지 않고 폭우!”가 되는 경우가 많다. 어느 날 자동차 배터리가 나가고, 의류건조기의 가열 장치가 과열되고, 아이가 응급실에 가야 할 일이 생기는 식이다.

해결책. 적어도 100만 원 정도의 비상 계좌를 만들어 두어라. 비상 계좌는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매주 2만 원 정도를 따로 떼어서 갑작스런 재정적 “기습”에 대처할 만큼 될 때까지 불러 가라. 여기에 연간 봉급 인상분이나 세금 환급금 등을 사용하라.

6. 소득의 감소

가계 소득의 감소는 한쪽 배우자의 실직, 만성적인 질병, 혹은 가정의 위기 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야기될 수 있다. 이런 일은 예기치 않게 가령, 회사의 인수로 인한 급여 중단, 인원 감축 혹은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된다.

해결책. 재정 계획의 첫 번째 법칙 가운데 하나는 장기적 비상 상황을 위하여 석 달분 이상의 생계비를 따로 보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최소 목표액(3개월분)에 도달할 때까지 매달 고정된 금액을 저축하라.

7. 가정 예산 혹은 소비 계획의 부재

과소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된 두 가지 이유는 (1) 재정 계획이나 예산서가 없거나 (2) 탄력적인 계획을 갖고는 있지만 거의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해결책. 가족 예산을 세우라. 두세 달 동안의 전체 지출 합계를 달 수만큼 나누어 매월 평균 지출을 파악하여 동일한 기간 급여에서 쓸 수 있는 소득과 지출을 비교하라. 만일 지출이 수입보다 더 많다면 비상 금융 조치가 필요하다.

빛에 관한 성경적 관점

성경은 빛에 대하여 “안 돼!”라고 말한다. 성경에는 적어도 빛에 대하여 26회 언급하였는데 모두 부정적이다. 돈을 빌리는 것을 죄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 빛에 대한 성경의 일곱 가지 원칙이 있다.

1. 빛은 속박의 한 형태이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빛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잠언 22:7). 부자들의 시대에 종종 개인이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원인은 정확히 말해서 값지 못한 빛 때문이었다. 4천 년 동안 세상이 그다지 많이 변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체적인 속박 상태에 빠지지 않는 않지만 지나치게 불어난 외상 때문에 물질적인 소유의 노예가 되었다.

그러한 예속을 피하도록 빌리는 일에 대해 해 줄 수 있는 최선의 충고는 다음 세 가지 규칙을 따르라는 것이다. (1)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품목만을 빌리라. (2) 단기로 빌리라. (3) 가능한 한 저렴한 이율로 빌리라.

2. 빛은 만족을 모르는 마음이다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빌립보서 4:11)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디모데전서 6:6). “이웃집과 수준을 맞추려”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소유하고 싶어한다든지(탐심), 아니면 이미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여(욕심) 사람들은 기꺼이 빈번하게 빚을 내는 것이다.

3. 빛은 미래를 가불해 쓴다

미국인들은 2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 대출 기간을 연장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1939년에 의회는 처음으로 일반인들에게 25년짜리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자신들이 매월 납부금을 낼 수 있는지를 따져 보지 않고 대출을 한다.

4. 빨리 부자가 되려는 계획을 피하라

빨리 부자가 되려는 생각은 두 가지 요소를 만족시킬 때 커진다. 한 요소는 다른 사람의 무지, 순진함, 욕심을 이용해 재정적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다. 또 다른

요소는 적은 노력과 큰 꿈을 가지고 벼락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망이다. 이 두 요소가 만나면 빨리 사라지고 없어질 일시적 성공(요행)이 있다. 많은 사람은 정서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상처를 받으며 우정은 끝장난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빌린 돈을 잃을 뿐 아니라 높은 이자를 갚아야 하고 그리하여 가정은 재정적 긴장 아래 노출된다(디모데전서 6:9~10).

5. 다른 사람의 보증이 되는 일을 거절하라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영감 받은 현자인 솔로몬은 보증에 대하여 네 번이나 경고하였다. “내 아들이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잠언 6:1~5; 참조 잠 11:15; 17:18; 22:26).

보증은 대개 대출 자격이 되지 않는 신용 불량자가 돈을 빌려주는 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 할 때 발생한다. 대출 담당자는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만일 그가 신용이 좋은 친구를 데리고 와서 그와 함께 연대 서명을 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승인해 줄 것이고 연대 서명자는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때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해 준다.

때때로 동료 교인은 당신에게 와서 그런 일에 연대 서명해 달라고 요청한다. 당신은 “성경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했음을 상기시키고 거절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권면하지만 그들의 빛을 책임지는 일은 하지 말라고 권고한다. 종종 십 대 자녀들이 자동차 할부 구입을 위하여 혹은 더 나이든 성인 자녀들이 사업 관련 대출을 위하여 부모들에게 연대

서명 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동일한 답변이 적용된다. 미국 연방무역위원회에 따르면 금융 회사 대출을 위하여 연대 서명한 사람들 가운데 75퍼센트가 결국은 그 빚을 자신들이 갚았다고 한다(U.S. News & World Report, 2000. 2. 14.).

6. 빚은 우리 그리스도인 증언을 갉아먹는다

100년 전 엘렌 화잇은 이렇게 기록하였다. “그대는 한동안 어떤 지역에서 게으름에 빠져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빚을 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욕을 돌리게 된다. 그대는 이처럼 늘 빚을 갚는 데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대신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 버린다. 이것은 이웃을 속여 빼앗는 행위이다. 세상은 성경 상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에게서 엄격한 정직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교회증언 5권 179).

7. 빚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될 위험에 빠뜨린다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10퍼센트를 되돌려 드리지 않는 (그렇게 할 때 영적, 물질적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경고 신호

여기에 당신이 채무자의 뒷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몇 가지 경고 신호가 있다.

정기적으로 청구서 대금을 연체하고 있다-당신은 다음 달의 봉급으로 이달의 청구서를 막을 방법을 끊임없이 궁리하고 있다. 당신은 정기적으로 연체료를 물고

있다.

끊임없이 신용 카드로 살아간다-두 개 이상의 신용 카드를 필요로 하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당신의 신용 카드 잔고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신용 카드에 의존하여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일관성 없이 현금을 드린다-당신은 십일조와 헌물을 주님께 돌려 드려야 한다고 믿지만 늘 정기적으로 드리지 못하며, 자선 단체나 지역 교회에 자원해서 바치는 많은 시간은 재정을 하나님의 사업에 바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재정에 대하여 늘 염려한다-깨어 있을 때 당신은 돈 문제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없고 그래서 밤에 단잠에 들어야 할 때 당신은 갇아야 할 많은 채무 때문에 불면증으로 고생한다. 전화가 울릴 때 당신은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두려워한다.

신용 카드 회사들은 당신이 얼마나 깊이 빚에 빠져들 것인지를 알려 주는 말들, 예를 들면 “이자를 이고 살게 된다.”, “쪼들리게 된다.”, “적자상태다.”, “전 재산을 저당 잡히게 된다.” 등과 같은 말을 해주는 대신에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현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삶을 더 쉽게 해 줍니다.” 등과 같은 아침과 속임수의 말들을 사용한다.

신용 카드 발행자들은 많은 돈을 빌려주고 나서 재정적으로 묶여 있는 가정들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이익을 챙긴다. 신용 카드 수익의 75퍼센트 이상은 최소한의 매월 할부금을 내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이다. 신용 카드 빚은 이제 미국에서 9,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만일 당신이 걱정할 일이 필요하다면 지구온난화에 대한 걱정은 잊고 신용 카드라는 빛의 바다에서 몰려올 재정의 쓰나

미를 걱정하라. 그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다.

빛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

1. 결정하라. 문제를 인식하라. 빛을 없애겠다고 결심하라.

당신의 머리 위에 빛을 이고 있을 때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은 당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으며 그래서 이제부터는 소비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다.

2.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당신의 재정 결정을 영적 헌신의 문제로 삼아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인도를 간구하라. 당신이 내린 결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간구하라.

3. 모든 신용 구매를 끊으라.

단순히 더 빚지지 말라! 그 어떤 이유로도 빌리지 않겠다고 결심하라! 신용카드 개설을 중단하고 기존의 신용카드 채무는 빨리 갚으라.

4. 현재의 전반적인 재정 상황을 명확히 판단하라.

개인들이 재정적인 곤경에 빠지게 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자신의 빚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는 것이며, 더 나쁜 것은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이자를 물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앉아서 집, 신용카드, 자동차, 학자금, 백화점 신용 거래 등에서 어느 정도의 빚이 있는지 적어 보라.

5. 상환 계획을 세우라.

채무 변제를 위해 용자를 낸다는 생각은 매우 매력적이고 논리적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빛에 더 깊이 빠져들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 이 계획은 빛을 없애지 못하며 단순히 기간을 훨씬 더 늘려 더 적은 월 할부금으로 쪼개어 낼 뿐이다.

상환 계획 제안

☞ **십일조를 확립하라.**

하나님의 축복은 십일조에 충실한 가정들과 함께한다. 하나님께 대한 재정적 충성의 기초를 놓고 난 후 빛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

☞ **빛을 눈덩이처럼 불리고 적은 빛부터 먼저 청산하라.**

모든 빛을 다 끌어내어 (빛을 불리고) 가계 부채 전체 목록을 작성하되 가장 위쪽에는 제일 큰 빛을, 가장 아래쪽의 가장 작은 액수의 빛순으로 작성한다. 가장 아래에 적혀 있는 가장 작은 빛(예를 들어, 신용 카드 잔고)은 최우선 변제 대상이다. 그것을 갚으면 곧바로 다음 빛에 집중한다. 채무가 청산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상쾌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은 주택 담보 대출의 이자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먼저 갚으려는 유혹을 받는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좋은 방안이 아니다. 주택담보 대출은 가장 큰 빛이며 그래서 갚는데 상대적으로 긴 기간이 걸릴 뿐 아니라 그동안에 여전히 더 작은 청구서에 대해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이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들을 반드시 정확히 따라야 한다.

- 가장 중요한 일로써, “나/우리는 나/우리의 현재 빛을 완전히 갚기 전에는 다시 돈을 빌리지 않겠다.”라고 말하라.
- 모든 생계비와 빛 전체를 포함하여 균형 있는 가정 예산을 다시 세우라.
- 계속하여 빛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운 목표에 집중하라.

☞ 당신의 책임을 선언하라.

채무 탈피/축소 계획에 대해 서약하고 그것을 문서로 남겨라. 매달 믿을 만한 친구, 기도 파트너 혹은 교회의 금융 상담사에게 전화로 보고하라. 이것은 그 사람이 당신의 빚에 대한 자세한 사실을 알고 그 빚에 대한 책임을 공유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파산에 대하여

파산법은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사람이 자신의 채권자들 사이에 그가 갖고 있는 자산의 분할을 통하여 그 빚을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감독하의 분할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해 준다. 파산법의 다른 목적은 비록 채무가 완전히 변제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단 그들의 자산이 채권자들에게 분배되고 나면 그들을 재정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 줌으로써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변제를 요구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파산 절차는 채무자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채권자가 주도할 수도 있다. 채무자는 소송에 속하는 재산으로 선언된 소유물을 이동할 수 없다. 채무이행 조정(혹은 파산 보호) 신청은 (면책 결정 후) 7년에 오직 한 번만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파산했다는 사실은 그의 신용 기록에 5년간 남아 있어서 대출 신청이나 전문 기관에의 임용 등에 대해 평생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사람들은 종종 “성경은 파산을 허용하지 않는가?”라고 묻는다. 그 답은 “아니요.”이다! 자주 언급되는 성경절은 신명기 15:1~20이다. “매 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 이 권면

은 채권자에게 주어진 것이지 채무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권면은 다만 장기적인 채무 관계를 최대 7년으로 제한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 준다(시편 37:21).

파산법은 비극적이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있는 것이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은 자신의 방만한 경영으로 발생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파산 제도를 남용한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신앙과 깨끗한 신용을 위하여 우리는 파산을 좀처럼 추천하지 않고 대신에 금융 재건 방식을 권장한다.

신용 카드 빚을 머리에 이고 있는 때에 종종 “당신의 할부금을 낮추어 드립니다.”라는 제안에 솔깃하여 두 번째 담보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주택의 순가(純價-세금 등 제 경비를 공제한 차액-역자 주)를 현금으로 찾게 되면 그 가정은 폭격을 당한 격이 된다. 빚을 갚으려고 다른 빚을 내는 것은 곤경에 빠진 가정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이다.

만일 당신이 재정적 곤경에 빠진 상황이라면 고비용의 주택 담보 대출에 끌리게 되는데, 이것은 전혀 이득이 안 되는 일이다. 당신은 집에서 쫓겨나 거리에 나앉게 될 수 있다. 만일 담보 대출 기관이 신용 카드 회사보다 더 낮은 이율을 제공한다면 그것은 담보 대출 기관이 그 대가로 무엇인가(당신을 거리로 내몰고 그 집을 잡아 팔 권리)를 얻기 때문이다.

지난 세기로부터의 권면

“더 이상 빚지지 않기로 결심하라. 빚을 지느니 오히려 천 가지 일을 부정하라. 이것이 그대의 생애에 저주가 되었고 빛에 쫓들리게 하였다. 천연두를 피하는 것처럼 그것을 피하라. ...설혹 보리죽과 빵만 먹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축

복으로 빛을 갠 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엄숙히 서약하라. …마음이 흔들려 낙담하거나 뒤로 돌아서지 말라. 그대의 식도락을 부정하고 식욕의 방종을 부정하여 그대의 돈을 조금씩 저축하여 두었다가 빛을 갠다. 가능한 한 빨리 빛을 청산하라. 그대가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않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때에 그대는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 낸 것이다”(재림신도의 가정, 393~394).

책임을 저라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책임 부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변명을 한다.

나의 배우자는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의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한 빛지지 않을 거라는 희망이 없어요.

빛에서 벗어나려면 가정 예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래서 한 번 시도해 보았는데 우리에게는 그게 통하지 않았어요.

나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나의 부모(처부모/시부모)은 엄청난 돈을 갖고 있지만 결코 우리를 도우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배우자나 부모님 혹은 재정 훈련의 부족을 비난하는 대신에 채권자들에게 빛을 갠아야 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라. 메어리 헌트는 “당신의 채권자에게 걸려 온 전화를 내던지고 우편으로 날아온 청구서를 찢어 버리는 등 책임을 피하기 위한 어떤 일도 하려 하지 말고 그만 도망쳐라. 전화를 받고, 올바른 일을 하고, 진실을 배우고, 그것을 글로 쓰고, 심호흡을 하고 책임을 저라”(Money Matter, 1998년 8월).

올리시즈 S. 그랜트 대통령의 교훈

미국의 가장 위대한 군사학교 교장 가운데 한 사람은 올리시즈 S. 그랜트였다. 그의 장년의 삶은 세 시기로 구분되어지는데 첫째는 군 경력이었다. 그는 전투 장교였다. 둘째로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었는데 그의 첫 임기 내에 투표권의 차별을 금지하는 15번째 수정 조항을 제정하고 비준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위대한 사람에 대해 진실로 배우고자 하는 것은 그의 삶의 세 번째 시기와 관련이 있다. 올리시즈 그랜트는 뉴욕에서 일반 시민으로서 프레데릭 워드와 함께 평생 동안 모은 모든 돈을 중개업에 투자했다. 불행하게도 그 사업은 1884년의 월 가(街)의 공황 후에 15만 달러의 빚을 그에게 남기고 실패로 끝났다. 어떻게든 살기 위해 그는 '전투와 지도자들'이라는 제목의 연재물로 자신이 경험한 남북 전쟁에 관한 세 기사를 <센추리>잡지에 게재했다.

<센추리>잡지에 기사를 쓰는 동안 그랜트는 자신이 후두암이라는 불치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채권자에게 빚을 갚고 자신의 사후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써서 그 판매 순수익의 70퍼센트를 받기로 하고 마크 트웨인 퍼블리싱 컴퍼니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했다. 극한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랜트는 한 장, 한 장을 써 나갔고 마운드 맥그레저에서 죽기 며칠 전 마지막 장을 완성했다. 그의 책 <U. S. 그랜트의 회고록>은 경이로운 판매고를 올림으로써 그의 빚을 다 갚고 아내와 가족들에게 30만 달러 이상을 남겨 주었다.

이 대통령의 삶의 이야기는 자신의 빚을 갚지 않고 올 한 해 동안 파산을 선언한 150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과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자신의 빛보다 더 안전한 투자는 없다. 비록 현재의 빛이 감당할 만한 것이라 하여도 모든 빛을 선납하고 그래서 당신의 가족이 빛에서 해방되는 그날을 앞당기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심화 연구

»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빛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잠언 22:7)

1 성경은 빛진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참고 성경은 빛진 사람을 “종”(노예)으로 묘사하고 있다.

2 채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참고 빛진 사람은 채주(혹은 대출 기관)이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3 어떤 성경 번역본은 “종”을 “노예”로 번역한다. 어떤 의미에서 빛은 속박과 같은가?

참고 부조들의 시대에 개인들은 감지 못한 빛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오늘날은 육체적인 의미의 속박 상태에 빠지지 않는지만 과도한 빛은 빛진 사람이

그 빛을 갚는 데 오로지 매이게 되므로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삶을 계획하거나 향유할 수 없다.

4 이 과에 포함된 양식 #4를 작성하라.

이 연습 문제에서 당신의 빛이 얼마인지 알기 위해 2과(양식 #2)의 대차 대조표를 사용할 수 있다. 합계를 보고 낙담하지 말라. 이 일은 빛을 시각화하고 모든 빛을 찾아내어 없앨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로마서 13:8).

5 이 구절은 담보, 학자금 대출이나 자동차 대출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참고 가급적 대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에도 대출금을 최소화해야 한다. 빛은 언젠가 갚아야 하는 것이다.

6 이 성경 본문은 돈을 빌리는 것이 당신의 경제에 항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여기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가? 설명하라.

참고 돈을 빌리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소비 생활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오지 않았거나, 질병이나 사고 등 갑작스런 비상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런 비상 상황을 위해 저축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해 주기도 한다. 빛진 상황에서는 앞으로 긴축 재정에 들어가야 함을 예고하지만, 상황을 잘 벗어나지 못하면 만성적인 장기 채무 상황에 빠지기가 더 쉽다.

» “악인은 꾸고 값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시편 37:21).

7 자신의 빛을 값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불리는가?

참고 빛을 값지 않는 사람은 여기서 분명 악인으로 분류된다. 이 구절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악인은 잘되지 못하여 빛을 값을 수 없게 되고 의인은 베풀고 나누어 줄 만큼 번영하게 되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빛을 값을 마음이 없는 악인의 의도 역시 반영하고 있다.

8 그들에게 왜 이런 이름이 주어지는가?

참고 빛 자체도 나쁜 것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빛은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빛은 누군가의 소유이며 빛을 값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남의 소유에 손해를 끼친 것이다. 악인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려고 한다.

9 이 성경절의 의미에 따르면 의인들은 그들의 빛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참고 의인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의 진 빛을 값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빛 값을 일을 삶의 일 순위에 두어야 한다.

10 이 구절을 염두에 둘 때 그리스도인은 파산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참고 파산은 자신의 빚을 갚지 못하겠다는 선언과 같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가급적 파산을 피해야 하며 빚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더욱이 계획적인 파산은 범죄 행위로 보아야 한다.

» “매 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 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라”(신명기 15:1~2).

11 이 성경 구절은 파산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설명하라.

참고 이 구절은 채주에 대하여 말하고 있을 뿐 파산을 지지하는 말씀도, 채무자와 관련된 말씀도 아니다. 이 권면은 장기적인 채무 관계를 7년으로 제한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해 준다.

12 이 구절에서 어떤 표현이 당신이 알고 있는 파산과 유사한가?

참고 “면제”는 문자적으로 “사면하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이 말은 채무자가 그 진 빚을 갚을 수 없는, 즉 파산 상태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13 ▶ 어떤 유형의 사람이 이 구절에 언급되었는가? 채권자인가, 채무자인가?

참고 이 구절에서는 장기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태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14 ▶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장기 채무 상황을 최대 7년으로 제한하기를 원하셨는가?

참고 “무한하신 지혜로 그분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교육하셨다. 그의 요구는 전체적인 요구가 아니었다.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는 빛의 근원에서 백성들이 받아들인 모든 교훈과 연결되었다. 그들은 순종은 그들에게 풍성한 영적 은혜를 가져다 줄 것이며, 그들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능케 해 줄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불순종은 또한 그 확실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었다”(화잇주석, 레위기 25:10).

» “내 아들이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엮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언 6:1~5).

»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잠언 11:15; 참조 잠언 17:18; 22:26).

15 ▶ 보증은 무엇이며 성경은 어떤 이유로 그것에 대하여 경고하는가?

참고 보증은 타인의 빛을 대신 갚아 주겠다는 약속이다. “친구를 위하여 보증하는 자는 (1) 최소한 큰 고민도 없이 그가 조달할 수 있는 이상의 큰 금액을 지불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함으로써, (2) 친구의 정직성과 능력과 행운을 과도하게 신임함으로써 올무에 걸릴 수가 있다. …친구와 이웃이 어려울 때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4:21; 17:17; 18:24; 27:10). 이 사상들을 결합하면 어려운 친구를 위하여 그 당시에 지불할 수 있는 만큼만 보증을 서고, 또 보증 기간에 돈을 따로 떼어 놓아 자신이 지불할 능력 이상의 금액을 갑자기 요구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조언이 된다. 친구들은 무거운 짐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겨질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부주의로, 때로는 질병 혹은 빈약한 사업 능력 때문에 실패한다. 그들의 실패는 법의 가혹한 처사와 함께 불행한 보증자를 찾아온다. 그의 집과 땅, 그의 가구와 의복들, 그의 사업과 가족이 모두 채권자에게 좌우될 수도 있다. 솔로몬의 시대에는 보증인의 가족도 저당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그와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 노예로 팔릴 수도 있었다”(SDA 성경주석, 잠언 6:2).

16 ▶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연대 서명하는 것은 괜찮지 않은가?(잠언 17:18 참조)

참고 어떤 경우든 남의 빛에 보증인이 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다. 대부분의 보증은 가까운 친구들에게서 비롯된다. 가족의 경우 역시 쉽게 연대 서명을 해 줌으로써 관리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사업의 시작이나 무분별한 확장을 조장할 수 있고, 그 실패의 무거운 짐을 떠맡을 수 있다.

17 ▶ 매우 위험하고 무모한 연대 서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참고 연대 서명이란 채무자가 빛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 채무자 대신 그 빛을 책임질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양심적인 채무자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빛을 갠으려 하겠지만 최근 미국의 경우 70퍼센트 이상이 연대 서명한 보증인이 결국 갠게 되었음이 보고되었다.

»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족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신명기 28:9~13 참조, 43~45절).

18 ▶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빛과 관련하여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참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빛을 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도리어 꾸어 주는 입장에 있게 될 것이다.

19 ▶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떤 재정적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가?

참고 하나님의 계명(말씀)은 엄격한 정직, 청렴, 성실 등을 요구한다. 부정직, 사기, 기만, 게으름 등은 더 쉽게 재정적 파국으로 치달게 할 수 있다.

»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마태복음 5:42)

20 이 구절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당신의 대답에 대해 설명하라.

참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과 어려움에 빠진 친족을 돌보아 주는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이다(잠언 28:27; 마태복음 6:2; 딤편 5:8). 구제는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전적으로 베푸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환을 전제로 빌려주는 일은 그러한 구제의 일부일 것이다.

21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가족들에게 돈을 빌려주려 할 때 어떤 요소나 원칙들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가?

참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자신의 능력 안에서 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돈을 빌려줌으로써 자신의 삶과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되면 반대로 자신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위치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 “...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빛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열왕기하 4:1~7).

22 채권자들은 돈을 빚진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신용 카드 회사가 당신에게 어떻게 대하리라고 생각하는가?)

참고 대체로 채권자들은 자신이 채무자에게 관대한 태도를 보이면 후일에 빚을 잘 갚지 않아도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기대하고 채무자가 빚 갚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엄숙하고 위압적인 태도를 보인다.

23 그리스도인은 채무 위기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참고 불가피하게 채무 위기를 만났을 때 일차적으로 하늘의 도움을 간구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을 찾아가 상담과 조언을 받아 도움과 지혜를 구할 수 있다.

24 이 이야기의 핵심 기별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참고 교회는 질병이나 실직 등을 통하여 갑작스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믿음의 가족들을 그들의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 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다.

» “네가 만일 나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출애굽기 22:25).

»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나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나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

를 위하여 돈을 꾸어 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꾸어 주지 말라”(레위기 25:35~37).

25 ▶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간주하시며 그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참고 가난한 자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형제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

26 ▶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출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한가? 설명하라.

참고 가난한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성경이 엄격히 금지하였다(레위기 25:35~37). 한편 이방인들, 즉 불신자들에게서 이자를 받는 일은 허용되었다. 대개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꾸다.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 돈을 꾸는 경우는 그들이 사업상 필요에 의한 영리적인 목적으로, 즉 그 돈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출을 내는 것이므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 역시 도움을 주려는 것이 아닌 투자의 측면에서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27 ▶ 결코 변제될 수 없는 빚은 무엇인가?(로마서 13:8 참조)

참고 “피차 사랑하는 것은 무한한 채무이다. 그것은 갚기 위해 늘 노력하지만 동료 인

간을 위해 선한 일을 할 기회가 남아 있는 한 결코 완불할 수 없는 빛이다”(SDA 성경주석, 로마서 13:8).

믿음과 재정 양식 #4

채무 시각화

(필요하면 복사해서 사용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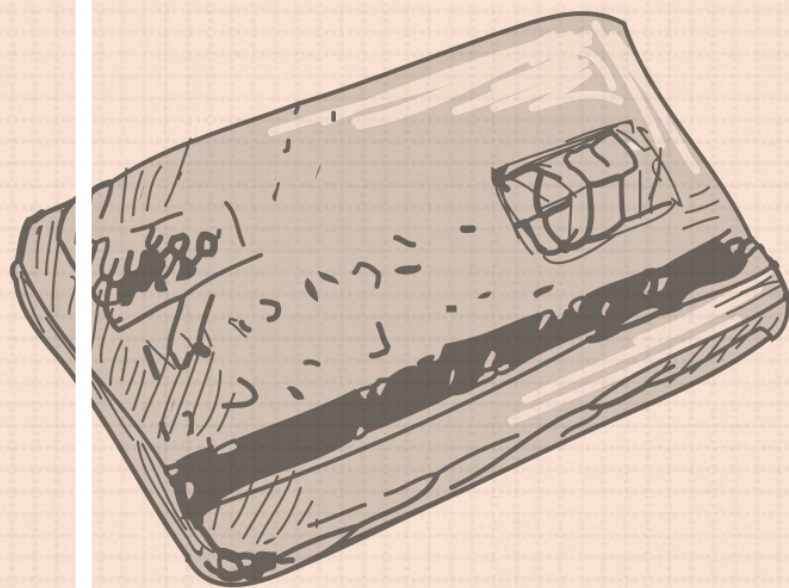
사례들	우리의 빛(이름) (큰 액수에서 낮은 액수순으로 기입)	지불 잔고	월 최소 할부금
주택 담보			
2차 담보			
대출/신용 공여			
학자금 대출금			
자동차 대출금			
개인 대출			
신용 카드			
다른 채무			
합계			

Lesson

05

지출 계획 세우기

비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2~3년 마다 새 차를 사고, 장을 보면서 과일 주스와 따뜻한 음료수 한 잔을 마시는 데 5천 원 이상을 쓴다. 어떤 결과가 올까? 수입이 괜찮은 사람들조차도 그때그때의 봉급으로 살아간다.



지출 계획 세우기

시편 1:1~3,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학창 시절 이후에 재정적 문제로 씨름할 거라는 생각은 새로울 게 없다. 문제는 베이비붐 세대의 부모들에게 젊은 날의 고생은 훗날 안정과 번영으로 이어졌지만 오늘날 젊은 세대들의 기울어진 초년의 삶은 훗날의 안정과 번영을 기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울한 전망의 주요 요인들에는 학자금대출, 신용카드, 임금 정체, 건강 관리 및 주택 관리비의 상승과 사회보장 제도의 곤경에 따른 연금의 소멸 등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결혼과 육아가 늦어지게 되고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예산에 맞추어 산다는 것은 미래의 복지를 위하여 오늘 재정 관리 훈련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 적절히 훈련을 받고, 이해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잘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문제들을 전적으로 피할 수 있다. 재정 계획은 당신의 인생을 향유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처음 시작하기

예산 혹은 '지출 계획'은 성공적인 재정 계획을 위해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일, 저축 계획이 없음 그리고 미래의 재정적 안정을 확보하지 못함 등 흔한 재정적 문제들은 예산을 세우게 되면 최소화된다. 예산을 세우는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소득 안에서 살아간다.
- 돈을 현명하게 소비한다.
- 재정 목표를 달성한다.
- 재정적인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 현명한 재정 운영 습관을 기른다.
- 이러한 관점에서 잘 세운 예산은 당신의 친구이며 적이 아니다.

예산 수립 시작하기

예산서 샘플(이 과의 끝)을 복사하여 당신에게 구체적으로 맞는 예산서를 최종적으로 얻기까지 이 작업을 여러 번 시도해 보라. 이 책이나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교재에 나오는 양식을 여러 장 복사하라.

예산 수립은 네 가지 주요 국면으로 요약될 수 있다.

1. **현재 상황을 평가한다.** 당신의 현재의 재정 상황은 어떤가?(2과의 대차 대조표와 장단기 목표를 세우면서 실습했다.)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개인의 필요와 당신이 추구하는 재정 방향을 정할 수 있다.

2. **세부 항목의 예산 비율과 할당액을 정한다.** 십일조, 헌물, 세금을 먼저 적은 후에 예산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솔직하게 추정치를 매긴다.

3. 세운 예산을 통해 지출, 저축, 투자 유형을 감독한다.

4. 상황에 따라 예산을 수정한다. 분기별로 (혹은 적어도 일 년 단위로) 재정 운영의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소득과 필요에 변동이 생기면 그에 맞추어 예산을 수정한다.

소득을 수치화하기

월급을 받는다면 한 소득원에 대한 작업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계획 수립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만일 주급을 받거나 매월 두 번의 급여를 받는다면 다양한 지출에 대하여 매번의 급여에서 얼마를 쓸 것인지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 만일 2주에 한 번씩 급여를 받는다면 매월 받는 두 번의 급여에 기초하여 지출 계획을 수립하라. 그런 다음 매해 세 번 급여를 받는 두 달간의 추가 급여는 저축하거나, 빚의 일부를 상환하거나, 특별 구매를 할 수 있다.

수입 예산을 세울 때는 만일 소득이 계절별로 다르거나, 판매 수수료처럼 수입이 규칙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좀 더 세밀한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난해의 실적이나 당해 연도에 대한 예상치를 토대로 소득액을 추정하라. 소득을 낮게 책정하면 과지출이나 다른 재정적 어려움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소득은 월급이나 급여만이 아니며 출처를 불문하고 얻은 수입 전부를 말한다. 월급이나 소득의 총합은 예산의 기초(100퍼센트)로 사용된다.

지출

십일조는 지출 항목의 첫째 칸에 기입되는데, 이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것으로서 소득에서 제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총매출에서 십일조

를 드려야 하는가, 아니면 순수익에서 드려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로 모신다면 우리는 총매출에서 십일조를 드리게 된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한다. “만일 우리가 그분께 너무 많이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품성과 본질상 정직하시기 때문에 초과된 부분을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조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입의 5퍼센트를 헌물로 드릴 것을 제안한다. 성경에는 헌물에 대하여 몇 퍼센트를 드려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 드리라고 말씀한다(신명기 16:16~17 참조).

소득과 사회 보장세

절세(節稅)하라는 말은 세금을 탈루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금 공제와 세금 유예 제도를 활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탈세는 올바른 행위가 아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마태복음 22:21)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소득에서 원천 징수된 세금 액수를 산정하여 예산서의 그 액수를 기입해 놓으라. 그러면 기일이 되었을 때 세금을 지불할 자금을 갖게 된다.

저축

턱없이 낮은 저축률은 부채 위기의 주요 요인이다. 예산 수립에서 매우 흔히 범하는 실수는 월말에 남은 돈을 다 써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대개 저축할 돈을 한 푼도 남지 않게 된다. 장기적 재정 안정을 위하여 저축을 위한 일정 액을 지출 항목에 넣어 예산에 포함시켜라.

단일 가정이 비상 저축 계정에 넣어 두어야 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

가? 소득이나 고용이 안정적인 사람에게는 석 달분의 급여를,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은 6개월 혹은 그 이상의 급여를 비상 자금으로 떼어 놓을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은 휴가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휴가를 다녀온 많은 사람이 일 년 내내 그 비용을 갚는데 모든 이자를 합하면 결국에 가서는 처음 산출했던 비용을 훨씬 웃도는 비용을 지출한다. 그래서 더 바람직한 일은 일 년 동안 미리 저축했다가 휴가를 누리는 중이나 혹은 집에 돌아와서 완불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자로 내는 많은 돈을 절약하게 된다.

고정 지출

주택 관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단일 예산 항목이다. 만일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려고 한다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산세는 일년에 오직 한 번만 내지만 그것은 예산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으므로 그 비용을 일년 전체로 고루 분산시켜 놓고 매월 일정 금액(추정액의 12분의 1)을 떼어 놓으면 재산세의 만기일이 도래했을 때 그 비용을 메울 수 있다.

예산에서 다음으로 큰 항목은 자동차 대출 혹은 자동차 저축이다. 자동차 판매상은 당신에게 자동차 구입을 위해 돈을 융자해 주려고 하겠지만(그들은 부과된 이자로부터 환급액, 즉 리베이트를 받기 때문에), 언제나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일 자동차에 대해 현재 할부금을 내고 있다면 완납할 때까지 중단하지 말라. 다만 그것들을 저축 계정으로 다시 돌려 새로운 차를 살 때가 되었을 때 현금으로 지불하면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잘 사고, 잘 유지하고, 잘 운행하는 것이다. 운송 수단에 드는 돈을 절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자동차 구입자들이 현재 이자로 내고 있는 수백만 원을 내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보험

보험은 만일 당신이 어떤 자동차 사고의 원인 제공자가 되었거나, 또 태풍 때 번개가 집을 쳐 불이 나서 집이 잿더미가 되었을 때 등 위기의 때를 관리하기 위함이다. 그와 같은 경우에 만일 재해 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재정상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혹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이 애써 일하여 모은 모든 것이 어쨌든 보호받을 것이라는 든든함에서 오는 마음의 평화가 있게 될 것이다. 일어날 수도 있는 예측 불허의 사태를 감당하기 위해 모든 보험에 가입할 필요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을 것이다. 다만 가장 큰 자산들과 건강 등을 지켜 줄 기본적인 보험 담보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인과 생명 보험

“생명 보험은 어떤가?” 어떤 사람들은 묻는다.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아닌가요?” 그러나 혹 당신의 때 이른 죽음에 대비하기 위하여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비싸지 않은 생명 보험 증서이다.

남북 전쟁이 끝나고 19세기가 다 지날 때까지 열렌 화잇은 생명 보험에 가입하는 일을 만류했다. 그러나 그 동일한 기간에 그녀는 화재나 태풍, 절도에 대비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일을 옹호했다. 그녀는 실제로 자신의 가정과 관련해서 이러한 종류의 보험에 가입했고 교회들과 행정 기관 건물들 또한 보험에 들어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므로 그녀는 이러한 위기 관리 방식에 반대했던 것이 아니다. 그녀가 반대했던 것은 19세기 후반의 무질서하고 종종 사기나 다름 없는 생명보험사의 악관 때문이었다. 1906년을 시작으로 하여 주와 연방 규제법들이 사기를 억제하고 보험 업계에 건전한 관행을 따르도록 요구하였다. 위기 관리의 한 형태로

서 합법적인 보험업을 확립하고 남용이 규제되면서 엘렌 화잇은 생명 보험의 가입에 반대하는 권고를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성경과 예언의 신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가족의 필요를 공급하고 가족을 보호해야 할 책임은 신성한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디모데전서 5:4, 8). 예수께서는 당신의 직계 가족을 돌보라는 동일한 원칙을 “하나님의 명령”(마태복음 15:6)으로 언급하며 강조하셨다.

따라서 만일 당신이 가정의 주 소득원이고, 빚도 있고 교육시켜야 할 자녀들이 있다면 당신의 때 이른 사망 시에 가족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순수한 생명 보험을 고려해야 한다. 단순한 20년 만기 프리미엄 장기 보험은 주택 대출을 완전히 상환하고 자녀들의 교육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약관의 금액은 쉬운 방식을 사용하여 수치화될 수 있다. 그것은 보험 설계사의 경험에서 나온 법칙에 기초되어 있는데, “전형적인 가정”은 당신의 사망에 따른 경제적 결과에 적응하는데 대략 7년 동안 받을 급여의 70퍼센트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일정하지 않은 지출

일정하지 않은 지출을 위해 계획하는 것은 저축이나 고정 지출을 위해 예산을 세우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일정하지 않은 지출은 가구의 상황, 계절, 건강, 경제적 상태, 그 외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다. 이 항목들을 위해서는 지난해에 사용한 이 부분의 항목들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가장 흔한 과소비 영역은 접대와 식비, 특별히 외식이다. 덜 비싼 브랜드의 물건을 구입하고, 최상의 중고 상품을 사고 신용 카드를 이용한 물품 구매를 피하는 것은 일반적인 예산 조정 기술이다.

성공적인 예산 세우기

지출 계획이 있으면 재정적 걱정을 덜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예산에 따라 살 때에만 유효하다. 소득, 지출, 목표가 변하면 소비 계획도 바뀌어야 한다. 성공적인 예산 수립은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잘 계획됨. 좋은 예산은 짜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든다. 이 과에 포함된 지출 계획서 샘플은 단순하지만 포괄적이고 소득이나 지출 수준의 차이에 관계없이 거기에 맞게 맞출 수 있다. 그 이유는 금액 대신에 백분비로 나타냈기 때문이다.

현실적임. 만일 당신의 소득이 중간 정도라면 값비싼 자동차를 사거나 비싼 휴가를 다녀올 충분한 돈을 곧 모을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

유동성이 있음. 뜻하지 않은 지출(예-아이 출산)과 생활비의 변동에 따라 쉽게 예산을 수정(증액)할 수 있어야 한다.

분명하게 소통함. 만일 관련된 다른 사람들이 지출 계획에 대해 알고 있지 않으면 그 계획은 제대로 실천되지 않을 것이다. 예산은 기록으로 남아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보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은 미래를 위하여 저축할 것을 장려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에서 저축은 가장 어려운 예산 항목이다. 꾸준히 저축하려고 하면 인간의 본성을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동 이체를 사용해서 저금하는 것이다. 많은 회사들은 저축과 은퇴 계정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동 급여 공제 계획을 갖고 있다. 돈을 은행계좌에서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도록 당신의 은행이나 투자 신탁 회사를 정하여 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

당신의 가족이 예산을 세우는 초반에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얼마 후에는 그것을 유지하는 일이 어렵지 않은 것을 알게 되고 곧 재정 영역에서 큰 만

족과 경제적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번 주에 일찌감치 예산/지출 계획서 양식을 여러 장 복사하여 자신의 개인 예산을 세울 것을 잊지 말라.

예산을 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셔서 그분을 첫째로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은 이 과정에 있어서 당신의 협력자가 되신다. 당신의 예산과 대차 대조표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잘 철해 두어라.

심화 연구

- » “네 양 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 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잠언 27:23~24).
- » “너희 중의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누가복음 14:28~30).

1 이 구절들에 따르면 예산의 의미는 무엇인가?

참고 예산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예상하여 그 모든 계획을 잘 이루어지도록 쓸 곳을 미리 정하는 일이다.

2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어림잡아 계획하는 일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참고 어렵잡아 계획하기 위하여는 전체 수입을 예측하고 쓸 곳을 분배해야 하므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의 범위를 알 수 있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지출 항목과 규모를 정할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돈을 사용할 수 있다.

3 지출 계획의 초안을 대충 작성하라(양식 #5).

- »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잠언 3:5~10).
- »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태복음 6:31~33).

4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예산 수립 절차의 어느 부분에 있는 것이 좋은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참고 구약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일관적으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면 우리의 매일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가 충실하게 십일조를 실천하게 되면 우리를 유지시켜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실증하는 것이다.

5 재정적 우선순위 면에서 하나님의 권면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가?

참고 우리가 재정에서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모신다는 것은 우리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염려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다.

»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디모데전서 5:8).

6 지출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아도 가족을 적절하게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참고 지출 계획이 없으면 충동구매를 통한 과소비에 쉽게 노출되므로 재정적으로 불안정하게 된다. 지출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소득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과 재정 목표를 의식하게 되므로 불필요한 소비가 억제되고 현명하게 재정 운영을 하여 가족들의 필요를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다.

7 단순 장기 생명 보험이 가족의 기본적인 필요를 제공하는 데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가? 설명하라.

참고 보험은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 준다. 특히나 가정의 소득을 책임지던 가장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하여 주 수입원을 상실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은 극한 상황에 몰릴 수 있다.

8 19세기 말 엘렌 화잇이 생명 보험에 가입하지 않도록 권고한 이유는 무엇인가?

참고 19세기 후반의 생명보험사들의 약관은 무질서하고 거의 사기나 다름이 없었다. 자금이 부족한 보험 회사들은 한쪽에서는 곧 부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예고도 없이 무너지는 일이 다반사여서 그들의 증권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그뿐 아니라 보험 회사들은 고객들을 불공정하게 취급하여 본질적으로 사기나 다름 없었다. 1906년 이후로 정부의 규제에 따라 점차 이러한 행태가 사라졌다.

»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마태복음 22:21

8 예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은 무엇을 의미했다고 생각하는가?

참고 그리스도인들은 소득세를 포함하여 국가가 부과하는 모든 세금에 대하여 납세의 의무가 있다.

10 개인의 소득세는 우리가 ‘가이사’에게 내야 하는 빚의 일부인가? 왜 그런가?

참고 국가는 외침(外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 유지를 위하여 군대와

경찰력을 유지하며, 산업을 육성하고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며, 교육, 보건, 복지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며 그것이 세금의 형태로 개인에게 요구되는 것이므로 국민의 일원으로서 그 모든 혜택의 수혜자로서 세금을 납부함이 정당한 행위이다.

11 한 가족이 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참고 세금 공제와 세금 유예 제도를 통하여 절세를 실천할 수 있다.

- »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린도전서 16:1~2).
- »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사도행전 20:35).

12 이 성경 구절들은 그리스도인의 예산에서 드리는 장소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치는가?

참고 “하나님께 십일조와 헌금을 구별하여 바치는 데에 있어서 안식일보다 더 적당한 때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한다. 우리는 구

속 사업에 나타난 그분의 능력의 증거를 창조 사업에 나타난 그분의 역사에서 본다. 우리 마음은 주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 주일의 수고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감사 표시로 십일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80).

13 ▶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말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참고 “나는 어떤 추운 겨울날 눈이 깊이 쌓인 눈길을 걸어가다가 혹독한 추위를 만나 거의 몸이 꽁꽁 얼어 죽을 뻔하였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그가 거의 얼어 죽게 되어 살 기력을 거의 잃게 되었을 때에, 문득 눈 위에 쓰러져 죽어 가는 한 나그네의 신음 소리를 들었다. 그의 마음에 동정심이 일어나 구원하여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자기의 괴로움을 잊어 버리고 한참 동안, 죽어 가는 그 사람의 얼음장 같은 찬 손발을 문지르고 일으켜 세워 보려 하였다. 그러나 도저히 그를 일으켜 세울 수가 없었으므로, 그는 동정의 팔로 그를 업고, 혼자서도 갈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그 험한 눈길을 갔다. 마침내 그 행인을 안전한 장소에까지 업고 갔을 때에, 문득 그가 남을 구원함으로 자기도 구원 얻게 된 사실이 머릿 속에 떠올랐다. 그가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열심히 노력하였으므로 자기 혈관의 열게 되었던 피는 빨리 순환하여 온몸의 말단까지 따뜻하게 해 주었다”(구호봉사, 305~306).

- » 지출계획서(양식 #5)를 완성하여라. 양식을 완성한 후에는 당신의 소득과 셋째 칸의 각 범주에서 당신이 쓰고 있는 실제 금액을 토대로 하여 첫째 칸에 제안된 비율상의 금액을 비교하여 보라. 그리고 나서 넷째 칸에 나타나 있는 차이를 주목하라. 이것은 여기에 제안된 비율보다 당신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영역이 어디인지를 볼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창세기 41장을 읽고 묵상하라.

14 왕의 꿈에 보인 일곱 마리의 살찐 암소들과 일곱 마리의 파리한 암소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참고 일곱 마리의 살찐 암소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때를, 일곱 마리의 파리한 암소들은 경제적으로 곤핍한 때를 의미한다.

15 이 구절은 비상 저축 자금의 가치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참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에 저축하게 되면 경제적 위기의 시기를 무난하게 넘길 수 있다. 석 달 분량의 비상 자금이 비축되어 있으면 적절하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계절마다 다른 사람은 6개월 이상분의 비상 자금을 떼어 놓을 필요가 있다. 예기치 않은 경제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자금은 실제로 궁지에서 구해 주게 될 것이다.

믿음과 재정 양식 #5

매월 예산/지출 계획

주의: 퍼센트는 예시이며 (십일조와 세금은 제외하고)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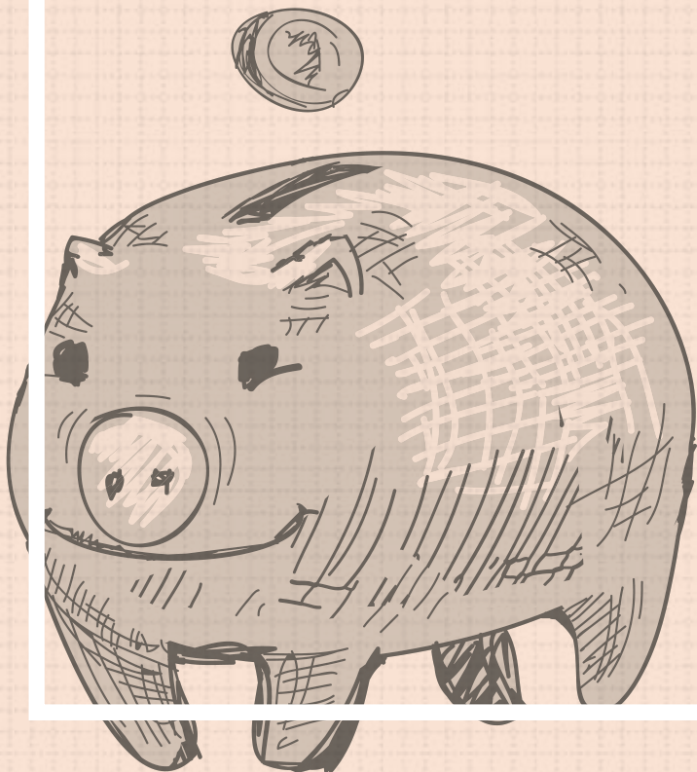
소득(월)	예산 액수		실제 금액	차이
	금액	퍼센트		
급여(총)				
기타 소득				
총소득		100%		
지출(떼어 둔 것과 저축)				
십일조		10		
헌물		5		
세금		21		
긴급 자금 저축		2		
휴가를 위한 저축		2		
투자를 위한 저축		2		
저축 합계		42		
고정 지출				
담보 대출 혹은 임대료		18		
재산세		4		
자동차 대출/자동차 적립금		5		
(장기)생명 보험		1		
고정 지출 합계		28		
일정하지 않은 지출				

부식비		9		
공공요금 : 전화, 난방, 전기, 수도		5		
의복비		3		
교통비 : 자동차 유류, 수리, 대중 교통비		7		
개인 및 건강 관리비		2		
접대비		1		
서적 및 평생 교육		1		
선물비		1		
개인 용돈 및 잡비		1		
일정하지 않은 지출 합계		30		
총합 (소득보다 적거나 같아야 함)		100%		

주의: 일단 월 소득을 정하였으면 단순히 그 총합에다 각 칸의 비율을 곱해서 첫째 칸에 목표 예산액을 적으면 된다. 그 단계를 마쳤으면 다음으로 당신이 지출한 실제 금액을 셋째 칸에 적은 다음 비교할 수 있다. 그러면 조정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있다. 만일 부식비에 총소득의 9퍼센트 이하를 지출하였다면 그 칸에서 1~2퍼센트를 필요한 그 밖의 다른 곳에 옮길 수 있다. 그러나 언제나 100퍼센트만을 지출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

자녀 훈련, 돈과 결혼, 돈과 독신자들

가족이란 결혼하여 부모를 떠나 새로운 가정을 이룬 남녀를 말한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상적이고 살아 있는 계약이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 때문에 세상의 상태는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러
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러한 이상을 현실에서 이
루기 위해 힘써야 하며 그렇게 할 때에야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할
수 있고 그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자녀 훈련, 돈과 결혼, 돈과 독신자들

빌립보서 4:11~13,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청지기 직분을 배우고 알게 되는 곳은 가족 관계 안에서이다. 지난날 많은 자녀는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자동차나 주택 구입 등에 관하여 실제적 조언을 줄 수 있는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채 초, 중·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를 졸업하였다. 다행히 이제는 좋은 책이 많이 나와 있으며, 그중에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저술된 것도 있어서 돈 관리에 관한 실제적이고 훌륭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누가 돈을 관리해야 하는가?

남녀가 결혼하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성경적 사상이다. 그러므로 돈 관리가 한 계좌로 통합되어야 한다. “남편의 돈”과 “아내의 돈”은 “우리의 돈”이다.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이 갖고 있는 빛에 대하여 서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경험상 결혼하면 배우자의 채무를 “물려받기” 때문이다.

결혼 생활에서 누가 돈을 관리해야 하는가? 간단히 말해 둘 다 예산을 잘 때 함께해야 하겠지만, 그 일에 가장 재능이 많거나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 가장 적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돈을 관리하는 가족들은 대개 결정은 함께하고, 일정 금액이 넘으면(가령 10만 원) 결코 배우자의 동의 없이 지출하지 않는다 등과 같은 어떤 지침을 가지고 있었다. 대차 대조표와 장단기 목표를 함께 작성하고 결정하는 부부는 그러한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할 가능성이 더 크다.

가정의 기본들

가족은 사회의 핵심 기초이다. “사회는 가정들로 구성되고 그 가정들의 행위에 따라 좌우된다. …지역 사회와 교회와 국가의 중심은 가정이다. 사회의 행복, 교회의 성공, 국가의 번영이 가정의 감화에 달려 있다”(재림신도의 가정, 15). 적절한 돈 관리와 시간, 재능, (몸)성전, 재물 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에 대한 청지기 직분은 노동 윤리, 청렴함, 의무에 대한 충실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들을 실천하는 가정에서 가장 잘 배울 수 있다. 가정의 가치는 아무리 많이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가 이상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묘사된 기본적인 가족은 그것이 한때 그랬던 것처럼 현실에서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지도를 위해 기도하고 이 책에 요약된 성경의 원칙들을 따르도록 최선을 다하라.

삶을 지배하는 법칙은 우연히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즉 그것은 배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다. 마음과 성품이 발달하는 삶의 초기 형성기 동안에 더 쉽게 배운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칙을 배우고 실천할 최적의 시간은 유년 시절이며, 이것은

가정과 그 감화력의 중요성을 가리킨다.

자녀 훈련 지침

가정 환경은 기본이다. 여기서 자녀들의 품성이 계발된다.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언 22:6)고 말한다. 잘 훈련받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과 그리스도인 가정들은 이러한 진술이 진실임을 증언한다.

우리는 가정의 지도 원칙을 연구하면서 가정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룯과 그의 가족들의 곤경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된다. 이상적인 가정 환경은 단순한 것이다. 가정은 자연에 가까운 곳일수록 더 좋다. 이는 자연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끊임없이 증언해 주기 때문이다.

정원에서 얻는 교훈

성품을 계발시키는 데 있어서 정원은 가정의 가장 중요한 활동 공간 가운데 하나이다. 아이들을 참여시켜서 어떤 것을 기를 때 (작은 꽃밭이라도) 소중한 교훈을 가르칠 수 있다. 신성의 능력과 연합하는 인간의 수고의 증거는 쉽게 나타난다. 식물을 심고 재배하는 일은 이러한 원리를 그렇게 생생하게 드러나게 해 준다. 원에나 채소 가꾸기는 책임감 또한 가르친다. 자녀들은 그들이 도와서 수확하거나 키운 채소와 꽃들을 볼 때에 큰 만족을 느낀다.

자녀의 돈 관리 훈련

자녀들에게 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로 하여금

직접 돈을 쓰게 하는 것이다. 이 일은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 그들이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아직 되기 전에 용돈을 줌으로써 실행할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은 자신의 수입조와 현금, 저금 그리고 쓸 돈을 계산할 수 있다. 이 분야에 대한 다음 권면은 매우 실제적이고 요긴하다.

“모든 청소년들로 하여금 단지 상상적인 문제만을 해결하게 하지 말고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기입하도록 가르쳐라. 그들로 하여금 돈을 쓰게 함으로써 돈의 바른 사용법을 배우게 하라.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나 혹은 손수 번 것을 가지고 소년 소녀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복, 책 그리고 다른 필수품을 선택하여 구입하게 하라. 스스로 지출을 기록하게 하면 다른 방법으로는 배울 수 없는 돈의 가치와 그 사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새 자녀 지도법, 136).

사람들은 늘 “우리는 자녀들이 몇 살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돈 관리하는 법을 최초로 가르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대답한다. 우리는 언제 자녀들에게 세 가지 R(읽기, 쓰기, 셈하기-역자 주)을 가르쳐야 하는가? 아주 일찍! 많은 아이들은 5~6세에 셈하고, 읽고 쓰기를 배운다! “자신의 금전출납부를 기록하게 하라.” 물론 이러한 어린아이들이 금전 출납이나 회계(會計)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들에게 저금통이나 작은 항아리 같은 것을 주어 그 안에 자신들의 수입조, 현금, 저금, 용돈을 모으게 할 수 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열 살이 되면 은행 계좌를 개설해 주어 부모의 감독 하에 돈 관리 경험을 얻도록 할 수 있다. 일단 자녀들이 돈 관리하는 법을 배우면 그들은 그때부터 스스로 책이나 의복이나 다른 일용품들을 구입할 수 있다. 이런 일은 아이들에게 큰 가치가 있는 일이다.

부모들은 자신의 돈 관리를 통하여 재정적 충실함의 모본을 보여 줄 수 있다.

즉 교회에서 십일조와 헌물을 드리는 모본을 보이고 가정 예배에서 청지기 직분을 가르칠 수 있다. 부모들이 모본을 보이고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관리 원칙의 하나는 근면이다(잠언 22:29). 만일 아이가 정직, 청렴 그리고 자원하여 일하는 정신을 배운다면 그는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사회의 짐이 되지 않을 것이다.

대학 비용을 위한 도움

자녀에게 큰 가치가 있는 대학 교육은 거기에 드는 상당한 비용 때문에 미리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 이 일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에 몇 가지 최선의 길이 있다. 우선 자녀들 스스로 자신의 필요를 공급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으려면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주입시켜야 한다. 그들은 또한 교육을 받으려면 근면의 필요성, 즉 그들 편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점과 돈을 포함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일의 가치와 일하는 방법을 일찍이 가르쳐야 한다. 책임, 신속함, 시간 엄수는 이야기와 모본을 통하여 배워야 한다. 이런 일은 부모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자녀들로 하여금 돕게 한다든지, 그들에게 수행해야 할 과제를 준다든지 그리고 잠자리에서나 예배 시간에 품성 계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부모와 학생들은 공부를 잘 하고, 지도력을 보이고, 과외 활동(합창단, 악대, 관현악단, 학생회, 졸업 앨범, 교지)에 참여함으로써 장래성을 보이는 학생들은 중·고등학교에서 정부 보조금이나 장학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보조금이나 장학금은 대학 등록금 청구서에서 실질적으로 할인되는 식으로 지급된다.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은 수업에 참석하고, 학점을 유지하고, 학교에서 잘

은 평판을 유지하는 것이다!

대학교육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학생의 자기 주도 정신이다. 학생들이 학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간제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여름 방학 기간의 노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 중의 100만 원은 다음 학기의 학비로 저금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은 등록금을 치르기 위해 번 돈의 대부분(십일조, 헌물, 세금을 제하고)에다 매주 적어도 15시간 일하도록 계획을 세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성인이 되어 자신들이 배운 직업 기술 및 일과 관련된 경험들이 훗날 사회생활에서 진정한 유익이 되었다고 전한다.

대학 학비를 부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 번째 요소는 부모의 도움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대학 교육의 혜택을 받게 해 줄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 자녀들이 대학 교육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은 희생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자녀들을 위한 최선의 대학 교육 계획은 아직 자녀들이 어릴 때 주택 담보 대출금을 완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하게 주택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면 자녀들이 빚 없이 대학을 마칠 수 있게 된다. 주목할 점은 대부분의 대학 졸업생들이 결국은 자신들이 전공한 대학 교육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직종에서 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학생들은 자신들의 관심 분야와 적성을 찾기 위하여 아직 고등학교에 있을 때에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검사를 받지 않으면 학생 본인이나 그 가족들은 현실 세계에서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어떤 전공을 위해 6천만~1억의 돈과 4년의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학자금 대출은 어떠한가?

교육을 받기 위해 빚을 지는 것이 옳은 일인가? 모든 노력을 다한 후 마지막에 가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 자격 요건이 되는 모든 보조금과 장학금을 신청하라. 이것은 값을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가 없다. 여름 방학 동안이나 학기 중에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라.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이러한 조치 후에 약간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모자란 만큼만 빌려야 한다! 기간이 되면 다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자금 대출은 가급적 속히 갚으라. 30년까지 연장해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 자격을 갖춘 일꾼들이 부족한 회사(예를 들면 간호사)의 고용주들은 당신이 졸업 후 특정 기간 동안 그들을 위해 일하기로 동의한다면 당신의 학비의 일부를 대납해 줄 것이다.

신용 카드의 딜레마

우리는 현금 없는 사회로 급속하게 이동하고 있다. 이미 재정 거래의 거의 4분의 3은 전자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많은 가정에서는 청구서를 온라인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구매는 신용 카드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금 서비스와 더불어 신용 카드의 오용, 물 쓰듯 돈을 쓰는 것, 대금 연체 그리고 신용 한도를 넘는 지출 등은 많은 경우 가계 부채의 가장 큰 원인이 되며 그 결과로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채무 이행 조정을 신청한 가정들은 거의 모두 상당액의 신용 카드 빚을 안고 있었다.

신용 카드는 오래 갖고 매달 갚을 한두 장만 갖고 있으라. 가급적 직불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라. 직불 카드는 계좌에 들어 있는 금액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현금 인출기로부터 빈번히 현금을 찾는 습관 또한 버려야 한다. 거래에 따라 수수

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처럼 인출된 자금은 기록이 어렵다.

만족에 관하여

자신만을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려 할 때에 꼭 극복해야 할 이기적인 성벽이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의 처음 두 항목은 돈과 소유에 대한 사람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디모데후서 3:1~2).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부유하게 되기를 갈망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디모데전서 6:6).

그렇다면 어느 정도면 충분한가? 의복과 음식, 전자 기기, 텔레비전, 운동 장비, 신발 등은 어느 정도면 충분한가? 물론 이것은 아주 개인적인 질문이다. 누구도 나 대신 답변을 해 줄 수 없지만 우리는 매일 구매 결정을 함으로써 그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필요한 것과 욕구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야 한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소득, 생활 양식, 우리의 투자 종목, 신분에 관계없이 우리가 한목소리로 “조금만 더”라고 반응하기를 원한다.

자기 부정과 같이 만족은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다. 만족은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빌립보서 4:11~13). 불만족의 밑바닥에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돌보심과 공급하심에 대한 비난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놓지 않으시려고 막으신다고 비난한다.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하심과 섭리가 우리 모두에게 평화와 만족을 가져다주어야 한다.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가?

우리가 사는 곳, 우리가 사는 주택의 종류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은 우리

에 대하여 많은 것을 말해 준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안락해야 하나 사치스럽지 않아야 한다. 집은 재정적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온 가족이 함께 배우는 곳이다. 집은 권면과 모본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그들의 십일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돌려 드리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다. 가정은 자녀들이 그들의 방을 청결하게 하고 질서 정연하게 유지할 책임을 가르치는 곳이며 가족들이 가사를 함께 돌보는 곳이다. 물건을 장만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 후에 깨끗하게 뒷정리하는 일에 가족 전체가 참여할 수 있다.

가정은 자녀들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소득과 지출을 기록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이다. 또한 비싼 물품의 구입을 위하여 저축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다. 가정은 자녀들이 오래가는 질 좋은 물건의 가치를 배우고 그것들의 가치를 보존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다. 가정은 자녀들이 절약과 검소의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곳이다.

자기 부정 상자

엘렌 화잇은 자기 부정 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면한다. “모든 가정에서는 자기 부정 상자가 있어서 이 상자 안으로 자녀들이 사탕이나 다른 불필요한 물건들을 사는 데 쓰려고 했던 돈을 넣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곤궁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해야 할 큰 사업이 있음을 배워야 한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가장 연소한 자로부터 가장 연장자에 이르기까지 자기 부정을 실천해야 한다”(리뷰 앤드 헤럴드, 1905년 6월 22일). 이 자기 부정 상자 계획은 가족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지원하며 예기치 않은 비용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 계획의 좋은 점은 전 가족이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부정에 함께 협력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 구성원 모두는 돈을 벌고, 하나님께 드리고, 저금하고, 소비하는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가정 경제의 일원이 될 수 있다. 남편과 아내는 각각 자신들의 뜻에 따라 사용할 일정액의 돈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을 가족 기업의 협력자로 보아야 한다.

자녀들은 용돈을 갖고 있어서 돈의 사용법을 (부모의 지도 아래)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첫째로, 그들은 모든 돈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그래서 돈은 현명하고 아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용돈을 개인적인 일을 위해 사용하기 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십일조와 헌금을 구별해 놓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이 일은 자녀들이 손가락으로 열까지 셀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곧 시작할 수 있다.

용돈에 대해 주의할 점은 “돈을 받고 하는 일”과 “돈을 받지 않고 하는 일”에 대한 규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방을 깨끗하게 하고 장난감을 치우는 것과 같은 가사일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해야 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팀을 이루어 일함(팀워크), 협력, 개인의 책임을 가르친다. 잔디를 깎는하거나 세차를 하는 것과 같은 다른 임무는 돈을 받는 기회로 제시될 수 있다. 자녀들은 책임, 일의 특성 그리고 보상의 개념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다. 가정과 가정에서의 의무는 이러한 유형의 가르침을 베풀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와 장소를 제공한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다니는 사업체 내에서 믿음을 실천할 것을 기대할 권리를 갖고 있다. 구성원 한 사람이라도 사업상 욕심, 기만, 부정직에 빠지게 되면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

심화 연구

- »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마가복음 10:6~9)

1 이 구절에서 가정의 돈 관리를 위한 어떤 원칙을 끌어낼 수 있는가?

참고 남편과 아내는 한 가정을 이루었으므로 한 지갑, 한 계좌를 갖고 예산을 함께 계획하고 관리해야 한다.

2 남편이나 아내 중 한 사람이 모든 재정적인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참고 대차 대조표와 장단기 목표를 함께 작성하고 결정하는 부부는 가정의 재정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함께 일하게 된다. 배우자가 돈 관리에 대하여 알든 잘 모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의논하고 한쪽 배우자가 어리석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 배우자를 주신 것이다.

3 각 배우자가 자신의 소득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나은가? 당신의 답변에 대해 설명하라.

참고 결혼했으나 급여, 저축, 지출 계정을 따로 유지하고 있는 부부들이 “남편의 돈”과 “아내의 돈”을 분리해 쓰는 경우가 있다. 남녀가 결혼하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사상이다. 그러므로 돈 관리는 한 계좌로 통합되어야 한다. “남편의 돈”과 “아내의 돈”은 “우리의 돈”이다. 남녀들은 결혼 전에 상대방이 갖고 있는 빚에 대하여 물어보아야 한다. 결혼하면 배우자의 채무를 “물려받기” 때 문이다.

4 이상적인 상황에서 어떤 배우자가 가정의 재정 관리자가 되어야 할까?

참고 둘 다 예산을 짤 때 함께 해야하겠지만, 그 일에 가장 재능이 많거나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관리자가 되는 것이 좋다. 가장 적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돈을 관리하는 가족들은 대개 결정은 함께하고, 일정 금액이 넘으면(예를 들면 10만원) 결코 배우자의 동의 없이 지출하지 않는다 등의 어떤 지침을 가지고 있다.

5 엘렌 화잇은 왜 결혼을 언약이라고 일컬었는가? “언약”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참고 “가족의 결연(結緣)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긴밀하며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책임을 올바르게 고려하여 지혜롭게 결혼 서약을 맺을 때 그것은 어느 곳에서든지 축복이 된다”(재림신도의 가정, 18).

»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언 22:6).

6 자녀들을 훈련시킬 때 돈 관리 기술을 포함시켜야 하는가? 잠언 2:6
과 7절을 비교하라.

참고 적절한 돈 관리와 시간, 재능, (몸)성전, 재물 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에 대한 청지기 직분은 노동 윤리, 청렴함, 의무에 대한 충실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들을 실천하는 가정에서 가장 잘 배울 수 있다.

7 가정의 위치는 자녀들에게 왜 그토록 중요한가?

참고 “룻이 소돔에 들어갔을 때 그는 오로지 자신을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고 가족들이 자신을 따르게 하리라고 전적으로 다짐하였다. 그러나 그는 크게 실패하였다. 주위의 부패시키는 감화는 그 자신의 믿음에 영향을 끼쳤으며 그의 자녀들이 소돔의 주민들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관심도 어느 정도 그들의 관심사와 결부되었다. …그들은 아름답고 비옥한 지방을 선택하며, 아니면 보다 더 크게 번창하리라는 기대로 번영하는 어떤 도시로 이주한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은 시험에 둘러싸이게 되어 흔히 경건을 계발하고 의로운 품성을 형성하기에 불리한 유대 관계를 형성한다. …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둘러쌀 도덕적 및 종교적 감화를 제일 먼저 고려하도록 요청하신다.”(부조와 선지자, 168~169).

8 부조와 선지자 168~169의 인용문을 읽어라. 룻이 왜 그의 가정을 소돔으로 이주시켰다고 생각하는가? 그는 가정의 목표를 성취했는가?

참고 “룻이 소돔에 들어갔을 때 그는 오로지 자신을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고 가족들이 자신을 따르게 하리라고 전적으로 다짐하였다. 그러나 그는 크게 실패하였다.

주위의 부패시키는 감화는 그 자신의 믿음에 영향을 끼쳤으며 그의 자녀들이 소돔의 주민들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관심도 어느 정도 그들의 관심사와 결부되었다. 그 결과는 우리 앞에 놓여 있다”(부조와 선지자, 168).

9 ▶ **롯은 소돔에 들어갈 때 부유했지만 나올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 어떤 요인들이 이러한 상황을 초래했는가?**

참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 집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들은 자신과 가족들을 둘러쌀 도덕적·사회적 감화보다도 그들이 얻을 현세적 이익을 더 바라본다. 그들은 아름답고 비옥한 지방을 선택하며, 아니면 보다 더 크게 번창하리라는 기대로 번영하는 어떤 도시로 이주한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은 시험에 둘러싸이게 되어, 흔히 경건을 계발하고 의로운 품성을 형성하기에 불리한 유대 관계를 형성한다”(부조와 선지자, 168).

10 ▶ **소돔에 선택한 롯의 경험에서 배우는 교훈은 무엇인가?**

“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둘러쌀 도덕적 및 종교적 감화를 제일 먼저 고려하도록 요청하신다. …자신들의 영원한 관심사를 희생하면서 자녀들을 위하여 세속적 부와 명예를 얻는 사람들은 결국 이것들이 엄청난 손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참된 지혜를 활용하였다면 그들의 자녀들이 세속적 번영은 많이 얻지 못하였을지라도 영원한 유업을 얻을 자격은 확보하여 놓을 수 있었을 것이다”(부조와 선지자, 168~169).

»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명기 6:1~7).

11 ▶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라는 명령을 받았는가?

참고 부모들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율법(삶의 원칙)을 가르쳐야 한다. “이 율법은...은 세계를 위한 신성한 위탁물로 간수되어야 했다. 십계명의 계율은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만민을 위한 교훈과 통치 원칙으로 주신 것이다.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이며 권위 있는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웃 사람에 대한, 사람의 의무를 총망라하고 있으며, 모든 조항이 다 근본적인 사랑의 대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부조와 선지자, 305).

12 ▶ 매일 네 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였다. 그 네 번은 언제인가?

참고 집에 있을 때(일상 가정생활에서), 길을 갈 때(가정 밖에서), 누워 있을 때(잠이 들기 전에), 일어날 때(아침에)

13 ▶ 자녀들은 돈 관리에 대하여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참고 자녀들에게 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로 하여금 직접 돈을 쓰게 하는 것이다. 이 일은 자녀들이 아주 어려울 때에 그들이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아직 되기 전에 용돈을 줌으로써 실행할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은 자신의 수입조와 헌물, 저금 그리고 쓸 돈을 계산할 수 있다.

14 ▶ 부모가 자녀들에게 돈을 다루는 방법을 처음 가르쳐야 하는 시기는 그들이 몇 살 때이어야 하는가?

참고 “자녀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자신의 금전 출납부를 기록할 수 있도록 숫자를 읽고 쓰고 이해하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이 지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향상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새자녀지도법, 136). 많은 아이는 5~6세에 셈하고, 읽고 쓰기를 배운다! 아이들이 열 살이 되면 은행계좌를 개설해 주어 부모의 감독하에 돈 관리 경험을 얻도록 할 수 있다.

15 ▶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라.

참고 “모든 청소년으로 하여금 단지 상상적인 문제만을 해결하게 하지 말고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기입하도록 가르쳐라. 그들로 하여금 돈을 쓰게 함으로써 돈의 바른 사용법을 배우게 하라.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나 혹은 손수 번 것을 가지고 소년 소녀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복, 책 그리고 다른 필수품을 선택하여 구입하게 하라. 스스로 지출을 기록하게 하면 다른 방법으로는 배울 수 없는 돈의 가치와 그 사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새자녀지도법, 136).

» “자녀들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또 아버지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에베소서 6:1~4).

16 ▶ 우리 사회에서 “순종하는 자녀들”의 중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참고 유년기는 훗날 사회에서 유용한 성인이 되기 위해 기본적인 삶의 원칙들을 배우는 시기이므로 경험이 많은 부모들에게 가장 안정되게 그러한 원칙들을 배울 수 있다.

17 ▶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참고 “현재 부모의 권위가 그토록 쇠퇴한 것은 때때로 부모가…자녀에게 부당하고, 짜증 나고, 모질기까지 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녀가 분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일부 부모가 변덕스럽고 일관성 없는 요구를 하기 때문이다. 폭력을 통해 외적인 순종을 얻어낼지 모르지만, 그것은 공경과 존경을 희생하여 얻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SDA 성경주석, 엡 6:4).

18 ▶ 4절에서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권면을 받고 있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참고 “자녀를 주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려면 부모가 주는 “교양과 훈계”는 주님에게서 얻어야 하며 그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SDA 성경주석, 엡 6:4).

“부모들이여, 하나님이 그대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대들의 가정을 하늘에 있는 가정의 표본이 되게 하는 것이다. 자녀들을 잘 보호하라. 그들에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하라.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은 사랑의 황금 사슬로 연결되어야 한다. 잘 정돈되고 잘 훈련된 한 가정은 세상에 있는 모든 설교보다 기독교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에 더욱 큰 힘이 있다. 자녀들이 부모들을 어떻게 모방하는가를 실제로 깨달으면 부모들은 모든 말과 행동을 삼갈 것이다”(원고, 31, 1901).

- » “사랑하는 자들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베드로전서 2:11~12).

19 신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런 태도가 신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라.

참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삶을 나그네로서 보내는 기간으로 이해해야 한다. 나그네(혹은 여행자)는 여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짐만을 가지고 다니며 세상 물질에 대하여 욕심을 내지 않는다. 결국 다 두고 갈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본향에 있으므로 이 세상에서 그는 최소한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한다(디모데전서 6:6~7).

20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죄 된 욕망이 무엇인지 말하고 그것들이 개인의 영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라.

참고 “자기 자신만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추구하는 오락에는 위험이 있다. 체력을 약화시키고, 정신을 흐리게 하며, 영적 식별력을 마비시키는 모든 방종의 습관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다”(실물교훈, 53).

21 12절에 따르면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선한 행실”의 실례는 무엇인가?

참고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신자는 자신의 도덕적 청렴뿐 아니라 동료 인간의 복지에도 실제적인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SDA 성경주석, 뵤전 2:12).

» 이 과의 “대학 비용을 위한 도움”을 참조하라.

22 재정의 성공과 관련하여 교육은 얼마나 중요한가?

참고 조사에 의하면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잠재적 수익 능력은 증가한다. 전문 학위를 가진 사람의 소득은 대졸자보다 거의 두 배, 대학 중퇴자 및 고졸자의 거의 세 배,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의 네 배 정도 높다. 이생은 영원에 비추어 일시적이며 돈이 전부가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되겠으나 만일 교육을 위해 기꺼이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면 우리 가정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더 잘 공급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사업에 기여하는 입장에 설 수 있다.

23 대학 교육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하여 해야 할 네 가지 일은 무엇

인가?

참고 첫째, 정부 보조금이나 장학금을 활용한다. 둘째, 자기 주도의 정신을 갖고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시간제로 일하여 보충한다. 셋째, 부모의 도움을 일부 받는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모자라면 남은 금액을 학자금 대출을 통해 충당한다.

24 ▶ 선택할 직종이 거의 없는 전공이나 활용하지 못할 전공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들이 젊은이들에게 장려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참고 학생들이 자신들의 관심 분야와 적성을 찾기 위하여 아직 고등학교에 다닐 때에 적성 검사를 받게 한다. 적성 검사는 그들이 이러한 직업에 적합하지, 그들이 학교를 마쳤을 때 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해 준다.

25 ▶ 학자금 대출을 고려해야 하는 때는 언제이며, 학생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금액만을 빌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참고 장학금, 정부보조금, 자기주도의 시간제 일을 통해 번 돈,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도 모자란 때, 대출은 자기의 돈이 아니며 갚아야 할 빚이다. 빚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한다.

»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디모데전서 6:6~10).

26 ▶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자신의 향상을 위하여 힘써야 하지 않는가?

참고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물질인가, 더 넓은 범위의 봉사를 위한 자신의 향상인가가 그 기준이 될 것이다.

27 ▶ 부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부딪히게 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이 구절에서 당신이 본 대로 말해 보라.

참고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욕심에 빠지게 되어 결국 파멸과 멸망에 이른다.

28 ▶ 이 구절에 기초하여 볼 때 어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참고 이것은 아주 개인적인 질문이다. 다른 어떤 사람도 나 대신 답변을 해 줄 수 없지만 매일 구매 결정을 함으로써 그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야 한다.

»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잠언 30:8~9).

29 이 구절의 화자(話者)는 왜 하나님께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는가?

참고 분에 넘치는 부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고, 생활의 곤핍 역시 그 문제에 매달려 하나님을 묵상할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게 할 수 있다.

30 당신이 영원한 상급에 초점을 맞추며 살 수 있을 만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라.

»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마태복음 5:13~16).

31 이 성경 구절에서 “소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의 견해를 말해 보라.

참고 “천국 시민들을 소금에 비유한 사상의 근거에 있는 것은 방부제로서의 소금의 특성이다(참조 산상보훈, 35). 냉동 장치나 기타 음식을 보존하는 현대적 방법이 나타나기 전에 소금과 향료는 주로 어떤 것을 보존하는 데 사용했다.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소금은 거의 이 목적을 위해서나 음식의 맛을 내는 조미료로만 사용되었다(참조 욕 6:6). 이와 유사하게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파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대리자가 됨으로써 세상에서 부패를 방지하고 정화하는 영향력을 발휘한다. 제자들은 동료들의 구원을 그들의 제일 의무로 인식하였다. 그들은 박해나 기타 이유 때문에 사회로부터 물러설 수 없었으며, 그들의 동료들과 밀접한 접촉을 계속 유지해야 했다”(SDA 성경주석, 마태복음 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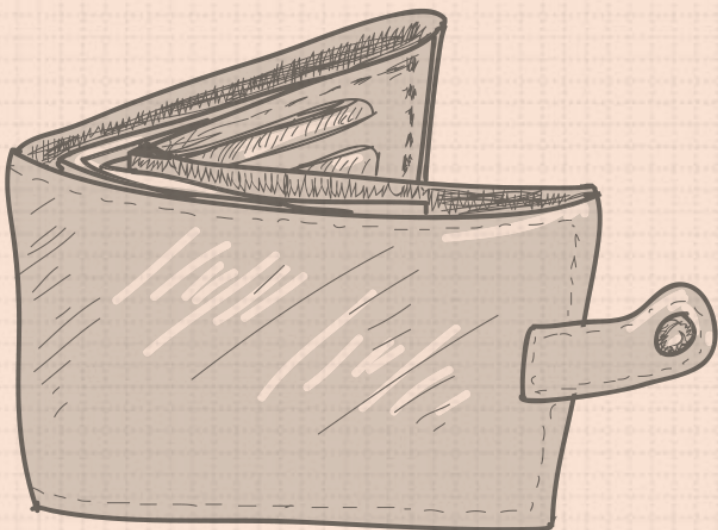
32 가정은 돈 관리와 관련하여 불신자에게 어떻게 효과적인 증인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이 가정에서 비춰 나오는 빛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가?

참고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다니는 사업체 내에서 믿음을 실천할 것을 기대할 권리를 갖고 있다. 구성원 한 사람이라도 사업상 욕심, 기만, 부정직에 빠지게 되면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

주요 물품 잘 구매하기

- 주택, 자가용

오늘 어떤 구매 결정을 내리게 되면 현재의 지출과 미래를 위한 저축 사이에 이율배반이 따른다. 어떤 사람들은 휴양을 위하여 쇼핑하고, 다른 사람들은 필요할 경우에만 한다. 두 그룹 모두 자신들이 가진 돈에 비해 최대의 것을 얻기 위해 나름의 기법들을 이용한다. 현명한 구매 결정은 현재의 개인적 만족과 장기적 재정 안정에 이바지한다.



주요 물품 잘 구매하기

- 주택, 자가용

누가복음 14:28, “너희 중의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과지출은 개인을 신용카드의 오·남용과 재정적 곤경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만일 훌륭한 구매 전략을 담고 있는 재정 계획을 갖고 있으면 주어진 소득 안에서 미래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다. 중요한 구매에서는 동일 거래에서 더 좋은 품질과 가격을 항상 따져 보아야 한다. 충동구매에서는 이런 점을 놓치게 된다.

자동차 구입

자동차 소유와 운영은 예산상 중요한 지출 항목이다. 많은 가정에서는 자동차 관련 지출(보험, 면허증 수수료, 자동차세, 연료비, 수리비, 유지비 등을 포함하면)이 부식비를 능가하기도 한다. 50년이라는 기간으로 보면 자동차 관련 비용에 2억 원 이상의 지출이 예상되는데 이 액수는 보통 사람이 교육비로 지출하는 금액의 7배가 넘는 금액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구매가 최선이다.

새 차냐, 중고차냐?

어떤 상황에서는 중고차보다는 새 차를 사는 편이 더 낫다. 예를 들어, 7천만 원

이 넘는 어떤 모델의 새 차가 불과 1년이 지나면 중고차가 되어 절반 가격에 팔린다고 하면 이것은 새 차 냄새와 자부심만을 위해 구매한 실례이다.

그러나 기술과 협상을 통해 동일한 대리점에서 이런저런 사양을 갖춘 2년된 중고차보다 더 싼 가격에 새 차를 구입할 수 있다. 타이밍(시기)과 협상은 새 차를 구입할 때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당장 새 차를 팔려는 경쟁 때문에 판매상들이 가격을 아주 낮추어서 (상대적으로 말해서) 새 차 판매에 거의 이윤을 붙이지 않는다. 그들은 유지와 수리를 위해 새 차 고객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새 차를 팔면서) 매입한 중고차를 다시 판매하면서 얻은 이윤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판매상들은 제조사로부터 주문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달, 매해 일정량의 차를 팔아야만 하기 때문에 월말이나, 특히 연말에는 할인 판매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할인 기간을 이용하도록 구매 시기를 정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새 차를 구입하면 신차의 제조사로부터 전적으로 품질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거기가 모든 중고차의 소유자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시장에 내놓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물론 자동차의 품질과 전혀 관계없는 이유일 수도 있지만(예를 들면 원 소유자의 사망이나 해외 이주) 상당수의 중고차는 그 소유주가 그 차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즉 사고가 났다거나 아니면 연비가 뚝 떨어졌다는 등등의 이유로 팔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고차를 사려고 하면 그 차를 팔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좋다.

차를 자주 교환하는 사람은 최신 모델의 중고차를 사는 게 최고의 방책이다. 가치 하락이 큰 차는 피하는 것이 좋다. 차가 오래되었다면(10~12년 이상) 가장 좋은 가격에 새 차를 구입할 수 있는 시기를 잡으라.

중고차 구입

중고차를 살 때도 지출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새 차 판매상들 역시 중고차를 판매하는데 그들이 파는 중고차는 대개 새 차를 팔면서 받은 것들이다. 새 차 판매상이 보유하고 있는 중고차들은 일반적인 중고차 매매상들의 것보다 더 좋은 차라고 볼 수 있다. 그들에게는 서비스 담당 분야가 있고 일반적으로 주행 거리가 많지 않은 차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고차 매매상들은 다른 판매자들이나 자동차 경매에 나온 차량들을 획득하는데 대부분 더 오래되고 주행 거리가 더 많이 나가는 차들을 판매한다. 일부 중고차 매매상들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인수한다. 그런 것들은 아무런 보증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를 구매한 경우에는 악몽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 신문에 광고된 일부 차량은 실소유주가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다른 판매자로부터 차를 막 구입해서 되팔아 차익을 얻으려는 경우이다. 어떤 판매자들은 ‘친구’ 대신 차를 팔아 주려고 내놓은 것인데 차의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항상 소유주의 매뉴얼과 차의 유지 및 수리 기록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기본이다.

대부분의 중고차들은 (심지어 신차 대리점에서) 수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팔리며, 판매자는 수리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다. 판매자가 구두로 약속한 것은 아무런 효력도 책임도 없다. 만일 보증해 준다고 말했다면 그것을 문서로 받아 두라! 중고차의 외관은 속임수일 가능성이 있다. 깨끗하고 광이 나는 외장은 주요 부분의 기계적 결함을 은폐하기 위한 방편일 수 있다. 알고 지내는 믿을 만한 기술자를 데리고 가서 검사해 보고 차의 현재 상태를 살피고 필요 시 수리에 대한 견적을 받아 두라.

차량 구입 대금은 '차량' 적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지불되어야 하며, 그러한 현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은행에서 얻은 대출금으로 보충될 수 있다. 판매자가 제공하는 용자를 이용하기보다는 본인이 은행에서 직접 용자하면 더 나은 조건에 구입할 수 있다.

신차 구입

신차 구입은 결코 충동이나 기분에 따라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필요할 때, 또 재정적으로 준비되었을 때에 구매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구매 '시기'를 잘 정하는 것이 최선이며, 대리점이 최선의 조건을 제시할 때가 좋다. 인터넷을 통해서 원하는 차의 유형에 대한 정보를 모으게 되면 관리비가 적게 들고, 평판이 괜찮고 연비가 좋은 모델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단 구입하고 싶은 차의 모델을 결정하였으면 인터넷상에서 그 모델의 사양을 점검하고 지불할 수 있는 가격 범위를 대략 추산할 수 있다. 신차 정보의 중요한 소스는 표시 가격(정가)이다. 이것은 인쇄된 형태로(대개 차량의 옆 창에 붙어 있다.) 소매 가격이 제시되어 있다. 이 정보 표시(라벨)는 기준 가격을 나타낸다. 판매상의 실제 가격 혹은 청구서의 송장 가격은 표시 가격보다 낮다. 표시 가격과 판매자 가격의 차이는 협상할 수 있는 범위이다.

참고로, 판매상이 제시하는 차의 진짜 가격을 추정할 때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차 가격이 정해지기 전에는 맞교환할 차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 신차 가격이 정해지면 쓰던 차를 얼마에 구입해 줄 수 있는지 판매상에게 물어보라. 괜찮은 가격을 제시하면 낮은 차를 팔라.

차량 구입비 마련

차를 구입할 돈을 마련하는 최선의 길은 저금해 둔 자금(‘차량’ 적금 계좌)으로 차를 구입하는 것이다. 현재 지출 계획상 현금이 부족하다면 부족분은 빌려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낮은 이율’을 취하고 할인(리베이트)을 받지 않는 것보다는 자동차 판매상이 제공하는 할인(리베이트)을 다 받고 용자는 직접 은행에서 받는 게 더 유리하다. 이상적인 상황하에서 자동차 대출금을 다 갚았다면 그 때는 할부금과 동일한 금액을 차량 적금 계좌에 매월 입금시켜서 다음번 차량 교체 시에는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신차든 중고차든 자동차 사용설명서에 따라 차를 정비하고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그렇게 되면 그 차를 더 잘, 더 오래 쓸 수 있으며 차를 교환하거나 팔려고 할 때 가치가 올라간다. 만일 자동차를 30만 킬로미터 주행에 15년간 유지했다면 그 자동차를 처음 살 때 든 비용만큼 절약할 수 있다.

참고로, 자동차 임대는 비용이 업무 경비로 처리되는 차량의 사업 용도일 때에만 의미가 있다.

주택 구입

자동차와 달리 주택은 사람의 기본적인 필요로서 일반적으로 예산상 가장 큰 지출 항목이다. 이 분야에서는 한 번의 결정으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큰 이익을 볼 수도 있다. 주택 구입에는 목돈이 들고 대도시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여 웬만한 가정들은 사실상 집을 구입할 여유가 없다.

임대냐 구매냐

임대에는 세 가지 주요 장점이 있다. 첫째는 이동성이다. 타 지역으로 이사할 필요가 있을 때 집을 파는 번잡함과 소동을 겪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만일 어느 한 지역에 짧은 기간(1~2년) 살 것이라면 임대가 좋을 것이다. 임대의 두 번째 장점은 책임질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집의 소유주가 관리, 재산세, 재해보험 등을 책임진다. 마지막으로 임대의 경우 집(혹은 아파트)에 들어갈 때의 초기 비용이 적다는 것이다. 임차인은 단순히 한 달 임대료에 보증금만 선납하면 된다. 이러한 사항들을 생각할 때 임대는 한시적으로 살면서 소유권에 뒤따르는 책임을 원치 않고 살 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선의 선택이다.

그러나 임대의 단점은 장기 주거를 원할 경우 최선의 선택 사항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임차인은 집 소유주가 누리는 재정적 이점을 누리지 못한다. 세입자는 담보 이자나 재산세나 집에 대하여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한다. 또한 임대료가 상승할 때 고스란히 그것을 부담할 수밖에 없고 애완동물을 기른다든지, 집을 자기 취향에 맞게 꾸민다든지, 소음 등에 관하여 제약을 받는다.

새 주택을 구입하려고 할 때 첫 시도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춘 집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주택 시장에 들어가서 살 여유가 되는 집을 구매하기를 제안한다. 주택 시장에 들어가면 두 번째, 세 번째 집은 내가 원하는 기능을 더 많이 갖추고 있는 주택을 찾아낼 수 있다. 주택 구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서적이거나 도서관이나 온라인상에서 얻을 수 있다.

주택 담보 대출금 갚기

대부분의 잠재적 주택 구입자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매우 부풀려진 주택 가격

때문에 (대출 자격을 얻기 위해) 전통적인 15~30년 상환의 주택 담보 대출을 얻는 길 외에는 다른 대안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원리금을 조기 상환 함으로써 담보 대출금의 상환을 앞당기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주택 마련 대출금의 조기 상환

대출 원리금을 선납하게 되면 할부상환표에 나타난 것보다 몇 년 더 일찍 주택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 선납한다고 해서 꼭 위약금을 무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인의 구두 약속으로 끝나지 말고 계약서에 그 점을 기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2억 5천만 원 상당의 집의 80퍼센트인 2억 원의 담보 대출을 이용했다고 하자. 아래의 할부상환표를 보고 담보대출금을 선납하는 방법을 보자. 이 표는 30년 대출의 첫 두 해만을 보여 준다. 상수(常數)는 두 번째 칸의 월 할부금 1,398,430원이다.

할부상환표

대출 원금 : 2억 원 / 이율 : 7.50% / 상환 기한 : 30년 / 월 할부금 : 1,398,430 원

첫 째 해	상환 번호	상환액	이자	원금	원금 잔고
	1	1,398,430	1,250,000	148,430	199,851,570
	2	1,398,430	1,249,070	149,360	199,702,210
	3	1,398,430	1,248,140	150,290	199,551,920
	4	1,398,430	1,247,200	151,230	199,400,690
	5	1,398,430	1,246,250	152,180	199,248,510
	6	1,398,430	1,245,300	153,130	199,095,380
	7	1,398,430	1,244,350	154,080	198,941,300
	8	1,398,430	1,243,380	155,050	198,786,250
	9	1,398,430	1,242,410	156,020	198,630,230
	10	1,398,430	1,241,440	156,990	198,473,240
	11	1,398,430	1,240,460	157,970	198,315,270
	12	1,398,430	1,239,470	158,960	198,156,310
	합계	16,781,160	14,937,480	1,843,670	

둘 째 해	상환 번호	상환액	이자	원금	원금 잔고
	13	1,398,430	1,238,480	159,950	197,996,360
	14	1,398,430	1,237,480	160,950	197,835,410
	15	1,398,430	1,236,470	161,960	197,673,450
	16	1,398,430	1,235,460	162,970	197,510,480
	17	1,398,430	1,234,440	163,990	197,346,490
	18	1,398,430	1,233,420	165,010	197,181,480
	19	1,398,430	1,232,380	166,050	197,015,430
	20	1,398,430	1,231,350	167,080	196,848,350
	21	1,398,430	1,230,300	168,130	196,680,220
	22	1,398,430	1,229,250	169,180	196,511,040
	23	1,398,430	1,228,190	170,240	196,340,800
	24	1,398,430	1,227,130	171,300	196,169,500
합계	16,781,160	14,794,350	1,986,800		

이 상환표는 오직 원금과 이자의 기본 상환만을 포함하고 있다. 2억 원을 빌린 후 한 달이 되면 첫 이자 상환액(1,398,430원)의 만기가 된다. 이 상환액 중에서 1,250,000원은 대출 기관에 이자로 가며, 오직 148,430 원이 '원금'으로서 대출 원금을 갚는 것이다. 첫째 해의 합계 줄을 보라. 매월 1,398,340원을 1년 동안 지불하고 나면 당신은 대출 상환을 위해 16,781,160원을 지출했다. 이 금액 중에서 14,937,000원은 이자며, 대출금은 1,843,670원이 줄었을 뿐이다! 당신은 여전히 198,156,310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원금을 선납함으로써 결코 내지 않아도 되는 수백만 원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가령, 어느 날 30만 원이 생겼다고 하자. 만일 이 돈을 갖고 담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쓰면 극적인 결과가 발생한다. 상환액 번호 2번과 3번이 있는 원금 칸을 보라. 그곳의 금액은 149,350원과 150,200원이다. 둘을 더하면 299,650원이 된다. 이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30만 원을 가지고 상환액 2번과 3번을 갚을 수 있다.

그러면 대출 기간을 두 달 줄인 것이고, 다음 상환은 4번이 된다. 여기서 당신은 상환번호 2, 3번에 대한 이자를 절약한 것이다(이 돈은 더 이상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즉 299,650원을 지불함으로써 2번과 3번을 합한 이자 2,497,210 원을 절약한 것이다. 이것은 833퍼센트의 투자 수익인 것이다!

다음 예를 들어 보자. 12월이 되어 열두 번째 상환을 준비하는 동안 은퇴 연금으로 2백만 원을 예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고 가정해 보자(은퇴 연금 이자는 현재 8퍼센트로 가정한다.). 그런데 이 2백만 원을 주택 담보 대출 상환에 쓰기로 마음을 바꾸고 다음 해의 상환액(13~24번) 합계 원금 1,986,800원을 납부한다. 이렇게 하면 14,794,350원이라는 그 해 이자 전부를 절약한 셈이 된다! 다음 달 상

환은 25번이다! 745퍼센트의 투자 수익을 얻은 것이다! 이것은 보장된 수익금이며 그런 점에서 최고의 투자임이 증명되었다!

만일 여분의 돈을 갖고 주택 대출금 상환에 쓰면 그것은 순 자산을 늘리고 채무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그만큼 앞당기게 된다. 과연 어떤 투자에서 아무런 위험도 없이 700%~800% 수익을 얻을 수 있겠는가?

15년 만기 상환 담보 대출

15년 담보대출은 30년의 절반 기간에 상환되고 그래서 구매자가 상당한 금액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거기다가 대부분의 15년 담보 대출의 이율은 0.5퍼센트 낮게 제공된다. 다음 표를 보고 2억 원에 대한 30년과 15년 만기 상환 담보 대출의 차이를 비교해 보라.

	30년	15년
월 납입금	1,398,430 원	1,797,660 원
지불된 이자 합계	303,434,450 원	123,578,800 원

만일 당신이 주택자금 불입액과 관련하여 매월 40만 원 정도를 더 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당신은 30년의 절반인 15년 만에 대출을 완전 상환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면 결코 지불할 필요가 없는 이자 179,855,650원을 절약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변동 금리를 적용하는 담보 대출이나 이자만 내는 담보 대출은 추천하지 않는다.)

저소득층 대상 주택 담보 대출 - 차용인은 조심하라!

한 세대 이전에는 담보대출을 냈으면 추가 대출을 내는 일이 불가능했다. 그러한 유혹에 굴복하는 일은 쉽게 말해 존재조차 할 수 없었다. 담보 대출 대금업자(은행)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달라졌다. 은행이 관리할 수 없는 담보 대출을 내주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주택 구입을 위해 담보 대출을 받으려는 가정들은 부도덕한 담보 대출 중개업자를 경계해야 한다. 순진한 많은 가정들은 차용인을 위한 것처럼 행동하는 다른 중개인들에 의해 너무 비싸게 매겨진 담보대출에 끌려다닌다. 그들은 고객의 이익을 최고로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지만 사실은 서브프라임 대금업자들(은행)로부터 엄청난 수수료를 착복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 혼란했던 시기에 은행들이 주택을 구입할 여유가 없는 가정들에게, 결국에는 주택을 압류해서 차지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담보 대출을 내준 것이 적발되었다. 이러한 행태는 아주 흔한 것이어서 그 업계에서는 '가로채기 대출'이라는 나름의 이름으로 불린다. 이 대금업자들은 압류가 매월 담보 대출 상환금을 받는 것보다 더 수익이 좋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압류한 그 부동산은 대출 내준 액수 이상 놀라운 값으로 되팔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금업자(은행)는 수년 동안 높은 상환금을 왕창 긁어 모으면서 가정이 못 갚고 연체하기를 기다렸다가 그 부동산을 차지하려 들어갔던 것이다. 대금업자는 만일 그 가정이 대출금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면 높은 수익을 낸 것이고, 만일 상환하지 못하면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냈던 것이다. 부도덕한 대금업자의 희생 제물이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은 합리적인 이율을 제공할 때에만 돈을 빌리는 것이다.

심화 연구

1 ▶ 당신이 과거에 했던, 되돌아보면 사실상 좋지 않은 구매 결정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 보라. 왜 그것이 좋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가? 만일 다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면 달리 어떻게 하겠는가?

2 ▶ 당신이 과거에 했던 좋은 구매 경험을 회상하라. 어떤 요소가 그런 좋은 결정을 내리도록 해 주었다고 생각하는가?

3 ▶ 이 과에서 교통수단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다음에 자동차를 구매할 때 도움이 될 어떤 교훈을 배웠는가?

참고 자동차의 비용을 생각해 볼 때 현명하게 구입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중고차 보다는 새 차가 낫지만, 1년 정도된 중고차는 가격 대비 성능을 따질 때 더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할인 행사를 잘 이용하면 새 차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현금으로 사게 되면 더 좋은 조건에 살 수 있으므로 '차량구입 계좌'를 만들어 저축할 필요가 있다. 중고차는 외관에 속을 수 있다. 중고차는 문제점이 있어서 내놓은 것이 대부분이다. 등등.

4 ▶ 당신은 어떤 교통수단이 필요한가? (가정의 규모, 예인 트레일러, 끌어당기는 것, 통근, 전륜(全輪) 구동 자동차 등)

5 ▶ 당신은 한 대 이상의 자동차가 필요한가? (예, 아니오)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

6 ▶ 어떤 유형의 자동차가 교통수단의 필요를 만족시키는가? 몇 가지를 말해 보라.

다음 연습문제를 다음번 구매 시 도움이 되도록 연습 삼아 채워 보라. 이 양식을 복사해서 당신이 사려고 하는 각 자동차 별로 기입하고 그것들을 서로 비교한 후 최선의 결정을 하면 유익할 것이다.

자동차 구매 연습

차량명 (현대 제네시스, 기아 카니발 등)	
제조사가 제시한 소매가	
판매자의 송장 가격	
현재 가용한 우대 혜택 (리베이트/환불, 할인, 용자 등)	

3년 동안의 가치 하락 추정치	
이 모델의 수리 내력	
컨슈머 리포트의 평가 등급	
연료 경제성 평가	
이 모델의 보험 비용	
당신이 사는 지역에서의 서비스 접근성	

일단 원하는 차를 결정하면 당신은 (만일 대도시 지역에 산다면) 여러 판매상으로부터 가격 정보를 받아 비교할 준비가 된 것이다.

» 주택(구입과 임대)에 관한 자료를 참조하여 다음 질문에 대답하라.

7 주택 임대의 이점은 무엇인가?

참고 임대에는 세 가지 주요 장점이 있다. 첫째는 이동성이다. 당신이 타 지역으로 이사할 필요가 있을 때 집을 파는 번잡함과 소동을 겪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만일 어느 한 지역에 짧은 기간(1~2년) 살 것이라면 임대는 좋은 선택 사항이 된다. 임대의 두 번째 장점은 책임질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집의 소유주가 관리, 재산세, 화재보험 등을 책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대할 경우 그 집(혹은 아파트)에 들어갈 때의 초기 비용이 적다. 대개 계약금과 구입에 따르는 권리 이전 비용 대신에 임차인은 단순히 한 달 임대료에 보증금(일반적으로 한 달 임대료에 상응하는 금액)만 선납하면 된다.

8 주택 임대의 단점은 무엇인가?

참고 임대의 단점은 장기 주거를 원할 경우 최선의 선택 사항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임차인은 집 소유주가 누리는 재정적 이점을 누리지 못한다. 세입자는 담보 이자나 재산세나 집에 대하여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한다. 만일 직장 생활을 하는 내내 임대 주택에 살면서 은퇴 시의 주택 구입을 위하여 저축하고 있지 않다면 이 기간 동안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임대료를 계속 내야 한다. 임차인은 또한 임대료가 상승할 때 고스란히 그것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세입자는 애완동물을 기르든지, 집을 자기 취향에 맞게 꾸민다든지, 소음 등에 관하여 제약을 받는다.

9 집을 소유할 때의 이점은 무엇인가?

참고 집을 소유하는 것은 장기 주거를 원할 경우 최선의 선택이 된다. 소유주는 재정적 이점을 누린다. 즉 담보 이자나 재산세나 집에 대하여 세금 공제를 받는다. 주택 소유주는 임대료 상승을 염려할 필요가 없고,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고, 집을 자기 취향에 맞게 꾸밀 수 있다.

10 집을 소유할 때의 단점은 무엇인가?

참고 집을 소유할 때의 단점은 첫째는 타 지역으로 이사할 필요가 생길 때 집을 처분해야 하는 번잡함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집의 관리, 재산세, 재해보험 등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등등.

» 주택 마련 담보 대출금의 조기 상환 부분을 복습하고 다음 질문에 답하라.

주의. 이 주제는 장기 부채를 장려하기 위하여 기획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부채 상환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11 ▶ **선납(혹은 조기 상환)에 따른 위약금은 무엇인가?**

참고 모기지 대출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초의 상환 계획보다 빨리 지불하는 경우 용자 기관이 대출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선납위약금이라고 한다.

12 ▶ **담보 대출금을 완불하는 것과 계속하여 갚으면서 담보 대출 이자를 줄여 나가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 답변에 대하여 설명하라.**

참고 담보 대출금을 완불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실제로 매월 갚는 담보 대출금 원금 상환액보다 매월 갚아야 하는 이자가 훨씬(6배가량) 높다. 이는 매월 갚는 이자는 전체 원리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균등 분할하여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억원의 대출금에 대하여 30년 동안 내야 하는 이자는 3억 원가량(연 7.5% 이율)으로 차입인은 실제 5억 원을 갚는 것이다. 대출금을 빨리 갚을수록 그만큼 이자도 작아진다.

13 ▶ **만일 당신이 현재 주택 마련 담보 대출을 이미 받았다면 상환 계획표를 찾아내어 (만일 발견할 수 없다면 당신의 대출해 준 회사에 사본 한 부를 요청하라.) 현재의 원금, 이자 그리고 잔고를 살펴보라. 이 과에 있는 담보대출금 선납 자료를 읽고 상환 계획표를 검토하라. 완전 상환 날짜를 앞당기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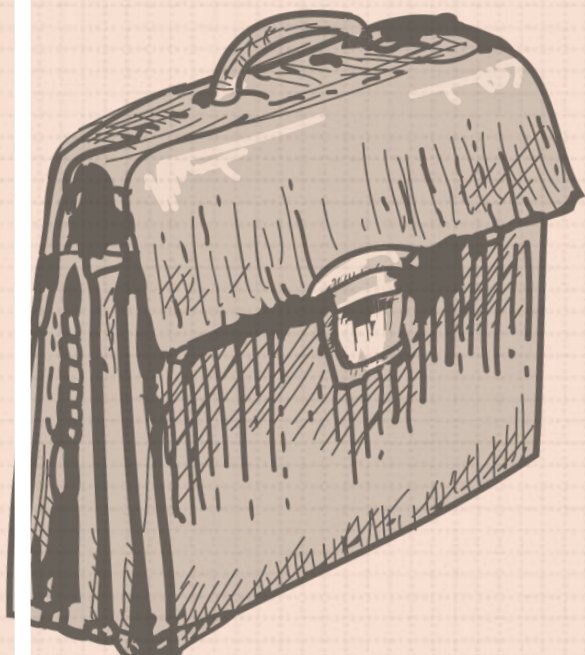
참고 예기치 않은 수입이 생겼을 때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담보 대출금을 갚는 것이 수익 면에서 확실한 보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상환 날짜도 앞당기게 될 것이다.

14 왜 이 땅에 대 저택을 짓는 것이 좋지 않은 생각인가?(베드로후서 3:10 참조)

참고 우리의 집은 하늘에 건설되고 있다. 우리는 미래의 언젠가 모든 것을 뒤에 남겨 두어야 하고 세상의 모든 것은 불탈 것이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정직과 청렴 & 일

성공적인 가정 경제 전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차 대조표도 아니요 예산서나 은퇴 계획도 아니며 재산 분배 계획도 아니다. 그것은 일하는 습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당신의 품성이다. 즉 일에 대한 소명감, 근면과 정직 및 청렴함이 인생에서의 성공과 다가올 내생의 준비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정직과 청렴 & 일

골로새서 3:23~24,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생의 관리에 관한 성경의 원칙들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실천하고자 할 때 우리의 삶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 모두가 (세상의 표준에 따라) 부유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그분의 법과 우리를 위하여 제시된 계획을 따른다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모세는 순종할 때 주어질 복(참조 신명기 28:1~14)과 불순종할 때의 저주(참조 신명기 28:15~68)를 요약하여 들려준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삶과 영적 삶을 정신적으로 분리하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하거나 놀거나 독서를

하거나 예배하거나 어떤 활동에 참여하거나 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삶은 일련의 단절된 사건들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건들의 총합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이다. 일하든지, 놀든지, 쉬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 증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사업과 증언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것이다. “하늘 집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음이 확실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특별한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도 확실하다”(실물교훈, 326~327).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단지 생계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터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 이상

수입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돈을 버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대 사명이 있다(마가복음 16:15). 엘렌 화잇은 이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다 말 그대로 목사나 선교사가 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은 그 동료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위대하거나 평범하거나, 유식하거나 무식하거나, 노소를 물론하고, 이 명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교육, 264)라고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그분과 친숙하게 되라. 하나님의 지도를 간구하라. 그

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에 따라 인도하시도록 기다리라. 단순한 공식이 여기에 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밀하게 따라야 한다. 가장 가까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섭리의 지시를 기다리는 것 등, 이렇게 하는 것이 직업 선택에 있어서 안전을 보장하는 원칙이다”(교육, 267).

“사람마다 해야 할 ‘각각(의) 사무’(마가복음 13:34)를 받았는데, 이 사무는 당사자들의 능력에 맞는 일이며, 자기 자신과 동료 사람들에게는 최대의 선을,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상동, 137~138).

이러한 공식들에 따르면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직업을 바꿈으로써 하나님의 계획과 더 조화되게 일할 수 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마태가 그러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받은 교육과 직업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사도행전 9:6, 흠정역)라고 부르짖었다. 그는 직업을 바꾸고 새로운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교회의 일꾼

우리 모두가 목사나 전임 전도자가 될 수는 없다. 교회는 하나님의 방안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셨고 교회에 선물을 주셨다(에베소서 4:8, 11 참조). 그것은 통일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 세계에 가져간다. 일찍이 한 개인, 단일 가족이 홀로 그 사명을 성취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해야만 한다.

“너무도 자주 경시되는 또 한 가지 의무, 즉 그리스도의 요구를 깨달은 젊은이

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한 가지 의무는 교회와 관련한 의무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된 것이므로 그리스도께 봉사하는 삶의 첫 걸음은 먼저 교회와 연결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충성하려면 먼저 교회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완수해야 한다”(교육, 268~269).

하나님의 계획으로서의 일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일할 수 있는 환경에 두셨다(창 2:15). 하나님께서는 창조 과정에서 일주일 주기를 확립하셨고 그것을 안식일, 즉 휴식과 휴양을 위한 날 그리고 그분과의 우정의 날을 제정하심으로 마무리 지으셨다(창세기 2:1~3). 이 노동/휴식 주기는 인간의 행복에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시내산에서 주신바, 친히 쓰신 도덕법 안에 성문화하셨다(출애굽기 20:8~11).

자신들의 생애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는 모든 사람들은 신명기 28:1~14에 나타나 있는 언약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인간의 편에서 해야 할 일에는 한 주간의 노동과 안식일의 쉼이 포함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아담과 하와의 주변에는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들의 최선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기를 원하셨다. 그것은 “하나의 축복으로써 그들에게 유용한 일을 지정해 주셔서 그들의 몸을 튼튼하게 하고 마음을 넓히며 품성이 계발되도록”(교육, 21) 하려는 목적에서였다. 하나님께서는 노동이 우리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함을 아셨으므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말씀하신다(데살로니가후서 3:10).

근면의 보상

솔로몬은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잠언 22:29)라고 기록하였다. 오늘날 많은 직장에서 고용주들은 고용인들이 떠나지 않을 만큼의 급여를 주고, 고용인들은 해고당하지 않을 만큼만 일한다. 성경은 경건한 고용인들 때문에 복 받았음을 인정하는 몇몇 고용주들의 실례를 기록하고 있다. 야곱이 그러했고(창세기 30:27)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요셉이 일하는 것을 유심히 관찰하고 그에 대해 보상하였다(창세기 39:2~4). 우리의 고용주들은 우리에게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고용인들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성경의 모델이 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린도전서 10:31). 일과 재정 관리와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에서든지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역대상 29:11~12)

정직과 청렴

성경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잠언 22:1)라고 말씀한다. 누군가를 이용하거나 거래에서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시도는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과 거래할 때 항상 공정하고 정직해야 한다.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라)…”(신명기 25:13~16). 예수님은 진리의 화신이며 그분의 뜻을 순수하게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과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진실하여야 한다(잠언 12:22).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실 때 그들 앞에는 일이나 생활에서나 더 높은 표준이 세워져 있다. 그 표준은 “우리 마음에 기록”되고 우리의 품성에 반영된 하나님의 율법이다. 사회가 부패되고 기독교의 가르침이 약화되고 경시될 때 그리스도인 개인이 비난받을 일이 없이 살고 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다니엘 6:4).

관리의 성경적 원칙들

어떤 형태의 일이든지 관계 없이 모든 일에 대하여 적용되는 성경 원칙들이 있다. “성경은 모든 정당한 실업 부문에서 갖추어야 할 요긴한 준비 사항에 대하여 말해 주고 있다. 근면, 정직, 검약, 절제, 청렴 같은 원칙은 참된 성공의 비결이다. 잠언에 설명된 이 원칙들은 실제적 지혜의 보고이다. …성경에 그토록 자주 반복되고 강조하고 있는 경고에 귀를 기울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파산이나 파멸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인가!”(교육, 135~136) 다음은 이러한 탁월한 생의 관리 원칙에 대한 실례들이다.

- 잠언 1:7 -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 잠언 7:25 -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미혹되지 말지어다”
- 잠언 10:4 -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 잠언 11:1 -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 잠언 11:25 -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 잠언 11:28 -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 잠언 23:4 -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맞벌이 가정

종종 그리스도인 사회에서는 가정 밖에서 일하는 엄마에 대한 주제가 화두가 된다. 이상적인 환경에서라면 어린아이들이 딸린 어머니들은 자라나고 배우는 아이들을 위하여 집에서 양육하는 쪽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취학 전에 가장 잘 배우고 또한 가장 빨리 배운다고 한다. 덧붙여서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열두 살 이전에 신앙에 마음을 바친다. 성공적인 어린이들을 훈련하기 위하여 배우고 결속시켜 주는 이 시간은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은 젊은 엄마들이 가정 내의 활동에 참여하기를 격려한다.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도록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디도서 2:4~5).

잠언 31장은 가정을 위한 활동을 강조하면서 균형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일하는 아내를 묘사하고 있다. 성경은 아내가 가정에 간혀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기보다는 아내의 일이 가정과 관련된 활동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아내는 돈 관리인, 가사 담당자, 구매자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는 주 양육자이다.

어린이들을 데리고 있는 많은 가정들은 지출을 맞추기 위하여 아버지와 어머니 둘 다 정규직을 갖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느낀다. 자녀들이 학교에 있거나 그들 자신의 삶을 살 때에는 가정의 안정된 수입원의 대책으로서 어머니들이 가정 밖에서 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직업이 없는 여성들이 취업에 따르는 모든 추가 비용을 고려할 때 엄마가 일하는 가정에 이점이 별로 없다고 한다. 소득에서 총당해야 하는 모든 추가 비용(십일조와 헌물, 세금, 국민연금, 교통비, 음식, 의복과 심지어 보육비)은 상당하다. 보육원에 아이를 맡기는 비용도 적지 않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아이는 보육원보다 가정에서 엄마와 훨씬 더 행복하게 잘 자란다는 사실이다. 보육원의 주된 임무는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일하는 동안 대신 보육하는 것이다.

엄마들이 직업 전선에 뛰어들 때 가정은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비상시에 가족을 구조하려 곧바로 협력할 수 있는 별도의 숙련되고 헌신적인 성인을 포기하는 것이다. 가사에 전념하는 엄마는 가정의 안전망이며, 재난에 대비한 다목적 보험에 가입한 것과 다름이 없다.

가사에 전념하는 엄마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녀는 가족의 수입이 현명하게 소비되는지를 확인한다. 아빠의 급료가 필요한 모든 곳에 사용되는지 섬세하게 확인하는 것이 그녀의 일이며, 그래서 그녀는 찢어진 의복을 수선하고 도시락을 싸고, 가족의 펀돈을 계산한다. 전업주부는 기저귀를 갈고 아이의 숙제를 점검하는 그 이상의 일을 한다. 그녀는 아이든 어른이든 그녀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세심하게 돌보아 준다.

맞벌이—두 배의 어려움

맞벌이를 하면 가정의 재정적 구조가 아주 견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이다. 수백만의 엄마들이 취업 현장으로 뛰어들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저축액은 줄어들고 있다. 오늘날의 맞벌이 가정들은 한 세대 이전의 흠벌이 가정보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더 적다(어려운 때를 위해 떼어 놓은 돈이 적다). 맞벌이의 댓이 그대로 튀어 오른 것이다. 이제 엄마들은 두 가지 일을 한다. 즉 가정에서 그리고 사무실에서.

맞벌이 가정들은 흠벌이 가정들보다 파산 신청을 할 가능성이 더 크다. 변화하는 두려운 경제 위기에 대비한 완충제로서 두 일꾼들을 직장에 내보내는 가정은 그러한 위기에 더 쉽게 빠질 수 있다. 실제로 두 배나 더 쉽게 위기가 온다.

방법이 가정은 가사를 전담하는 엄마의 안전망이 없으므로 홀벌이 가구처럼 뽁뽁하게 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주의해야 한다. 정기적인 고정 지출은 주 수입원에서 담당하고 저축, 담보대출금의 선납, 가족의 특별 지출 그리고 심지어 중요한 기부나 자선은 보조 수입원에서 담당하도록 해야한다.

일과 시간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큰 평형 장치이다. 시간은 우리 각자가 운영하는 양식이며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시간은 또한 삶이다. 품성이란 하루나 일 년에 형성되는 게 아니며, 또 품성이란 인생을 최고로 실현하는 데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간은 거룩하게 구별되는 고상한 목적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안식일은 시간의 왕관이다.

시간의 청지기 직분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삶은 단순히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충만하고 자유로운 그리스도인 생애이다. 바울은 에베소서 5:16에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회복해”야(redeeming-홍정역. 개역개정에는 “아끼라”로 되어 있음-역자 주) 한다고 말한다. 문맥상 그 말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세월을 회복”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알고 있는 최선의 지식과 사상에 따라서 살면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시간은 죽음보다는 삶을 훨씬 더 진지하게 만든다.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지만(죽음이라는 사실 때문에) 삶에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우리가 사는 방식 때문에). 시간은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늦추거나 재촉할 수 없다. 오직 주어진 시간 안에서 현명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을 뿐이다.

시간은 그 규모를 알지 못하는 은행 예금과 같다. 우리는 단지 예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사실상 자동 인출이다.) 거기에 더 적립할 수는 없다.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의 계좌가 언제 만료될지 모른다. 세월이 우리 각자를 가르쳐야 한다는 이 엄숙한 교훈은 쾌락 추구자들이 말하는 “할 수 있는 동안 매 시간 즐겨라.”도, 염세주의자들이 말하는 “슬퍼하라.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음이니”도 아니다. 그것은 우주에서 최고의 일에서 얻는 적극적인 기쁨의 교훈, 즉 “명량한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일은 신성하다

나는 살아 있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디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사도행전 9:6, 흠정역)라고 물었고 그의 생애의 초점은 바뀌었다. 필생의 사업에 관한 질문은 모든 사람이 마주해야 해야 하는 질문이며 그 대답은 사람의 행복과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

소위 말하는 세속적 직업과 신성한 직업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없다. 정당한 모든 일은 신성하며 하나님께서 승인하신다. 모든 직업은 성직이 되도록 의도되었다. 농부가 농작물을 거둘 때, 교사가 가르칠 때, 그리고 의사가 자신의 의무를 수행할 때, 그들은 국내에 있는 목사나 해외 선교사들에게서 기대하는 동일한 목적과 충성심을 갖고 그 일을 해야 한다. 참된 청지기는 자신의 직업이 단순 노동이건 전문직이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자신의 정력을 투자한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활동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자면 누구라도 동료 인간을 위해 봉사하지 않는 활

동에 자신의 삶을 바쳐서는 안 된다. 자신이 있는 곳에서 잘 섬기는 사람은 그것이 무슨 일이든 관계 없이 모두 예수께서 위하여 오신 그 목적을 위해 섬기고 있는 것이다. 모든 일은 인류에게 봉사하는 기회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삶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며 우리는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한 방법은 청지기 직분의 실천이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언 3:6).

성로의 계단(70쪽)에서는 매일 다음과 같이 기도하기를 제안한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가 할 첫 번째 일로 삼으라.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나를 온전히 주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당신의 일에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해 주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이것이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라.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의 섭리에 따라 수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는 날마다 그대의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 점점 더 그렇게 끌림을 받게 될 것이다.”

심화 연구

»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직의 긍정적 결과를 읽고 묵상한 후 부정직의 부정적인 결과와 대조하라.

정직에 관한 말씀	긍정적 결과	개인의 의견
잠언 2:7		
잠언 3:33		
잠언 10:9		
잠언 12:19		
잠언 15:6		
잠언 20:7		
시편 26:1		

부정직에 관한 말씀	부정적 결과	개인의 의견
시편 63:11		
잠언 3:33		
잠언 13:11		
잠언 15:27		
잠언 21:6		
잠언 21:8		

- » “너희는 너희 아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가 되었음이라”(요한복음 8:44).
- »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잠언 12:22).

1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이다. 이 사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마귀와 어떤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는가?

참고 “사탄의 감화에 굴복함으로 사람들은 원수와 하나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창조주를 명예롭게 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용의 거처가 될 것이며, 사탄은 배도한 인류 속에서 그가 지은 악의 걸작품들을 볼 것이다. 그들은 마귀의 형상을 반영할 것이다”(원고 39, 1894).

2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직은 얼마나 중요한가?

참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성실한 마음과 솔직한 마음을 항상 품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의가 좌우명이 되어야 한다. 이 악한 오늘의 세상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처신하여라. 어떤 사람들은 정직함에 있어서 손해를 보지 않을 때만 정직하지만 이런 원칙하에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도말될 것이다”(화이트주석, 잠언 12:19).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네 집에 두 종류의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

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신명기 25:13~16).

3 마귀에 대한 이런 묘사와 예수님을 대조하라.

참고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이사야 53:9).

4 “진실하게 행하(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참고 “진실함과 정직성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이러한 특질을 소유한 자들은 정복할 수 없는 능력을 갖는다”(My Life Today, 331). “속이는 저울은 공정과 공평의 외양으로 포장된 모든 불공정 거래, 이기심과 부정을 숨기려는 모든 계락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행습을 조금이라도 찬성하지 않으신다. 그는 모든 거짓을 미워하시고 모든 이기심과 탐심을 몹시 싫어하신다. 그는 인정머리 없는 거래를 참지 않으시고 보복하시되 그와 같이 보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해서 정직하게 재물을 얻는 사람들에게 번영함을 주실 수 있다. 그러나 이기적인 행동으로 취득한 모든 것 위에는 저주를 내리신다”(화잇주석, 잠 11:1).

»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피며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잠언 4:23~27).

»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린도전서 6:18~19)

5 이 성경절에는 품성의 어떤 속성이 언급되었는가?

참고 “은혜 가운데서 건전한 성장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부지런히 마음을 지키는 일이 있어야 한다. 타고난 마음은 죄된 욕망과 거룩하지 못한 생각의 처소이다. 그 마음을 주께 복종시킬 때 그것은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케 된다. 이 일은 사람이 허락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영혼이 정결케 되었을 때 그것을 더럽히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화잇주석, 잠언 4:23).

6 품성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설명하라.

참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루어진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훈계를 받고 있는 자들은 모든 신령한 학식을 하를 집으로 가지고 가게 된다. 그리고 하늘에 가셔도 우리는 계속하여 진보하게 된다”(실물교훈, 332).

7 청렴한 사람은 어떤 식으로 적극적인 그리스도인 증인의 일을 하는가?

참고 “세상은 성경상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에게서 엄격한 정직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교회증언 5:179).

- »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옛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옛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출애굽기 20:8~11).
- »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잠언 22:29).

8 8째 계명이 일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설명하라.

참고 8째 계명은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지만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하라는 말씀을 통하여 옛새 동안에 게으르지 않고 ‘힘써’ 일해야 할 것을 간접적으로 강조한다.

9 9째 계명은 우리가 매주 6일 동안 일해야 한다고 명하는가? 설명하라.

참고 9째 계명은 쉼의 날이 안식일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6일은 ‘힘써’ 일해야 한다고 명한다.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일할 것을 명하셨다. 창조 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에덴동산에서 일꾼으로서 인류를 부르셨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행하는 일이었다. 타락

이후의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저주를 받음으로써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 줄 것이며,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불태우시고 희생하시는 사실을 배우게 해 주는 통로가 된다.

10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할 이들에게는 동물도 포함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참고 “말 못하는 짐승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구약의 기자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강조된다(출 23:5, 12; 신 25:4). 그분은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을 기억하셨다(창 8:1). 그것들도 홍수 후에 맺은 그분의 언약에 포함시켰다(창 9:9~11). 그분은 그것들을 자기의 소유로 주장한다(시 50:10). 니느웨가 보존된 한 가지 이유는 거기에 “많은 육축”이 있었기 때문이다(욘 4:11)”(SDA 성경주석, 출애굽기 20:10).

11 근면한 사람이 왕 앞에 서는 이유는 무엇인가?

참고 ‘근면한’ 사람은 자기의 일에 ‘익숙한’ 장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근면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에는 ‘익숙한’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데살로니가후서 3:10).

12 일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참고 “게으름은 큰 저주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신경, 기관, 근육을 주심으로 축복을 주셨으며, 우리는 그것들을 무활동으로 말미암아 저하시킬 것이 아니라 활동함으로써 강화시키고 건강하게 보존시켜야 한다. 아무 할 일이 없다는 것은 큰 불행인바 나태는 인간에게 언제나 저주가 되어 왔고 또 언제나 저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새 자녀 지도법, 124). “나는 ‘놀이 전에 왜 항상 그렇게 많은 일을 해야 합니까?’라고 어머니에게 물어보곤 하였다. ‘그것은 유용한 일을 위하여 네 정신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려는 것이요 또 한 가지는 네가 불행하게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다’(상동).

13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말은 다소 심하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견해를 설명하라.

참고 “주께서는 힘써 일하는 사람들에게 게으른 사람들을 부양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쓸데없이 낭비하고 노력을 적게 하므로 가난하고 궁핍하게 된다. 이러한 잘못을 고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은 마치 구멍 뚫린 주머니에 돈을 넣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가난한 자도 있으니 우리는 불행한 자들에게 친절과 동정을 나타내어야 한다”(실물교훈, 247).

14 이 말을 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으로서 어떤 모본을 보였는가?

참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장막 만드는 일을 업으로 삼았다(행 18:1~3). 그는 이전에 에베소에서 친히 손으로 일했고(고전 4:12) 데살로니가에서도 일했다(살전 2:9; 살후 3:8). 이 절은 그가 에베소에서 이와 같이 일했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바울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그

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일했다. ‘자주 나는 병’이 있었던 디모데(딤후 5:23)는 그들 중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바울은 교회가 아직 목사들을 부양하는 방법을 세우지 못한 때에 복음을 전하는 동안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해야 하는 것을 조금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다”(본교성경주석, 행 20:34).

»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언 22:6).

15 이 성경 구절은 영적인 지시 이상의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이 말씀은 자녀들이 평생의 직업을 찾는 데 부모가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참고 “우리 모든 청년들은 우리 학교에서 교육받을 축복과 특권을 갖도록 허용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도록 격려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들 모두가 유용하게 되고 사생활과 공적 생활에 있어서 책임 있는 지위에 합당한 자격을 갖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새 자녀 지도법, 332).

16 평생의 직업을 결정하는 것이 당신의 그리스도인 여정에 중요한가? 설명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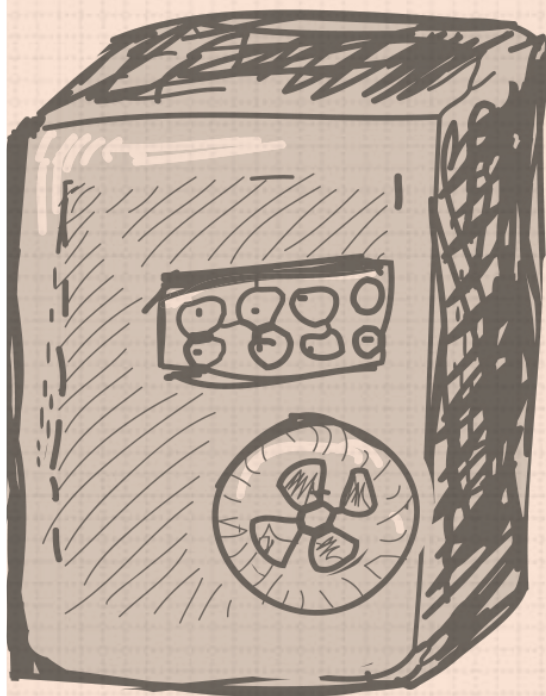
참고 “사람마다 해야 할 ‘각각(의) 사무’(막 13:34)를 받았는데, 이 사무는 당사자들의 능력에 맞는 일이며, 자기 자신과 동료 사람들에게는 최대의 선을,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교육, 137~138).

17 이상적인 직업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라.

참고 “우리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밀하게 따라야 한다. 가장 가까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섭리의 지시를 기다리는 것 등, 이렇게 하는 것이 직업 선택에 있어서 안전을 보장하는 원칙이다”(교육, 267). 모든 삶에 대한 청지기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소위 말하는 세속적 직업과 신성한 직업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없다. 정당한 모든 일은 신성하며 하나님께서 승인하신다. 모든 직업은 성직이 되도록 의도되었다. 농부가 농작물을 거둘 때, 교사가 가르칠 때 그리고 의사가 자신의 의무를 수행할 때, 그들은 국내에 있는 목사나 해외 선교사들에게서 기대하는 동일한 목적과 충성심을 갖고 그 일을 해야 한다. 참된 청지기는 자신이 가진 특정 직업(일)이 아주 단순한 노동이거나 많은 교육을 요하는 전문직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자신의 정력을 투자한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활동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동료 인간을 위해 봉사하지 않는 활동에 자신의 삶을 바쳐서는 안 된다. 자신이 있는 곳에서 잘 섬기는 사람은 그것이 무슨 일이든 관계 없이 모두 예수께서 위하여 오신 그 목적을 위해 섬기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봉사하는 모든 명예로운 직업은 인류에게 봉사하는 기회이다.

은퇴를 위한 계획

누구에게나 살다가 나이가 들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차츰 건강을 잃어 가면서 벌이를 할 수 있는 “외부” 직장에 더 이상 고용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일하는 동안 저축을 하였다면 후년의 삶은 스트레스가 그만큼 없고 즐거운 날들이 될 것이다.



은퇴를 위한 계획

잠언 21:5,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은퇴하여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은 (만일 그 사람이 일을 그만두고 자신이 축적해 놓은 자산을 자신을 위해 소비한다면) 마귀가 고안한 대체 하늘이라고 말한다. 이는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영적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교훈이며(누가복음 12:16~21) 실상 우리는 재정적 자유를 위하여 힘써야 한다(성경도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 은퇴 이후는 진정으로 인생에서 가장 긴 급한 재정적 책임을 다하고 소득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때이다. 그때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시간제나 전일제로 일하면서 시간과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후원할 수 있는 때이다.

더 긴 은퇴 시기를 예측하다

1900년대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47세까지 살았으나 오늘날은 평균 70대 혹은 80대까지 산다. 즉 오늘날의 은퇴자들은 대개 은퇴 후 16년 내지 20년을 더 살게 된다. 그러므로 은퇴 계획은 매우 중요하다. 20년은 지루하고 외로우며 빈털터리로 지내기에는 너무 긴 세월이다.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준비

생의 각 단계에서는 다음 단계의 성공을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 인생의 첫 번째 단계는 준비 시기(교육을 받고 직업과 가족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시기)이다. 두 번째 단계는 일하는 시기로서 이때에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집과 다른 주요 물품들을 구매한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는 (적절한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가장 즐거운 시기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부모들은 자녀들을 독립된 성인으로 양육하고, 채무가 없으며, 운송 수단도 갖추어져 있고 노년 가정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할 수 있을 만큼의 소득원이 있어야 한다.

표-은퇴 예산 추정치 안내

믿음과 재정 양식 #6

은퇴 예산 추정치 안내

주의: 이 예산 지침은 은퇴자들이 자신들의 주택 담보 대출금을 완불하고 또한 최신 모델의 차량 구입 대금을 완불한 것을 전제로 한다.

소득	샘플/안내	예산 추정치
남편의 국민연금	1,500,000	
아내의 국민연금	750,000	
은퇴 연금	1,000,000	
시간제 일	750,000	
다른 소득		
합계	4,000,000	

지출	샘플/안내	예산 추정치
십일조와 헌물(15%)	600,000	
주거비(세금, 관리비 등)	300,000	
음식 및 생필품	400,000	
세금(소득세 및 재산세)	900,000	
보험(주택, 자동차 등)	300,000	
의복/세탁	200,000	
교통수단(연료, 관리, 등록)	300,000	
공공 요금	300,000	
전화(전화, 인터넷 등)	100,000	
의료비(약, 눈, 치과)	400,000	
유가/여행	100,000	
기타	100,000	
총지출	4,000,000	

미국 연방 정부 통계를 보면 평균적인 은퇴 부부는 위의 도표가 보여 주는 내용의 소득을 얻는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데 한국도 대동소이하다. 분명 가정들마다 소득원이 다르다. 정상적인 가정 예산에서처럼 은퇴를 위하여 계획할 때 먼저 자신의 소득원을 나열하고 나서 소득 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퇴 예산을 세워야 한다. 이때는 빚질 여유가 없는 시기이다.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큰 소득원은 사회복지 수당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해당한다. 어떤 가정들에게는 이 연금 수당이 주 소득원으로서 전체 은퇴 소득 중의 50퍼센트를 상회한다. 이러한 연

금은 한 가정의 은퇴 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그것이 주 소득원이라면 그 가정에는 채무가 없어야 하며 또한 아주 신중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은퇴할 나이가 다가올 경우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은퇴 전에 모든 빚을 완납하는 것이다. 연금으로는 대출금을 갚기에 넉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은퇴 후 필요 분석

은퇴 지출계획서(혹은 예산서)를 보면(은퇴 예상 추정치 안내 도표 참조) 소득과 지출이 구분되어 있다. 만일 예상 지출이 소득보다 더 크다면 연금이나 그 외의 다른 소득원(시간제 일이나 적금)을 통해서 부족분을 보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예산상 매월 300만 원이 필요한데 추정 소득은 다 합산해도 250만 원 밖에 되지 않는다면, 다른 소득원에서 매월 50만 원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즉시고정연금

상업 시장에서 연금은 당신에게 죽을 때까지 소득을 제공해 주기 위해 마련한 보험 상품이다. 즉시 고정연금의 소득은 납입한 다음 날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종신형은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서 받는 방법으로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망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확정기간형은 정해진 기간(5년, 10년, 20년) 원리금을 나누어 받는 방법이다. 받는 연금 액수는 가입자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므로 불리한 점도 있다. 변액 보험 상품이 있으나 은퇴와 관련한 연금의 목적이 일생 동안 일정한 소득을 고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품은 추천하지 않는다.

은퇴 부부는 두 가지 재정 목표를 갖고 있어야 한다. 첫째는 가정의 필요를 일

생 동안 공급할 보장된 소득을 갖는 것이며 둘째는 살아 생전이나 사망 시 필요하지 않은 모든 자산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계획을 갖는 것이다. 때때로 어떤 은퇴 부부는 불리한 결과의 가능성을 안고 이 순서를 뒤집어 버린다. 어떤 은퇴 부부는 그들이 나중에 필요로 할 수도 있는 자금을 날려 버리기도 한다.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소득이 확보된 다음에는 남은 자산을 하나님께서 여유를 주신 만큼 자선에 사용하기를 권한다.

기부연금(A Charitable Gift Annuity)

기부연금은 소득 수요와 자선 의도를 충족시키는 데 아주 적합한 연금 상품이다. 일단 어떤 가정이 은퇴 기간 동안 자신들의 소득과 지출의 예상치를 결정한 후에 약간의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려 할 경우에 기부연금에서 총당할 수 있다. 기부연금은 개인이 현금 유가증권이나 다른 자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그 자선단체는 대신 기부자에게 죽을 때까지 고정된 금액의 연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기부연금으로 기부된 재산이나 기부금은 일단 계약이 완료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하고 자선단체의 자산의 일부가 된다. 수입을 보충하기 위하여 기부연금을 이용하는 가정들은 확고한 자선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여유가 있으면 기관에 지불한 전체 금액 전부를 기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들이 살아 있는 동안 필요한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엘렌 화잇은 기부연금의 개념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권면하였다. “우리 중에 재산의 잉여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원금을 하나님의 사

업을 위하여 기부하고 대신에 그들이 사는 동안에 기부한 돈의 이자를 받아 살 수 있게 조정하기를 권면하라.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것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이다”(호주 연합회 의사록, 1900. 12. 1.).

주택대출(역모기지 대출)

주택대출에서는 대출 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이 당신의 집을 담보로 죽을 때까지 생활 자금을 준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해당 금융 기관이 그 주택을 처분해 그 동안의 대출금, 이자, 보증료 등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된다. 이것은 주택 소유주가 자신의 주택의 순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특별한 유형의 주택대출이다. 주택대출의 기본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차용인과 배우자는 둘 다 65세이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 주택이 경매, 압류, 가처분 등에 걸려 있지 않아야 한다.
- 주요 주거지(가구 1주택)로서 그 주택에 살고 있어야 한다.
- 주택이 시가 6억 원 이하여야 한다.

기타 노인 소득

많은 재정설계사들은 부가 소득을 보장받기를 원하는 노인들에게 주택대출 외의 다른 자원을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최후까지 있다가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에만 주택의 순자산을 선택해야 한다. 만일 주택 수리나 다른 필요 때문에 자금이 필요할 때 매월 예산에서 매월 납입금을 낼 수 있다면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대출보다 훨씬 저렴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만일 아직 주택과 관련하여 갚아야 할 빚이 있거나 단순히 매월 납입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그 주택담보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그 주택을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그 재산을 가지고 더 작은 주택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만일 매월 부가적인 소득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택대출금이 상환되었다면 그 집을 팔아서 그 절반을 가지고 더 작은 주택의 구입을 고려하라. 그 재산의 다른 절반을 갖고 제일 하고 싶어했던 사역을 하면서 기부연금 계약을 맺고 여생 동안 보장된 소득을 가질 수 있다. 집을 팔더라도 같은 마을의 다른 장소에 집을 구입하여 교회나 친구나 가족들과의 교제를 지속할 수 있다.

다음의 실례는 미국의 보통 은퇴자 가정의 지출 상황을 보여 준다. 예를 들면 만일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하여) 채무가 없다면 당신의 주거 비용에는 오직 세금, 유지비와 보험만이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거 비용이 적어도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평균 은퇴 가정에 비하여 월 지출의 15~20퍼센트를 저축하게 된다!

건강 관리를 위한 계획

기본적으로 은퇴 준비에는 세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다. 첫째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부채가 없을 것,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충분한 소득원이 있을 것, 끝으로 적절한 건강보험을 가질 것 등이다. 이 단계의 생을 보내는 동안 건강 관리는 중요한 요소인데 이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를 위한 비용이 늘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제도는 건강 관리 전체 비용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들은 세부적인 보완용 보험을 든다. 연금을 갖고 은퇴하는 많은 노동자들은 가족들을 위한 건강보험을 별도로 갖고 있다.

성공적이며 만족스런 은퇴 생활은 아무 대책 없이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당신이 일하는 동안 많은 계획을 세우고 계

속적인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돈을 납부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은퇴 후에는 비용이 더 적게 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를 범한다.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실은 연금이 물가 상승에 맞추어 오르지 않으며, 건강보험 제도가 항상 모든 건강 상의 비상 상황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체계적인 은퇴 저축 계획을 위한 조언들

계획을 세우라

저금은 계획이 없으면 정말 어렵다. 최선의 길은 연필과 종이를 갖고 앉아서 당신의 목표와 꿈을 적어 보는 것이다. 미래의 은퇴를 위한 계획 수립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다른 목표에는 자녀들의 교육, 해외 선교 여행과 휴가, 혹은 특정한 시간 안에 대출이나 신용카드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연기하지 말라-정기적으로 일찍이 저금하라

은퇴를 위하여 저금하는 일은 생각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 일은 실천을 요구하며 다음 실례가 보여 주듯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만일 65세 은퇴 시에 은행에 3억 원을 갖고 있는 것이 목표라면 저축을 위한 최적의 시기는 25세이다. 30세가 되기 전까지 매월 20만 원을 불입한다면 1,200만 원을 저축하게 되는 셈이다. 은퇴 날짜까지 몇 년이 남았든 상관 없이 저축 계획은 미래의 재정확보를 위하여 꼭 해야 할 일이다!

뜻하지 않게 생긴 돈을 저축하라

당신은 친척이 유언장에 남겨 놓은 얼마의 돈을 상속받을 수 있으며, 혹은 부모로부터 뜻하지 않은 돈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예기치 않은 횡재는 당신의 저축 계획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저축을 늘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중고물품 판매를 통하여 안 쓰는 물건을 팔아 30~50만 원을 모으는 것이다. 매년 받는 세금 환급금을 저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예상된 곳에서 얻은 돈을 저축하라

“나는 돈이 생길 만한 곳이 없어요. 만일 생긴다고 해도 써야 할 곳이 더 많아서 저축은 생각도 못해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진실을 말하자면, 우리 대부분이 예측하고 있는 소득원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갚다가 어느 날 그 할부금이 완불되면 그때부터 매월 여분의 40만 원이 생긴다. 대개 그런 돈은 생활비에 흡수되어 버린다. 그러나 만일 그 40만 원을 적금에 넣게 되면 당신의 재정 그림은 앞으로 4년 동안 매우 의미있게 달라질 것이다.

50세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은퇴까지 15년밖에 남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그동안 한 푼도 저축하지 못했다. 그는 그때부터 15년 동안 매년 생계비 인상분에서 그의 미래 재정을 위하여 50퍼센트를, 매일의 생계비 상승을 위하여 나머지 50퍼센트를 떼어 두었다. 이렇게 작은 액수를 매달 따로 떼어 놓은 결과 그는 15년 간 1억 원을 저축할 수 있게 되었다.

늦깎이에게 주는 조언

직장 생활 늦게까지 기다려 왔으나 은퇴 후를 위하여 거의 준비하지 못한 사람

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몇 가지를 제안한다. 우선 당신이 은퇴하기 전에 주택 담보 대출을 먼저 은퇴시키라. 더 적은 소득으로 그것을 퇴역시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채무가 없어야 한다. 신용카드, 차량 대출, 학자금 대출 그리고 주택 대출금 등의 채무 말이다! 만일 그다지 많지 않은 월급을 받고 임의로 쓸 수 있는 소득의 대부분을 자녀들의 교육과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면 당신은 은퇴 준비를 위해 더 집중하고 더 노력해야 한다.

시간제 취업

과거에는 대부분의 개인이나 가정들이 사회 복지 수당이나 연금 그리고 일정한 개인 예금만으로도 꽤 안전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장차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전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은퇴를 위한 재정 계획을 성경적 시각보다는 사회의 시각을 통해 보는 경향이 있다. 아담(궁극적으로 전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별은 “네가 흠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라...라”(창세기 3:19)는 것이었다.

하버드 동문 건강연구소에서 65세부터 75세까지 10년 동안 지역 사회에 참여하거나 계속하여 일한 동문들은 그들의 수명에 현저한 변화가 있었음이 관찰되었다. 그 연구조사에서는 65~75세 되는 100명의 하버드 졸업생 두 그룹을 참여시켰다. 첫 번째 그룹은 65세에 은퇴하였으며 다른 그룹은 그 후 10년 동안 계속하여 일하였다. 그 결과는 안락한 삶과 쾌락이 은퇴 목적이었던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었다. 첫 번째 그룹에서 65세에 은퇴한 사람들은 8명 중 7명이 75세에 사망했다. 두 번째 그룹 100명은 계속하여 일하였는데 오직 8명 중 1명만이 75세에 사망했다. 우리는 닳아 없어지는 시간에 비해 더 빨리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 분명하다.

모든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은퇴 후의 기간에 우리 가족과 교회와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 때는 우리의 가족들과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소유물인 시간을 돌려드리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해외 선교지에 가서 몇 개월 동안 제2 외국어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때이다. 아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나 지역에 가서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시간과 재능과 자원을 은퇴 후 10년 내지 15년 동안 그만큼 줄 수 있다. 기억하라. “어떤 가정이나 외국의 선교 현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죽는 것이 활동하지 않고 녹슬어 없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Retirement Years, 39).

교통비를 줄이라

앞의 도표에서 평균적인 은퇴자들의 지출 내역을 살펴보았다. 교통비는 주거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지출 항목이다. 교통비 항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은퇴 시에 차량 대금을 다 지불한 최근 모델의 차를 갖는 것이 좋다. 차량의 수와 유형 또한 중요하다.

어떤 유형의 차량인가. 은퇴 시에 교통수단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라. 그런 후에 당신이 사는 지역에서 어떤 차량이 가장 문제가 없고 추천할 만한 것인지를 인터넷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신은 단지 마을과 교회를 오가기만 할 것인가? 손자 손녀나 교회 어린이들을 수송할 것인가?

유지. 이제 은퇴하였기 때문에 당신은 차량을 자가 수리할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될 것이다. 만일 방법을 모른다면 거의 모든 차종의 정비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한 훌륭한 서적들이 많이 나와 있을 것이다. 정기적으로 관리해 주면 필요한 수리비를 최소화하게 되고, 차의 수명도 더 길어진다.

차량의 수를 줄인다. 대부분의 미국인 가정들은 일하는 기간 동안 적어도 두 대의 자동차를 갖는다. 만일 한 대의 차량만으로도 살 수 있다면 차량의 감가상각, 유류, 보험, 정비 등을 계산할 때 일 년에 대략 6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저비용 지역으로 이주하라

일하는 동안 많은 가정들은 직업과 교육의 기회를 위하여 대도시 지역에 살아야 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도시 환경들은 비싼 재산세와 높은 생계비가 들었다. 지출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세금이 없거나 더 낮은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이다.

변화를 위하여 준비하라

어떤 사람들은 은퇴하게 되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경험한다. 은퇴는 “사물이 결코 다시 전과 똑같지 않게” 되는 때이기도 하다. 인생은 평생 동안 결혼, 육아, “아이들”이 집을 떠나고 남은 빈 동지의 시기 등 많은 전환기가 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때를 잘 계획한다면 새로운 단계로 옮겨가 전혀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생의 이 세 번째 양상에서 또 다른 중요한 국면은 당신이 어떤 곳으로부터 은퇴하여 새로 어떤 다른 곳으로 들어간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당신은 계속 일하여 소득의 약 10~15퍼센트를 보충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일은 가령 과거에는 단지 즐기기 위해서만 테니스를 쳤으나 은퇴 후에는 그 경기 기술을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는 시간제 일로 삼는 전혀 새로운 분야의 일로서 현재 경력의 연장이 될 수 있다. 점차 삶의 이 시기는 한 번 오는 행사가 아닌 계속 진행되는 과정으로 간주되고 있다. 때문에 오늘날의 은퇴자들은 은퇴와 일이

상호 배타적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은퇴 계획은 불유쾌한 경험이 될 필요가 없다. 위의 지침과 원칙들을 적용하면 그 일은 유쾌하고 보람 있는 것이 될 것이다.

심화 연구

»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잠언 6:6~11).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잠언 30:25).

1 ▶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미래를 위한 계획 수립의 중요성에 대하여 무엇을 말해 주는가?

참고 “부지런한 벌은 총명한 사람들에게, 모방하면 번창할 수 있는 한 모범을 보여준다. 벌들은 철저하게 질서를 지키며 게으름뱅이는 벌집에 있도록 용납하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총명함과 활동으로 지정된 일을 수행한다”(새 자녀 지도법, 59). “개미는 장래를 위해서 준비한다. 이것은 이성적 힘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교훈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그의 섭리 가운데서 보충하신 미래의 불멸의 생명을 위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는다”(원고 35, 1899).

2 ▶ 우리는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일에 다른 사람을 의존하여야 하는

가? (예, 아니오). 그 이유를 설명하라.

참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울 때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과 상담을 구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자신이 내리는 것이므로 타인에게 의존할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때 책임을 그 사람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 다른 사람은 어디까지나 도움말을 해주는 것으로 그 역할이 한정된다.

»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오분의 일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 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창세기 41:34~36).

3 이 구약 성경 말씀에서 어떤 은퇴 원칙을 발견해 낼 수 있는가?

참고 은퇴 이후는 고정 수입이 없는 때이므로 7년간의 흉년의 때에 비길 수 있다. 아직 활동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을 때에 은퇴 후의 삶을 위하여 저축을 하여야 한다.

4 이 성경 구절은 소득의 20퍼센트를 미래의 필요를 위해 저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동의하는가?

참고 “애굽은 평년에 국내 소비에 필요한 것 이상의 곡물을 생산하였으므로 많은 양

을 수출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풍년에 곡물의 20퍼센트를 거둬들이는 것은 전혀 곤란을 주는 일이 아니었고, 동시에 막대한 양의 곡물이 집게될 수 있었다. 지나치게 많은 양을 요구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며, 그렇게 하였다면 농부들과 지주들의 호의와 협력을 잃게 되었을 것이다. 풍성한 수확으로 그들은 이 증가된 세금을 쉽게 바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압제당한다고 느끼지도 않았을 것이다”(SDA 성경주석, 창세기 41:34). 이때에는 평년 이상의 풍년의 때이므로 20퍼센트는 큰 무리가 없었지만, 일상적인 상황에서 20퍼센트를 저축할 수 있는 가정은 많지 않을 것이다.

- 5** ▶ 그 20퍼센트는 단순히 은퇴만을 위한 것이 아닌, 가령 연간 세금을 납부하고 주요 물품 구매와 같은 장래의 모든 필요에 적용된다고 생각하는가?

참고 가정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 »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공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누가복음 12:16~21).

6 이 이야기는 은퇴의 현대적 개념과 어떤 점에서 유사한가?

참고 부자는 그가 아직 활동할 수 있는 때에 활동할 수 없는 때(즉 은퇴 후)의 삶을 생각하고 준비하였다.

7 이 사람은 열심히 일했고, 저축했으며,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왜 “어리석은 부자”라고 일컫는가?

참고 이 부자는 이생에서의 자신의 삶을 위하여는 잘 계획했으나 내생을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 즉 하나님과 타인에 대하여 마음이 닫혀 있었다.

8 이 부자는 자신의 부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참고 이 부자가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한 데에는 문제가 없다.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생각하고 계획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기에 지각이 없는 자이다. 천국 복음의 목적은 사람들의 생각을 자아에게서 돌려 위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밖으로 동료 인간들을 향하게 하는 것이다”(SDA 성경주석, 누가복음 12:21).

» “네가 흠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 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창세기 3:19).

9 이 성경 구절은 이 땅에서 보내는 시간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는가?

» 참고-이 땅에서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은 땀 흘려 일하면서 보내는 시간이다.
그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식물(食物)을 얻기 위함이다.

10 이 성구는 우리가 일하기를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하고 우리 수고의 열매를 누려야 한다고 말하는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라.

참고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의 성취는 오직 수고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벌은 사실상 죄된 인간들을 위해 변장된 축복이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사람이 일을 하면 한가하게 시간을 보낼 때보다 죄를 훨씬 덜 짓게 될 것이다. 수고와 노동은 품성을 계발시키며 사람에게 겸손과 하나님과의 협력을 가르쳐 준다”(SDA 성경주석, 창세기 3:19).

» 연금에 관한 자료를 복습하고 다음 질문에 답해 보라.

11 즉시 고정 연금은 어떻게 운용되는가?

참고 즉시 고정 연금은 납입한 다음 날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종신형은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서 받는 방법으로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망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확정기간형은 정해진 기간(5년, 10년, 20년) 원리금을 나누어 받는 방법이다. 받는 연금 액수는 가입자 입장에서 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므로 불리한 점도 있다.

12 은퇴 계획 중 기부 연금의 혜택은 무엇인가?

참고 “우리 중에 재산의 잉여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원금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기부하고 대신에 그들이 사는 동안에 기부한 돈의 이자를 받아 살 수 있게 조정하기를 권면하라.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것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이다”(엘렌 화잇, 호주 연합회 의사록, 1900. 12. 1.).

13 연금은 은퇴 시의 소득을 보완하는 데 있어서 증시에 투자하는 것보다 어떤 점에서 더 나은가?

참고 증시는 연금보다 높은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투자금을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은퇴 전후의 사람들은 그러한 손실을 만회할 시간이나 능력이 더 이상 여의치 않으므로 좀 더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 주택 대출(역모기지대출)에 관한 자료를 복습하고 다음 질문에 답해 보라.

14 주택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다섯 가지 기본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

참고 (1) 차용인과 배우자는 둘 다 65세이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2) 명백히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택 담보 대출 잔고가 만기 시에 주택 대출에서 얻는 수익금으로 완납할 수 있을 만큼 적게 남아 있어야 한다. (3) 주요 주거지로서 그 주택에 살고 있어야 한다(1가구 1주택). (4) 세금, 보험, 주택 관리비를 낼 수

있어야 한다. (5) 승인된 기관으로부터 소비자 정보를 듣고 상담을 받는다.

15 ▶ 주택 대출의 유익점을 나열하라.

참고 주택 대출은 주택의 순자산의 일부를 풀어 주어 주택 소유주가 자신의 집에 살 수 있도록, 즉 다른 방법을 통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오래 그 집에 살 수 있게 해준다. 만일 차용인이 대출 배당금 옵션에서 매월 지불금을 선택했다면 대출 기관은 만일 소유주가 120세까지 살거나 주택의 가치가 떨어진 때에라도 그 배당금을 지켜 준다. 물론 집 소유주는 그 집에 계속 살아야 하고, 세금과 보험 및 관리 등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16 ▶ 주택 대출의 불리한 점은 무엇인가?

참고 주택 대출을 갖고 있으면 부채는 늘고 주택 순자산은 줄어든다. 주택 대출은 어디서나 주택 가치의 100퍼센트 가까이 받을 수 없고, 대체로 만일 소유자가 70대 후반이면 절반을, 60대 후반이라면 주택 가치의 약 3분의 1을 받는다. 주택 대출은 오직 주택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며 이는 소유주가 주택의 순자산 대부분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만일 당신이 60대 후반이고 당신의 집이 60만 불이라면, 당신은 일시불로 단지 205,757불을 받거나 매월 1,100불을 받게 된다. 이것은 당신의 주택 순가의 약 3분의 2는 사용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또 다른 문제는 권원(權原) 이전 비용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대개 대출 가치의 약 10퍼센트). 이것은 대출 금액에 더해지며 차용인은 대출을 유지하고 있는 내내 이 금액에 대한 이자를 무는 것이다! 셋째로, 대출 기관은 만일 주택 소유자가 재산세나 주택 소유자의 보험을 유지하지 못하면 주택 대출의 즉각적인 상환을 요구하게 된다. 만일 소유자가 주택을 유지하지 못하고 파산을 선고하거나 이사하게 되면 대출

은 취소되고 대출금의 변제를 요구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주택대출의 부정적인 요소는 모든 주요한 상품들이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해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17 은퇴자들에게 어떤 소득원 대안이 있는가?

참고 많은 겨우 주택의 순자산은 최후까지 있다가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에만 선택해야 한다. 만일 주택 수리나 다른 필요 때문에 자금이 필요할 때 매월 예산에서 매월 납입금을 댈 수 있다면 주택 담보 대출은 주택 대출보다 훨씬 저렴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만일 아직 주택과 관련하여 갚아야 할 빚이 있거나 단순히 매월 납입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그 주택 담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그 주택을 매각하여 그 돈을 가지고 더 작은 집이나 연립 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만일 매월 부가 소득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택 대출금이 상환되었다면 그 집을 팔아서 그 절반을 가지고 더 작은 집이나 연립 주택, 혹은 분양 아파트 구입할 수 있다. 그 재산의 남은 절반을 갖고 자신이 제일 하고 싶어 했던 사역을 하면서 기부 연금 계약을 맺고 여생 동안 보장된 소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집을 팔더라도 같은 마을의 다른 장소에 집을 구입하여 교회나 친구나 가족들과의 교제를 지속할 수 있다.

»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디모데전서 6:17~19).

»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히브리서 13:16).

18 이 성경 구절에 어떤 핵심 원리가 묘사되어 있는가?

참고 재물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자신만을 위해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품성의 핵심은 자기 부정과 자아 희생의 정신이며 하늘은 그러한 정신을 품은 이들을 위한 곳이다.

19 은퇴 후에 돈을 기부하는 것은 위험한 일인가? 설명하라.

참고 은퇴 후에도 가정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므로 만일 그러한 필요를 위하여 자금을 남겨 두지 않고 모두 기부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20 이 과에 따르면 은퇴 준비의 세 가지 필수요건은 무엇인가?

참고 (1) 미래(은퇴 후의 삶)를 위하여 저축할 것, (2) 가족과 교회와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재정적으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것, (3) 변화를 위하여 준비할 것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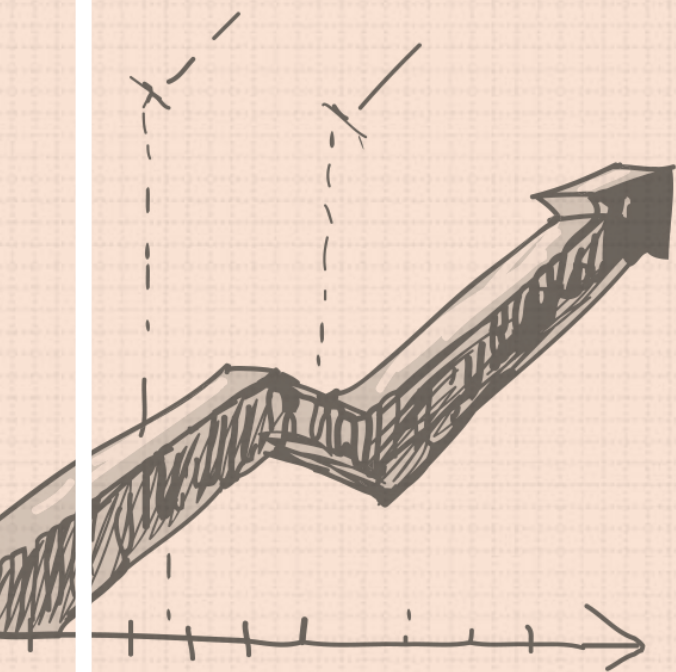
Lesson

10

저축과 투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물은 언젠가 깨지고, 닳고, 작동을 멈춘다.

일반적으로 이런 일들은 예기치 않게 우발적으로 발생하며, 만일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처할 현금이 없다면 결국 신용카드 사용에 기댈 수밖에 없다. 저축의 한 목적은 이러한 “어려운” 때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마태복음 6:19~21,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소득의 일부를 미래의 용도를 위하여 떼어 놓는 것은 “미루어진 기쁨”이라고 일컫는다. 모든 예산에는 저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저축은 재정적 성장과 번영의 비결이다. 만일 재정적으로 건강하게 되고자 하면 당신은 예산에서 저축 항목을 음식이나 교통, 주거, 기타 항목과 같은 꼭 필요한 것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응급 상황을 의도적으로 일으키지는 않지만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은 세울 수 있다.

저축 대비축

성경은 저축을 장려하지만 비축은 말린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것은 실제로 아주 간단하다. 저축은 주택 보증금, 신차 구입, 자녀 교육을 위한 저금, 은퇴를 위한 투자 같은 특별한 목적을 위한 것이다. 한편 비축은 안전을 위한 것이다. 안전이 저축의 목적이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돈이 결코 충분하다고 느

끼지 않는다. 비축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마음이 우리가 가진 돈으로 옮겨 가는 것이다.

비축은 극단적인 형태의 저축이며 투자이다. 비축에 대한 고전적인 실례는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에 나온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내 공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16~21절). 여기서 우리는 저축과 비축의 차이는 액수가 아니라 저축에 대하여 갖는 우리의 태도임을 알 수 있다.

어떻게 시작할까?

월급 때마다 만 원씩 저축하라. 어딘가에서부터 시작하여 저축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굳게 결심하라. 그리고 그 돈을 건드리지 말라. “저축하는 사람”이 되려면 충실한 재정 확립의 열쇠는 저축임을 믿어야 한다.

“매주 그대 봉급의 일부를 저금하여 두되 실제로 어려움을 당했거나 또는 그 돈을 주신 하나님께 돌려 드릴 때를 제외하고는 결코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 … 그대는 궁핍한 상황에 빠졌을 경우 그대의 가족이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갖고 있어야 한다”(재림신도의 가정, 396).

보장된 투자

만일 투자한 돈의 회수를 보장받고자 한다면 신용카드 대금을 완납하고 빚 없이 살라. 만일 신용카드 이자를 20퍼센트 내고 있다면(많게는 30퍼센트 이상) 연체 대금을 상환할 때마다 20퍼센트를 버는 것이다. 그것은 확실하게 보장된다! 채무자들은 투자하기 전에 채무부터 처리해야 한다.

얼마면 충분한가?

목표는 채무자에서 저축인, 투자가가 되는 것이다. 일단 저금하기 시작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된다. “저축은 얼마나 해야 하는 건가?” 혹은 “언제 저축이 ‘비축’이 되는 거지?” 전문가들은 적어도 3~6개월 분의 급여를 권고한다. 해고나 발생한 후 새로운 일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소한 6개월 분의 생활비를 응급 시의 사용 자금으로 비축하고 있도록 권고한다.

한편, 은퇴를 위한 저축은 어떤가? 많은 사람들, 특히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남은 일생 동안 쓸 돈이 혹 부족하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그들은 항상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좀 더 갖고 있어야 한다고 느낀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종종 일생 동안 기부하는(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러한 사람들의 위험은 하나님보다 은행에 예치해 둔 계좌를 의지하여 더 비축해 놓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저축과 투자 종목에 한도를 정할 것을 제안한다. 은퇴 후 예상 지출에 기초하여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하라. 그리고 난 후 이러한 필요를 공급할 만큼 저금이 되었을 때 더 이상의 저축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베풀고 투자하는 일을 시작하라. 먼저 은퇴예산서를 검토하라. 론 블루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 번째 일을 첫째로

어떤 사람이 투자할 수 있으려면 먼저 투자할 돈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소득원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신명기 8:18에서 모세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고 말한다. 모든 교육, 훈련 그리고 그

에 뒤따르는 일 등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왕국의 일을 후원할 목적을 갖고 부를 생산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재물을 얻는 데 사용된 방식은 우리 삶의 지도하는 힘으로써 하나님의 관심과 원칙을 마음에 품고 항상 최고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돈을 벌 수 있는 재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이 재능을 소홀히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청지기들은 하나님 중심 즉 하늘의 영감에 의한 투자 정신을 가져야 한다.

가난에는 영적인 면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생각을 지지하지 않는다. 변영은 영적이고 성경적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성경은 영생의 길을 거절한 젊은 부자 법관에 대하여 예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보여 준다(누가복음 18:24~26). 여기서 예수님은 단순히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고 하신 것이지 불가능하다고 하신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실상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포함한다. 이는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하늘의 상급에 두어야 하는 이유가 된다. 예수께서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고 말씀하신다(마태복음 6:20).

하늘을 위한 투자

사람이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는가? 젊은 부자 법관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그리고 누가복음 18에 기록되었다. 세 명의 성경 기자들 모두 만일 그 부자 청년이 가난한 자들을 도왔다면 그는 하늘에 보물을 쌓았을 것이라고 기록한다.

때때로 우리는 만일 우리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질 때 투자하기만 한다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업

에 너그러이 베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그 일은 거의 그런 식으로 된 적이 없었다. 엘렌 화잇은 그런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대는 불확실한 곳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사탄은 그대의 눈을 멀게 해서 이런 사업이 그대에게 아무 이득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 영생을 얻는 사업은 그대의 관심을 일깨우지 못하였다. 그대는 그곳에 돈을 쓸 수 있었으며 위험도 없고, 실망도 만나지 않으며, 마지막에는 엄청난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교회증언, 2:280)

우리는 먼저 세상의 재물을 소유해야 그것을 구별된 용도에 따라 하늘의 재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영적 유산을 넉넉히 쌓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는 세상 재물을 바르게 축적함으로써 하늘 보화를 쌓을 기회를 늘린다. 돈을 모을 때의 큰 위험은 이기심이다. 이기심에 대한 치료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과 베품이다.

그리스도인이 투자하는 것은 돈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투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이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난 부자가 아니에요.” 연구에 따르면, 만일 당신이 음식을 배불리 먹고 좋은 의복을 입고 악천후에서 보호해 줄 집에서 살고, 쓸만 한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당신은 부의 측면에서 볼 때 전 세계의 상위 15% 안에 든다. 어느 정도 저축을 하고, (골프나 장비를 필요로 하는 스쿠버 다이빙 같은) 취미 생활을 하고, 두 대의 자동차(상태가 어떻든지), 여러 종류의 의복, 자기 소유의 집을 갖고 있다면 5% 안에 든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며 우리는 하늘을 지향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엔 어떤 투자에 대해 결정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식료품점에 가서 어떤 식품을 살 때 그것은 우리의 건강에 대한 투자이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는 오락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건설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교회 학교에 입학시킬 때 그들의 영원한 복지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투자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다. 우리가 십일조와 헌물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그분의 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은 우선순위와 청지기로서 우리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 당신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에 투자하라.
- 당신이 하늘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하라.

투자 선택

투자에는 세 가지 기본적인 선택이 있다. 첫째, 영원한 상급을 받을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는 일이다. 둘째, 우리가 소유주인 지상의 투자이다. 이 투자에는 주식, 회사형 투자 신탁(뮤추얼펀드), 부동산, 보석, 농장 등이 포함된다. 만일 그 가치가 오르거나 우리가 투자한 회사가 성공하면 우리는 돈을 번다. 셋째는 우리가 빌려주는 자로서 지상에 투자하는 일이다. 이 투자에는 은행 예금이나 신용협동조합, 예금 증서, 양도성 정기 예금(CD), 회사채, 국채, 지방채, 그리고 연금이 있다. 빌려주는 투자를 하면 우리는 우리가 “빌려준” 기관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한 우리가 투자한 것에 대해 보장된 수익금이나 고정 수익금을 얻는다.

일반적 경험의 법칙에서 보면 좋은 투자자들은 고객이 나이가 들어 감에 따라 빌려주는 투자 쪽으로 가고 소유주가 되는 투자는 멀리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동의 뒤에 숨은 이론은 우리가 비록 소유주가 되는 투자를 하여 고율의 수익

을 얻을 확률이 있지만 그것들은 손실을 당할 확률도 많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그러한 손실을 감당할 여유가 없다. 그때는 잃은 것을 다시 벌어들일 노동력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언제든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투자 법칙은 투자 수익금이 크면 클수록 잃을 위험도 그만큼 더 크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에 관하여 질문한다. 한 떼기의 나대지나 땅을 사라. 그 값을 지불하고 몇 년 동안 그 땅을 갖고 있으라. 그러면 당신이 은퇴할 준비가 되었을 때 당신이 구입한 땅은 원래 구입한 가격보다 그 가치가 여러 번 오르게 된다. 당신은 그 땅에 집을 지을 수도 있고 팔아서 다른 곳에 집을 살 수도 있다.

투자의 네 단계(levels)

다음의 투자의 단계들은 투자의 기술이 세련되어 가는 진행 과정을 보여 준다.

첫째 단계. 빚에서 벗어나기. 이것은 투자를 위해 바람직한 유일한 기초이다. 빚을 갚는 것만큼 확실한 투자는 없다. 채무를 갚기도 전에 투자를 먼저 꿈꾸는 것은 대개 미숙함을 드러내는 것이며 재정에 대한 소양이 부족한 것이다.

둘째 단계. 미래의 필요를 위해 저축함. 비상시를 위한 저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라. 장래에 있을 구매나 다가오는 지출(예를 들면 세금)을 위하여 자금을 비축할 계획을 세우라. 그리고 난 후에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계획을 세우라.

셋째 단계. 잉여 자금을 투자함. 여러 유형의 투자에 대하여 배우라. 회사형 투자 신탁(뮤추얼펀드)에 대하여 시간을 내어 배우라. 세금 유예의 가치와 재정 결정에 따른 세금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

넷째 단계. 안전을 위한 다각화. 당신이 투자 종목을 통해 이루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목표를 설정하라-얼마면 충분한가? 성경은 다변화를 권

장한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전도서 11:1~2).

■ 빨리 부자 되려는 계획

은퇴를 위하여 저축하고 준비할 때에 아직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항상 만일 우리가 어떤 괜찮은 투자처를 찾을 수 있다면 저축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유혹을 느낀다. 바깥 세상에는 당신이 힘들게 번 돈을 빼앗아 갈 방법을 짜내느라 온통 골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기꾼들은 특히나 나이든 사람들을 속여 그들이 일생 동안 모은 돈을 빼앗을 방법에 대해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안전한 투자처에서 5% 이하의 수익을 얻고 있는데, 누군가가 따라와서 당신에게 25%를 약속할 때 그것은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시장을 앞서” 가려는 생각은 위험하며 피해야 한다. 아래에 제시하는 ‘속히 부자가 되려는 계획’의 네 가지 특성을 눈여겨보자.

- 부자가 되게 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다(고율의 수익금). 그것도 빨리!
- 당신은 그 투자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지 않다.
- 당신은 잃어버릴 여유가 없는 돈을 가지고 모험해야 한다(주택을 담보로 하는 두 번째 대출처럼).
- 당신은 빨리 결정해야 한다(“내일까지 결정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속히 부자가 되려는 계획’의 덫에 속수무책으로 걸리는데, 이는 전형적으로 이러한 “투자”를 제시하며 마음을 혹하게 하는 이들이 친구들이기 때

문이다. 당신은 그 친구가 당신을 돕고 있다고 순수하게 믿어 버린다.

투자와 도박

어떤 사람들은 투자는 도박과 동일한 것이며 그리스도인은 어느 것에나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돈을 은행에 예금하면 그 은행은 그 자금을 가지고 투자한다는 사실에서 진실을 보게 된다. 그러면 은행들은 도박한 것인가? 은행은 보험에 들어 있으며 그들은 “당신의” 자금을 투자하는 전문가들이다. 그러나 그 수익금은 아주 적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도박이나 복권, 경마, 혹은 그밖에 운에 좌우되는 다른 게임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설 곳이 없음이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복권에 당첨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육받지 못하였고 최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당첨된 돈”은 (대부분의 경우 1년 이내에) 허비된다. 도박의 커다란 모순점은 거기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잃는다는 사실이다. 돈을 따는 아주 적은 사람들은 그 돈이 그들을 행복하게 해 주지 않으며 심지어 그들의 삶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안다.

주식 투자는 어떤가? 우량 회사의 증권을 사는 것과 복권을 갖고 도박을 하는 것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 도박은 운을 잡는 것 혹은 불확실한 결과에 돈을 거는 것이며 투자는 금융상의 수익금을 얻기 위해 돈을 맡기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미래의 수익과 이익을 위하여 지출하는 것이기도 하다.

심화 연구

- »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태복음 6:19~21).

1 왜 예수께서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가?

참고 이 땅에 보물을 쌓아 두는 것은 좀, 동록, 도둑 등에 의해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안전한 곳에 둔다 할지라도 결국 생명이 다하는 순간에 지금까지 쌓아 둔 재물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다.

2 하늘에 보화를 쌓아 두는 이점은 무엇인가?

참고 “현세의 짧은 세월에만 국한되고 영원한 미래를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여하한 사업 설계나 인생의 계획도 결코 건전하다거나 완전할 수 없다. 청소년들에게 영원을 계산에 넣도록 교육을 시키라. 그들로 하여금 원칙을 택하고 영원한 재산을 구하도록, 다시 말해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 보물을 자신들을 위해 쌓으며,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 그 불의의 재물들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눅 12:33, 16:9) 영접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라”(교육, 145).

3 우리는 어떻게 하늘에 보화를 쌓을 수 있는가?

참고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하늘을 지향하며 하는 모든 투자는 하늘에 대한 투자가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식료품점에 가서 어떤 식품을 고를 때 그것은 하늘을 위한 투자다. 우리가 선택하는 오락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건설한다. 우리 자녀들을 교회 학교에 입학시킬 때 그들의 영원한 복지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투자한다. 더 생산적인 기술을 얻기 위해 대학에 갈 때 우리는 더 많은 소득을 얻어 우리 가정에 더 큰 기회를 공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많은 것을 드릴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십일조와 헌물을 드릴 때 우리는 하늘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4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는 말씀이 사실인 이유는 무엇인가? 설명하라.

참고 “보물이란 그것의 고유 가치와 상관없이 사람이 마음을 두고 있는 어떤 것을 가리킨다. 어린아이의 “보물”은 본질적으로 거의 가치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에게는 왕의 몸값처럼 큰돈을 의미할 수 있다. 사람의 진정한 관심은 자신의 “보물”이 있는 곳에 있다”(SDA 성경주석, 마태복음 6:21).

»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렁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잠언 6:6~8).

5 저축과 투자에 관련된 이 본문에서 당신이 알게 된 원칙을 적어 보라.

참고 우리는 스스로 모든 일을 멀리까지 내다보며 풍요로운 현재에 혹 닥칠 수 있는 어려운 때를 위하여 저축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6 왜 성경은 우리에게 개미를 보라고 하는가?

참고 “개미들이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짓는 집들은 그들의 솜씨와 참을성을 보여 준다. 그들이 조작할 수 있는 것은 한 번에 겨우 흙 알맹이 하나 정도이지만 그들은 인내와 근면으로 기적을 이루어 놓는다. 솔로몬은 개미의 근면성을 세상에 제시하여 몸과 마음을 썩게 하는 습관과 헛된 게으름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책망이 되게 하였다. 개미는 장래를 위해서 준비한다. 이것은 이성적 힘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교훈이다.”(원고 35, 1899)

7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는 표현에서 어떤 교훈을 깨닫게 되는가?

참고 개미들은 모든 과정을 감독하고 각자에게 할 일을 지시하지 않아도 완전한 질서와 협력 아래 공동 생활을 영위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의 필요를 채워 주는 것처럼(시 145:15, 16), 개미들의 필요도 충족시켜 주신다. 그러나 개미는 스스로 창고를 짓고 그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모은다(참조, SDA 성경주석, 잠언 6:7).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누군가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 각 사람에게에는 자기결정권이 있으며, 그러므로 또한 자신의 결정에 따르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

»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

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잠언 21:20~21).

8 이 본문에서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해 보라.

참고 이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지 혹은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구분하고 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사람을 말한다. 귀한 보배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공의와 인자를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이다. 미련한 사람은 보배를 얻으려고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 공의와 인자를 행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목표한 바를 성취하지 못한다.

9 “공의를 따라 구하는 것”은 저축 계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참고 “여기서 지적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자와 공의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정직하고 인정 많게 거래하는 사람이다”(SDA 성경주석, 잠언 21:21).

10 저축은 오늘날 당신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참고 저축은 재정적 성장과 번영의 비결이다. 재정적 안정을 위하여 저축 항목은 예산에서 음식이나 교통, 주거, 기타 항목처럼 꼭 필요한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 저축의 목적은 “어려운” 때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응급 상황을 의도적으로 일으키지는 않지만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은 세울 수 있다.

»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마태복음 25:14~30).

11 ▶ 투자는 성경의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가? 설명하라.

참고 여기서 예수께서는 “타국에” 간 주인으로 등장하신다. 그분은 우리 각자에게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주시고 그것으로 장사하라고 명하신다. 장사는 투자의 한 방법이다.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 둔 종에게는 적어도 그 달란트를 은행에 맡겨야 했다고 한다. 은행은 그렇게 맡겨진 돈을 갖고 수익성이 좋은 회사에 투자하여 이익을 남긴다.

12 ▶ 이 비유가 주는 기별은 무엇인가?

참고 “게으른 종은 달란트를 받아들였으며, 그렇게 한 것은 그것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그는 잘되지도 않을 사업을 감행하면 이윤을 남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투자된 자본까지도 잃을까 봐 두려워했다. 그는, 모든 이익은 주인에게 돌아가고, 손해는 모두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돌려질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그와 관련된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려 하지 않았고, 더 큰 기회가 주어지면 책임을 받아들일려고 생각했다”(SDA 성경주석, 마태복음 25:25).

13 어떤 사람들은 투자를 도박에 빗댄다. 정당한 비교인가? 설명하라.

참고 도박은 운을 잡는 것 혹은 불확실한 결과에 돈을 거는 것으로 정의된다. 투자는 금융상의 수익금을 얻기 위해 돈을 맡기는 것이다. 또한 미래의 수익/이익을 위하여 지출하는 것이다. 모든 형태의 도박은 어떤 이성적이고 지적인 기초가 전혀 없이 다만 수익금을 취하리라는 희망으로 당신의 돈을 위험에 맡기는 것이다. 도박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잃는다. 우량 회사의 증권을 사는 것과 복권을 사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14 주인의 이익을 위하여 투자한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의 말이 주어졌는가?

참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 “밭을 살펴 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잠언 31:16~18).

15 왜 밭을 샀다고 당신은 생각하는가?

참고 “번 돈은 현명하게 땅을 사는 데 사용하고 그 땅을 개간하고 포도원을 만듦으로써 가치가 상승한다. 이와 같이 그의 원 소득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사업에 투자되지만 아무도 고통은 받지 않는다. 그의 이득은 다른 사람의 손실로 얻

어지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훌륭한 경영으로 새로운 부를 얻는다.”(SDA 성경주석, 잠언 31:16).

16 투자란 잠재적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자금 관리로 정의된다. 이 투자에는 어떤 함정이 있는가?

참고 우리는 항상 만일 우리가 어떤 괜찮은 투자처를 찾을 수 있다면 저축을 크게 늘릴 수 있고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유혹을 느낀다. 안전한 투자처에서 5% 이하의 수익을 얻고 있는데, 누군가가 따라와서 25%의 수익을 약속하며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투자자들”과 거래해 큰 돈을 잃는다면 정말 참담한 일을 겪게 된다.

17 이 여인은 훌륭한 사업가이다.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참고 “질서 정연한 동방의 가정에는 등불이 밤 동안 내내 밝혀졌고 재난의 때에만 꺼졌다”(SDA 성경주석, 잠언 31:18).

»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전도서 11:1~2).

18 이 본문은 투자를 다각화하는 것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참고 이 본문은 “아마도 사업 활동을 한 분야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그것을 다양화시키고 여러 개의 모험적인 사업에 자본을 투자하라는 권고일 것이다. 윤리적인 면에서 이 말이 암시하는 바는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라는 것이다”(SDA 성경주석, 전도서 11:2).

19 ▷ 다각화의 유익점은 무엇인가?

참고 투자에는 어느 정도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한 곳에만 큰돈을 투자할 경우에만일 투자한 그 사업이 부도나 경영난에 빠질 경우에는 나의 투자금을 잃을 위험이 있다. 여러 곳에 투자하게 되면 그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20 ▷ 당신의 투자 계획 속에 어떤 종류의 도덕적 선택이 들어가야 하는가?

참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기술(선천적 및 후천적)을 사용하여 탁월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일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십일조와 헌물을 돌려 드리고, 그러면 그분은 그들을 축복하신다. 이러한 순환은 자동적으로 계속하여 반복된다. 고린도전서 10:31은 이러한 개념을 한 데 묶고 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잘하였도다”라는 말은 자신의 돈을 그리스도인 방법으로 관리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칭찬이다(마태복음 25:21 참조).

»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신명기 8:18). (10과에서 발견한 정보를 참조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라.)

21 ▶ 저축과 비축의 차이는 무엇인가?

참고 저축은 주택 보증금, 신차 구입, 자녀 교육을 위한 저금, 은퇴를 위한 투자 같은 특별한 목적을 위한 것이다. 한편 비축은 안전을 위한 것이다. 안전이 저축의 목적이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돈이 결코 충분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비축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마음이 우리가 가진 돈으로 옮겨 가는 것이다. “비축해 둔 부는 쓸데없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의 저주다. 그 재산은 이생에서 사람들에게 올무가 되어 그들의 애정을 하늘 보물에서 멀어지게 한다. 하나님의 큰 날에 사용하지 아니한 달란트와 등한히 한 기회가 그것을 소유했던 자들을 정죄할 것이다”(실물교훈, 351~352).

22 ▶ 얼마면 충분한가?

참고 대부분의 재정 전문가들은 저축에 있어서는 3~6개월간의 지출 수치를 제시한다(다른 사람들은 6~9개월간의 지출 수치를 제시하지만). 이는 해고가 발생한 후 새로운 일을 찾기까지는 좀 더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소한 6개월 분의 생활비를 응급 시의 사용 자금으로 비축하고 있도록 권고한다. 한편, 저축과 투자 종목에 한도를 정할 것을 제안한다. 은퇴 후 예상 지출에 기초하여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난 후 이러한 필요를 공급할 만큼 저금이 되었을 때 더 이상의 저축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베풀고 투자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재정상담가요 저술가인 론 블루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사람들에게 결승선을 정하도록 제안한다. 소득과 부에 맞추어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라. 최대치를 정하라. 상한선을 정하라. 당신의 생활양식의 한도를 결정하라. 이 일을 미리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 이유는 우리의 소득과 부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는 그 돈을 쓰거나 저축하거나 투자하는 등 끝없이 사용처를 찾기 때

문이다. 이것은 결승선을 더 뒤로 물리게 한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이 얼마면 충분할지를 결정하는 일은 공식이라기보다는 초과분을 축적하지 못하도록 막는 경비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론 블루, Splitting Heirs, 100).

23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시지 않으시는가?

참고 “어떤 이들은 이 세상에서 백 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이생에서 백 배를 받지는 못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것이 맡겨졌다면 저희는 지혜롭지 못한 청지기가 되었을 것이다. 주께서는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막으신다”(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232~233).

»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마태복음 19:21~23, 참조 19:16~30).

24 예수께서는 왜 그 부자 청년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요구하셨는가?

참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쓸 돈이 혹 부족하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그들은 항상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좀 더 갖고 있

어야 한다고 느낀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종종 일생 동안 기부하는(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러한 사람들의 위험은 하나님보다 은행에 예치해 둔 계좌를 의지하여 더 비축해 놓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25 ▶ 청년은 신실한 질문을 드렸고 예수께서는 솔직한 답을 주셨다. 왜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갔는가?

참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법관의 주장은 기만이었다. 그는 재산이 자기의 우상임을 보여 주었다. …그는 하나님의 선물을 그 주신 분보다 더욱 사랑하였다. 그리스도는 청년에게 당신과 친교를 맺도록 제의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구세주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의 이름이나 재물만큼 귀중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하늘 보화를 위하여 보이는 그의 세상 재물을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 큰 모험이었다”(시대의 소망, 519~520). “이 청년 자신도 그리스도를 훌륭하게 보았고 그의 마음도 그리스도께로 이끌었으나, 그리스도의 자아 희생의 원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예수님보다 재물을 선택했다. 그는 영생을 원했으나 그의 심령 속에 생명이 되는 이기심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근심하면서 그리스도를 떠나갔다”(실물교훈, 393).

26 ▶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가?

참고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고전 6:19, 20)다고 한 성령의 말씀은 가난한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부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다. …그들은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이 위탁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곤궁에 빠진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그것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사용해야 한다. 사람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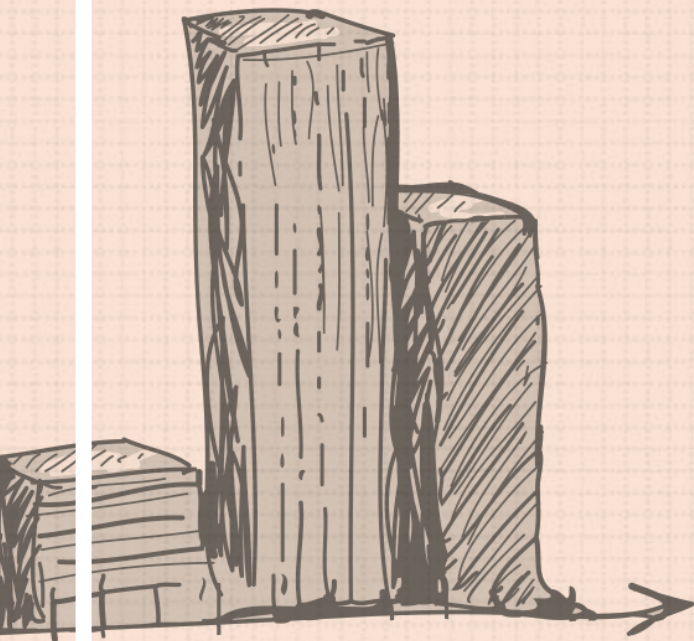
이 세상 재물에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물의 신을 섬기는 일에 얽매인 자들은 도와 달라는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실물교훈, 394).

27 ▶ 부자 청년은 무엇을 포기했는가?

참고 “그는 하늘의 보화를 원하였지만 그의 재산이 가져올 현세의 유익도 원하였다. 그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음을 슬퍼하였다. 그는 영생을 원하였으나 가까이 희생하려고 하지 않았다. 영생의 값이 너무 큰 것처럼 생각되고 “재물이 많으므로” 그는 슬퍼하면서 떠나갔다. …그는 영생을 주시겠다는 제의를 거절하고 떠나갔다”(시대의 소망, 520).

유산과 재산 분배 계획

사람들은 은퇴하기까지 소득을 얻기 위해 일하는데 이는 가족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후원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베풀기 위함이다. 나이가 들어 가면서 상황의 변동에 따라 관점도 변화된다. 이때의 재정 계획은 자산의 축적에서 자산의 분배에 집중된다.



유산과 재산 분배 계획

전도서 2:21,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 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유언장과 신탁을 포함한 재산분배 계획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에게 유용하다. 신탁은 세금의 이점 이외의 목적, 가령 자녀들을 위한 후견인을 선택하거나 개인의 재산을 둘러싼 가족간의 다툼을 피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서류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여유가 있다.

재산 분배 계획이란?

재산 분배 계획은 어떤 사람이 살아 생전 혹은 사망 시에 재산을 집행하고 처분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재산 분배 계획에는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 첫째는 일, 구매, 저축, 투자 그리고 보험 등을 통하여 재산을 형성하는 일이다. 둘째는 자산을 이전하고 분배하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 있는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후원함으로써 그 자금이 사용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 사망 시의 분배는 그 남아 있는 자산에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자산이란 사망 시에 남겨 놓은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자산이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개념이다. 넓은 의미에서 재산 분배

계획이란 용어는 재산의 축적, 보존과 분배를 포함한다. 재산 분배 계획을 세우는 모든 과정은 그 전반적 목적이 개인과 그 가정의 재정적 안전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함이다. 재산분배 계획을 통해서 은퇴 후 삶에 재정적 안전을 제공하고 사망 시 재산을 의도한 대로 적절하게 처분하기에 용이하게 된다. 분배 과정에서 재산의 일부를 이전하고 사망 시에 세금, 유언장 검인 비용, 다른 관련된 지출을 최소화된다.

청지기 직분의 최고의 행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소유주이시기 때문에(사무엘상 24:1)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삶을 마쳤을 때 한 때 우리를 의지하던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남은 자산을 그 정당한 소유주이신 분께 되돌려 드려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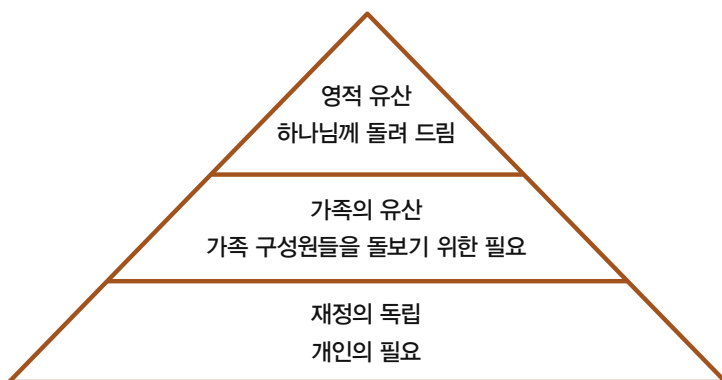
만일 재산의 소유자가 재산 분배 계획을 이행할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세운 계획에 따라 혈족 관계를 기초로 재산 분배가 이행된다. 유언장 없이 죽은 사람은 무신론자로 간주되고 가족이나 친구, 혹은 하나님의 사업이나 자선 단체와 같은 잠재적인 수혜자들에게 거의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되어 비록 그 사람이 충실하게 십일조를 드리고 사는 동안 너그럽게 베풀었다고 할지라도 재산을 교회나 자선 단체에 조금도 남기지 못한다

재산 분배 계획의 절차

우리는 매우 간단한 재산 분배 계획 절차를 추천하고자 한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1) 당신의 여생에 필요한 것들-재정적 독립; (2) 가족 구

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가족의 유산; (3) 하나님께 돌려 드릴 부분-영적 유산 이 그것이다. 이것은 아래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이 개념은 스코트 C. 피씨안의 “가치에 기초한 재산분배 계획”을 개작한 것이다.)

그림-XYZ



재산 분배 계획을 더 간단히 세우려면 가족들이 먼저 자신들의 필요, 우선순위, 목표를 정해야 한다. 현 시점의 대차 대조표를 보고 가정의 필요를 검토한 후 자선사업에 우선순위를 둘 때에 이 일이 가장 잘 성취된다. 일단 자산 목록을 적고, 가족의 필요를 검토하고, 자선 사업에 우선순위를 매기면 당신은 자산 분배 계획을 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먼저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끝으로 그 계획을 이행하라. 이런 정보를 통해 가족의 사명 진술을 마련할 수 있다. 유언장은 자산이 어떻게 분배되기를 원하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준다. 사명진술은 왜 이러한 결정을 했는지를 말해 준다.

많은 사람들은 재산분배 계획이 완성되면 얼마 있지 않아 죽는다는 옛 관념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진실은, 재산 분배 계획을 세워 놓

고 죽을 때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곤경에 빠뜨리지 않고 준비된 상황에서 죽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 재정적 독립(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킴)

당신의 가족이 은퇴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돈을 필요로 하는지를 결정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일을 통해 재산 중에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다. 일단 은퇴 소득을 정하게 되면 비상 상황에 대비한 준비금을 갖게 되고 건강 관리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떼어 놓았기 때문에 가족의 필요를 돌보고 하늘에 보물을 쌓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재정적 독립은 재산 분배 계획의 기초이다. 모든 것을 다 줄 수는 없다. 개인적인 필요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가족 유산(가족 구성원들의 필요를 충족시킴)

재산 분배 계획 피라미드의 두 번째 영역은 감정적인 면과 가장 많이 관련되어 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은 부모가 죽을 때 자녀들이 부모의 자산을 동등하게 나눠 가져야 한다는 관념을 갖고 성장한다. 여기서 우리는 자녀와 유산에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성년 자녀들

미성년 자녀들이란 적어도 음식, 의복, 안식처와 교육 등의 부분에서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는 자녀들이다. 미성년 자녀들이 재산 분배 계획에 있어서 주목의 주요 대상이 되어야 한다. 가정의 전반적인 재산 분배 계획에서 미성년 자녀들은

그들이 부모나 후견인에게서 독립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는 계속하여 돌봄을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인 부모의 목표는 자녀를 독립된 성인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여기에 그들의 대학 교육을 포함시키도록 제안한다. 자녀들은 돈의 사용과 가치 그리고 돈 관리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 예를 들면, 자녀들이 대학을 이미 마쳤거나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때에, 혹은 부모가 90대요 자녀들은 60대(혹은 그 이하)일 때 그 자녀들에게 현금 유산을 받을 것인지 물어볼 수 있다. 만일 더 이른 시기에 유산을 현금으로 받게 되면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빚 없는 생활을 할 수 있고 대학원이나 다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상금을 가질 수 있다.

미성년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은 자녀들의 개인적 필요, 교육, 후견인의 권한 등을 위하여 서류 작성을 통하여 준비해야 한다. 자녀들이 성숙하고 독립하게 되면 부모들은 재산 분배 계획을 수정하여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성인 자녀들

성인 자녀들에게 돈이나 다른 자산을 남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성경은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는 일에 대하여 상충되는 듯 보이는 언급을 남기고 있다(전도서 2:21; 잠언 13:22). 그러나 그 문제는 실제로 아주 간단하다. 구약 시대에 자녀와 손자, 손녀에게 땅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는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를 수가 없었다. 많은 사람들은 호구지책의 수준에서 살았다. 대부분은 너무 가난해서 땅을 살 수 없었다. 유산이 없으면 그들은 노예가 될 것이며 정상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그 소유물을 의지하며 살았던 부모와 조부모를 봉양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상황은 아주 다르다. 대개 부모와 따로 살면서 자신의 직업을 갖고 재정적으로도 독립하였고 자신들의 필요를 스스로 공급할 수 있을 만큼 이미 충분히 갖고 있는 자녀들에게 부모의 유산이란 예기치 않은 횡재에 지나지 않는다. 성경이 유산의 성격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주목해 보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잠언 22:1). 가치가 유산이 될 수 있는가? 부모들은 이러한 가치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 정직, 정의, 공정함과 같은 윤리적 가치
- 겸양, 충성심, 충실함과 같은 개인적인 가치
- 동정심, 친절, 관대함과 같은 정서적 가치
- 훌륭한 시민 의식, 재정에 대한 책임감, 검소함, 선한 청지기 직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영적 헌신, 시간 엄수, 능력, 건강, 다른 사람들을 돌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냄, 교육에 대한 사랑, 자기 향상, 그리고 학문적 성취 등

이러한 가치들은 얼마나 훌륭한 유산인가! 이러한 가치들은 자녀들이 책임감을 배우며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게 한다. 성년 자녀들은 대부분의 경우 자신들의 경제적 안전을 이끌어 내고 유지해야 할 일차적 책임을 갖고 있다. 피시안은 “돈은 남기지 않고 가치들을 물려주는 것은 수용할 만한 일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아주 잘 관리할 것이다. …가치들을 제대로 계발하지 못한 상속자들에게 돈을 남겨 주는 일은 시끄러운 문제를 불러들이는 것이다.”라고 말한다(가치에 기초한 재산분배 계획, 70).

엘렌 화잇은 각 개인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탁하신 것에 대하여 청지기로서의 책임이 있음을 보여 주는 유사한 진술을 하였다.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만일 그들에게 고생하며 가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리고 공정하게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러한 이들은 참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풍부하게 살면서 믿지 않는 세상을 섬기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들이 단지 자기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그 손에 재산을 남겨 준다면 그 부모들은 그들을 당신의 청지기로 삼으신 주님께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다”(교회증언, 3:121).

돈 관리에 관한 성경적 원칙을 배우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각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주이시며 우리는 그의 청지기들이다. “당신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분의 자원을 맡은 청지기이다. 당신은 자녀들의 자원을 맡은 청지기가 아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돈을 어디에 기부하고 어떻게 쓰든지 간에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책임이 없다. 당신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다”(Splitting Heirs, 87).

엘렌 화잇은 자산 분배에 관한 이 중요한 주제에 관하여 두 장 전체를 할애해 기록하였다. 이 주제를 상세하게 연구해 보면 매우 흥미를 느끼게 될 것이므로 이 두 장을 연구하기를 제안한다. 그것은 교회증언 3권 116~130쪽, “(나이든) 부유한 부모들에게”와 교회증언 4권 476~485쪽, “유언장과 유산”에 있다.

엘렌 화잇은 가정의 자산 분배와 관련하여 성인 자녀들 및 결혼한 자녀들과 그들의 부모들에 대하여 언급한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서 자신들 보다는 하나님의 사업에 대하여 흥미와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볼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재물의 달란트를 그들에게 위탁하는 일을 크게 두

려워해야 한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스스로 얻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재산을 그들에게 남겨 줌으로써 그들 앞에 유혹을 두어서는 안 된다”(교회증언, 3:118, 122).

“만일 부모들이 자신들이 살아 있는 동안 자녀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죽을 때에 많은 것을 남겨 주는 것보다 훨씬 낫다. 대개 자기 자신의 노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녀들은 선량한 남녀들이 되며, 그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들보다도 실제 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상동, 122~123).

자녀들이 유산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알기를 원하면 현재 자녀들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유심히 살펴보기만 하면 된다. 그것은 그들이 물려받은 돈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보여 주는 좋은 지표가 된다. 기억해 보라. 자녀들은 당신이 돈을 관리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돈을 관리하던 방식으로 당신의 돈을 관리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들은 그들의 성인 자녀들에게 남겨 주는 돈의 액수가 적당한지를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한다. 필요에 기초하여 구체적이어야 하고,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하고, 그들의 가치와 조화되어야 한다.

■ 영적 유산(하나님께 돌려 드림)

일단 재정적 독립을 달성하고 자녀들의 필요가 충족되면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영적 유산을 위하여 남아 있는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다.

재정 분배 계획 피라미드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조각에서는 우리의 영적 유산, 즉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 드리고 하늘에 쌓아야 할 유산의 몫을 취급한다. 타인을 돕거나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에 기여할 때에 이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이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

임을 말해주는 창세기 1:1 및 시편 24:1과 같은 성경 말씀에서 그 지도 원리를 찾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마친 후에는 그분께 그 남은 것을 되돌려 드려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결론이다. 놀라운 점은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시편 50:1, 2) 우리가 그분께 되돌려 드리는 것을 우리의 계정에 두신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영적 유산 결정

일단 하나님께 돌려 드릴 재산이 정해지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 일을 실행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 일은 지금 살아 있는 동안에 할 것인가, 아니면 사망 후에 유언장에 따라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 현재 드리면 많은 이점이 있다. 예를 들면,

- 기부자는 실제로 기부의 결과를 볼 수 있다(교회 건축, 젊은이의 대학 입학, 복음전도회 개최 등).
- 목사나 개인은 가장 필요한 때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당신이 죽은 후 가족이나 친구들 간에 분쟁이 없다.
- 관대함과 타인에 대한 사랑 등 가족의 가치에 관련한 훌륭한 선례를 남긴다.
- 증여세를 최소화한다.
- 당신이 원하는 기관에 기부금이 지원된다(법정이나 기분이 상한 친척의 참견이나 방해가 없다).
- 그것은 기부자의 마음이 이기심을 극복하고 사심 없는 마음으로 변화되었음을 나타내어 준다.
- 그것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다.

만일 단순히 죽을 때가 되어서 자선을 하게 되면 위에 나열된 축복들을 놓치게 된다. 덧붙여서 론 블루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나의 신념은 당신이 사망 시에 드러지는 자산으로는 영원한 상금을 조금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당신은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것을 남기는 것이다! 당신이 생애 내내 갖고 있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 할 수 없이 드린 것을 갖고 상금을 받을 수 있겠는가?”(Splitting Heirs, 103) 엘렌 화이트도 동일한 우려를 표명한다. “죽을 때에 유산을 남긴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양심을 잠재운 사람들은 주인으로부터 아무런 칭찬의 말을 듣지 못할 것이며 어떤 상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자아 부정을 실천하지 않았으며, 할 수 있는 한 이기적으로 그들의 재산을 붙들었으며, 죽음이 그것을 요구할 때에야 비로소 그것을 포기하였다. 만일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지체하는 그 일을 그들의 생명이 아직 견재할 때에 실행했어야 했다”(교회증언, 4:480).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으며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기부한 그것 때문에 주어지는 혜택을 받는다. 우리는 기부 연금으로 은퇴 소득을 늘리고 종신 부동산을 통하여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계속 살 수 있다. 이 두 가지 경우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역을 위하여 기여하고 당신이 필요로 하는 동안 계속하여 그 자산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 재정 고문

빚에서 벗어나기 위한 계획, 장래를 위한 계획 그리고 자녀 훈련 등 이 교과들을 연구하는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돈 관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재정적으로 충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목사나 다른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교인에게 그 재산의 사용과 처분에 대하여 관여하여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가서 재산분배 계획의 문제를 꺼내는 일을 주저하게 된다. 그러나 이 문에 대하여 우리가 받은 영감의 권면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 있어서 불필요하게 신중을 기한다. 그들은 노인들이나 병자들에게 그들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를 알기 위해 재산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할 때 자신들이 금지된 구역에 들어가는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이 의무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같이 신성한 의무이다”(상동, 4:479).

그렇다면 그들의 재산 분배 계획을 돕기 위하여 누가 이 가정과 접촉할 것인가? 진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즉 헌신하는 그리스도인 일꾼이다.

왜 유언장인가?

유언장이나 신탁과 같은 유언 관련 서류들은 일찌감치 재산 분배 계획서와 함께 갖추어 불시의 사망 시 유언장으로서 효력을 갖도록 하고 사망 전에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던 것을 정리하게 한다. 유언장은 적절히 입안되고, 자격을 갖춘 사람의 날인이 있고, 이해관계가 없는 당사자들의 증언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유효한 유언장은 재산 분배 계획의 좋은 출발점이 되지만 그 유언장은 정기적으로 검토되어 수정되어 재산 소유자의 최근 의향이 사망 시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수정의 사유에는 자녀의 출생이나 입양, 배우자의 이혼이나 사망, 다른 지방으로 주거지 변경,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변동 등이 포함된다.

죽은 후에도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일은 계속됨

만일 우리가 주님이 돌아오시기 전 잠들어야 한다면, 복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며, 재산 분배 계획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죽은 후에도 그 사업이 계속될 것을 알고 만족할 수 있다. 큰 지혜와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나이 많고 연약한 사람들이 죽어 환란의 시기에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 더 연로한 그룹은 매우 큰 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만일 적절하게 상담을 받는다면 이러한 자산을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서 위대한 복음 사명을 마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사람들이다.

엘렌 화잇은 1902년 1월 3일에 길버트 콜린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나의 형제여, 그대는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대는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까? …그대의 생명이 다한 후에도 그분의 사업을 수행해 나아가는 것은 그대의 특권입니다. …그대가 이 일을 한다면 그대의 갑옷을 벗도록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대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요한계시록 14:13)고 지시하신 이 말씀의 예증이 되실 것입니다”(MR, 4:320).

우리는 당신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당신 자신이 집행자가 되어 당신이 살아 있는 동안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 드리게 되길 기도한다. 그러면 마지막 회계 보고(청지기 직분의 최고의 행위)에서 다시금 당신의 책임을 신실하게 다하게 될 것이다.

심화 연구

» 이 과를 읽고 묵상하라.

1 재산 분배 계획의 주요 두 부분은 무엇인가?

참고 재산 분배 계획은 살아 있는 동안 및 사망 시의 재산을 집행하고 처분하는 일을 포함한다.

2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유언을 하지 않은 채 죽는가? 왜 당신은 이 사람들이 유언장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가?

참고 70퍼센트에 가까운 미국인들이 유언장 없이 죽는다. 그리고 실제로 재산 분배 계획을 세운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가족 휴가를 계획하는 데에 보내는 시간보다 더 적은 시간을 재산 분배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할애한다.

3 만일 당신이 유언장 없이 죽는다면 당신의 소유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참고 제대로 작성되고 공증된 유언장이 없으면 비록 그 사람이 충실하게 십일조를 드리고 사는 동안 너그럽게 베풀었다고 할지라도 재산을 교회나 자선 단체에 조금도 남기지 못한다. 또한 친척이 아니면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고인으로부터 아무 것도 상속받을 수 없다. 게다가 상속받을 친척마저 없으면 그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유언장 없이 죽은 사람은 가족이나 친구, 혹은 하나님의 사업이나

자선 단체와 같은 잠재적인 수혜자들에게 거의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다.

4 만일 당신이 죽을 때 유연장이 없다면 그 상태에서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전제하겠는가?

참고 유연장 없이 죽은 사람은 무신론자로 간주한다.

» 재정적 독립에 대한 당신의 목표를 묵상하라.

5 은퇴 후 당신은 어떤 소득원을 갖게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참고 국민 연금, 퇴직 연금, 저축, 은퇴 연금, 시간제 일, 배우자의 연금, 주택 담보 등

6 현재의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당신에게 의존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러한 필요는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 (개인의 이름을 적어보라.)

참고 개인적으로 적게 하되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하라.

7 만일 현재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여유가 있다면 어떤 조직, 개인, 혹은 사업을 후원하고 싶은가?

참고 개인적으로 말하게 하라.

- » 재산 분배 계획 양식을 작성하라.
- » 당신의 중요한 문서가 있는 위치를 정하고 그 문서들이 양식 #7에서 어느 곳에 있는지 살피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
- » 당신의 재산 분배 계획에서 고려해야 할 항목을 요약한 양식 #7을 완성하라.
- » 당신의 자산 분배에 관하여 묵상하라.

8 ▶ 당신이 아직 살아 있는 동안 드리게 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가?

참고 (1) 기부자는 실제로 기부의 결과를 볼 수 있다(교회 건축, 젊은이의 대학 입학, 복음전도회 개최 등). (2) 목사나 개인은 가장 필요한 때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당신이 죽은 후 가족이나 친구들 간에 분쟁이 없다. (4) 관대함과 타인에 대한 사랑 등 가족의 가치에 대한 훌륭한 선례를 남긴다. (5) 증여세를 최소화한다. (6) 당신이 원하는 기관에 기부금이 지원된다(법정이나 기분이 상한 친척의 참견이나 방해가 없다). (7) 그것은 기부자의 마음이 이기심을 극복하고 사심 없는 마음으로 변화되었음을 나타내어 준다. (8) 그것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다.

9 ▶ 당신이 기다렸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 자선을 한다는 것은 왜 나쁜 생각인가?

참고 “나의 신념은 당신이 사망 시에 드러지는 자산으로는 영원한 상금을 조금도 얻

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당신은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는다. 당신은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것을 남기는 것이다! 당신이 생애 내내 갖고 있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 할 수 없이 드린 것을 갖고 상급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금 보여 준 희생과 믿음, 지금 이생에서 행한 사심 없는 행동에 대하여 후일에 상급을 주실 것이다”(론 블루, Splitting Heirs, 103).

10 ▶ 다음 세대로 전달될 만한 가족의 가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참고 (1) 정직, 정의, 공정함과 같은 윤리적 가치 (2) 겸양, 충성심, 충실함과 같은 개인적인 가치 (3) 동정심, 친절, 관대함과 같은 정서적 가치 (4) 훌륭한 시민의식, 재정에 대한 책임감, 검소함, 선한 청지기 직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영적 헌신, 시간 엄수, 능력, 건강, 다른 사람들을 돌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냄, 교육에 대한 사랑, 자기 향상 그리고 학문적 성취 등

11 ▶ 부모들은 자녀들이 독립된 성인이 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사망 시에 큰 돈을 그들에게 남기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더 나은가?

참고 “부모들이 저들의 자녀들에게 남겨 줄 수 있는 최선의 유산은, 유용한 노동에 대한 지식과 사심 없는 자선으로 특징 지워진 생애의 모본이다. 그러한 생애를 통하여 그들은 돈의 참가치를 깨닫게 된다. 돈은 오로지 자신의 부족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의 사업을 추진하여 성취되는 선을 이룰 때에만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교회증언, 3:399).

재산 분배 계획 정보 요약

1. 세금 납부 기록, 보험 약관, 투자 서류, 계약서, 담보 대출 등과 같은 재정 관련 서류를 나열하고 그것들을 어디에 두었는지 말해 보라.
2. 당신은 안전한 금고를 갖고 있는가? 열쇠는 어디에 있는가?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3. 당신의 출생증명서, (결혼했다면) 결혼증서, 여권을 둘 곳을 정하라. 각각의 위치를 살펴보라.
4. 당신이 갖고 있는 각 보험(생명, 건강, 자동차, 책임보험 등)의 계약 시 보험 설계사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 보라.
5. 당신은 최근의 유언장을 갖고 있는가? 그 복사본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가? 당신의 변호사의 이름과 주소를 기록하라.

6. 당신의 유언장 집행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록하라.

7. 현재 당신이 갖고 있는 재산 목록과 그것들의 현재 가치를 알고 있는가? 당신은 보험 용도의 가족 물품 명세서를 갖고 있는가? 이것과 대차 대조표는 이 과업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 재산 분배 계획 용도의 부채와 법적 채무를 나열해 보라. (이 목적을 위하여 별도의 종이를 사용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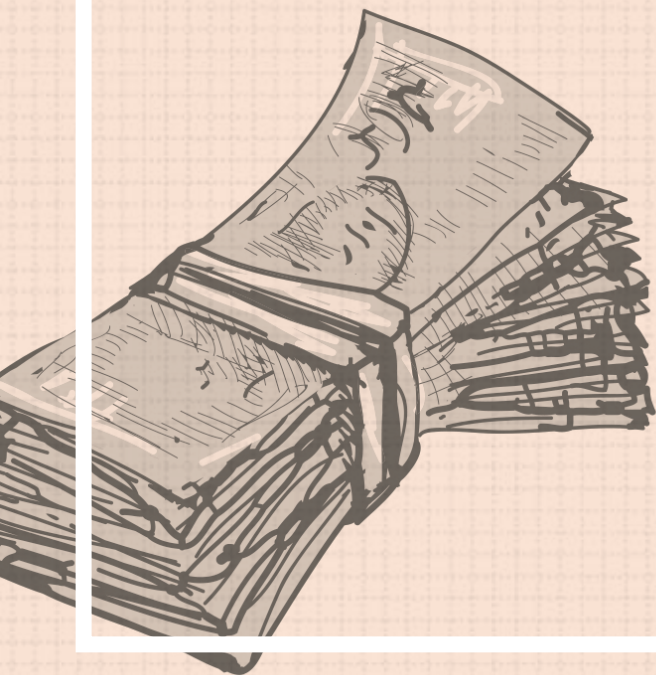
8. 당신이 죽었을 때 어떤 종류의 장례식을 치르기 원하는지 생각해 보았는가? 그렇다면 관련된 사람들, 음악, 기념품 등에 관해 당신이 생각한 것들을 적어 보라.

9. 당신의 가족이나 집행자가 알아야 할 매장 방식에 대하여 결정하였는가? 정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10. 당신의 가족들이 알고 있어야 할 신탁이나 기타 서류들을 갖고 있는가? 그것들은 무엇인가?

재정적 충실에 대한 보상

하늘의 법칙을 따르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무엇인가? 이생에서의 평화, 개인의 행복, 더 적은 스트레스, 가정생활의 질이 향상됨, 결혼 생활의 안정, 그리고 직업상 더 높은 수준의 성공,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음으로 갖는 기쁨, 하나님의 사업을 후원한다는 만족감 그리고 예수의 재림의 복된 소망이 그것이다.



재정적 충실에 대한 보상

마태복음 25:21,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보상에 대한 성경의 관점

성경은 충실한 삶(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에 대한 동기로서 보상에 대한 희망을 사용한다. 시편 19편의 다음 부분은 이러한 개념을 도입한다.

“여호와와 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와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와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와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와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시편 19:7-11, 강조 첨가)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보상은 무엇인가? 인생에서의 평화(이사야 26:3; 시편 119:65), 개인의 행복, 더 적은 스트레스, 가정 생활의 질이 향상됨, 결혼 생활의 안정, 그리고 직업상 더 높은 수준의 성공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음으로 갖는 기쁨에다 하나님의 사업을 후원한다는 만족감과 예수의 재림의 복된 소망을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엘렌 화잇은 1897년 12월 14일 자 <리뷰 앤드 헤럴드>지(誌)에서 “그리스도인의 관대함”이라는 기사를 썼는데 거기서 그녀는 젊은 부자 법관과 모세를 대조시켰다. 그런 다음에 그녀는 우리 각자가 유사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우리는 젊은 법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보화를 움켜쥐고 타고난 마음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백히 기대하시는바 우리의 소유물을 사용하기를 거절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의 자기 부정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수백만의 사람들은 젊은 법관의 선택을 반복하고 있다.”

모세는 애굽의 통치자가 되어 부와 안락한 삶을 누리기 보다는 고난과 역경을 당할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기로 결정했다. 왜 이러한 결정을 했을까? 그 이유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히브리서 11:24-26 참조). 모세는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세상의 부를 버렸다. 그러나 그가 포기한 것은 얻은 것과 비교하면 아무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행복한 거래이다.

상에 대한 바울의 견해

바울은 또한 난파선, 매 맞음 그리고 투옥 그 너머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린도전서 15:58; 3:8)고 격려하였다. 바울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사야서의 약속을 바라보고 고난 속에서 위로를 받았다(고린도전서 2:9). 그는 “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립보서 3:14)고 서약하였다.

하늘에 있는 우리의 계정

우리 각자가 하늘에 계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곳에 원장이 있다. 달란트의 비유는 이러한 사실에 통찰력을 준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새”(마태복음 25:14, 19).

엘렌 화잇은 이 문제에 흥미로운 진술을 부언한다. “하나님의 백성 중 다수가 세상 정신에 도취되어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신앙을 부인하고 있다. 돈과 집과 땅을 사랑하는 마음은 배양되어 그것은 마침내 정신과 존재 전체를 사로잡아서 창조주께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영혼에 대한 사랑을 내몰아 버린다. …그들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 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이다”(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209).

“그대가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치는 모든 것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가장 성공적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그대의 계정에 적립될 것이다” (상동, 342).

우리가 하늘에 쌓아 두는 보화가 “증가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구원받은 각 영혼은 한 달란트를 받은 것이다. 참으로 회개하였다면 진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 주신 영향력과 재물의 달란트를 사용하여 동료 인간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는 흑암과 오류 속에 있는 자들을 일깨우기 위하여 열성적으로 일할 것이다. 그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하여 영향력과 재물의 달란트는 계속해서 거래되며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주인이 오실 때에 … 충성된 종은 그의 일을 마치게 되는 것이며, 각 사람에게 그 일한 것에 따라서 줄 상을 갖고 계신 주인께서는 충성된 종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실 것이다”(교회증언, 2:660).

동기 부여와 관련한 다음의 진술을 주목하라. “오,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진 놀라운 희생을 묵상하자! 하늘이 잃은 자를 회복시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데려가기 위하여 사용된 수고와 에너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힘쓰자. 이보다 더 강한 동기와 더 강력한 대리자들이 주어진 일이 결코 없었다. 즉 하늘을 향유함, 옳은 일에 대한 크나큰 상급, 천사들과의 교제, 하나님과 그 아들과의 연합과 사랑,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능력이 고양되고 확장됨 등,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Bible Echo, 영문 시조, 1889년 2월 15일).

하늘의 보화의 증가

성경은 세 공관복음에 나오는 청년 부자 법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마태복음 19, 마가복음 10, 누가복음 18). 이 이야기에 대한 각 복음서의 묘사를 보면 예수님은 젊은 부자 법관에게 만일 그가 지상의 소유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면 하늘에서 그를 위한 보물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으로 인용되고 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다(마태복음 6:20).

우리는 우리의 보물과 하늘의 상급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그것에 대해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장래의 유산을 너무 지나치게 물질적인 것으로서 보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유산을 우리의 본향으로 생각하도록 이끌어 왔던 바로 그 진리를 영적인 의미로만 생각하여 왔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려 아버지의 집에 가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늘의 거처에 관하여 전혀 무지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그곳에는 지상의 나그네들을 위한 본향이 있다. 거기에는 영광의 면류관과 승리의 종려나무와 함께 의인들이 입을 두루마기가 있다. …이 지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속주의 영광과 함께 빛날 것이다.”(재림신도의 가정, 541~543).

안전은 어떤가

우리가 땅에 투자할 때 우리는 항상 마태복음 6:19의 설명처럼 위험에 대하여 염려하여야 한다. 우리는 심지어 이율과 관련하여 “비교 위험”을 말하기도 한다. 높은 이자를 약속할 때에는 항상 높은 위험을 동반한다. 그러나 하늘에 쌓는 투자

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사업에 참으로 관심을 느끼고 그 발전을 위하여 어떤 일을 용감히 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것이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세상에서 백 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늘에 있는 그들의 보화는 안전할 것이다. 이와 같은 투자는 얼마나 더 좋은가!”(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232-233)

우리 모두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시적 안전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들 경제 시나리오, 테러 행위들, 혹은 자연 재해를 상상할 수 있다. “땅에 쌓아 둔 모든 것은 한순간에 쓸려 갈 수 있다. 그러나 하늘에 쌓은 보화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Our High Calling, 195). 세상의 보화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들은 그들의 자산을 하늘에 있는 그들의 새집으로 이전시킬 것이다.

우리에게는 “내가 투자하는 이 사업이 크게 성공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사업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칠 거야.”라고 생각할 위험이 있다. 엘렌 화잇은 지상의 투자에서 많은 것을 잃은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그대는 불확실한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사탄은 그대의 눈을 멀게 해서 이런 사업이 그대에게 아무 이득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 영생을 보장하는 사업은 그대의 관심을 일깨우지 못하였다”(교회증언, 2:280).

얼마나 큰 보상인가!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일을 주목하실지 그리고 뜻뜻 미지근한 교회처럼 보이는 곳을 후원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미심쩍어한다. 다음에 주어진 중요한 답변을 주목해 보라. “나는 기록하는 천사가 창고에 들어가

는바 하나님께 바친 모든 헌물과 이렇게 바친 재물의 최후 결과에 대해서 빼놓지 않고 충실하게 기록하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업에 바치는 모든 푼돈까지, 또한 바치는 자의 자원하는 마음이나 혹은 주저하는 마음까지도 다 보시고 아신다. 또한 바치는 동기 역시 기록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희생적 헌물을 바친 자들은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다”(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21~222).

진실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은 매우 특별한 것이며 우리의 유한한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이상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주께서는 이루실 큰일을 갖고 계시며 그분은 이생에서 가장 충실하고 즐겨 봉사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것을 미래의 삶에 유업으로 주실 것이다”(실물교훈, 330).

그러나 상급을 공로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일찍이 소유한 유일한 공로는 우리를 위하여 제공된 예수님의 공로이다.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의 공로로 구원 받지 못한다. 영원의 상급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며 결코 사람에게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목사들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한 바에 따라 받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만 한다”(복음교역자, 450).

상급이 적절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순종의 주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순종은 “사랑으로 하는 봉사요 충성”이다(정로의 계단, 60). “우리는 모두 보상을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축복의 약속을 감사하는 한편 주께서 옳게 행하실 것이며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보상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지만 예수께서는 우리가 보수에 관해서는 너무 염려하지 않기를 바

라신다. 주께서는 우리가 얻게 될 이익에 관계 없이 단지 그 일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신다”(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339).

복음의 선한 청지기

위대한 스코틀랜드 출신의 아프리카 선교사인 데이빗 리빙스톤은 “나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관계 되는 것 외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가치를 두지 않겠다. 만일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촉진시킨다면 내가 그것을 간직하고 있든지 나누어 주든지 그분의 영광을 가장 증진시킬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주든지 갖고 있든지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충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바라는 모든 이들의 놀라운 삶의 목적 진술이 될 것이다.

엘렌 화잇은 이와 유사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 할 일로 삼으라.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내려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소서. 나와 같이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이것이 날마다 행할 일이다.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의 섭리가 가리키는 대로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날마다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본받아 점점 더 그렇게 닮아 가게 될 것이다”(정로의 계단, 70).

다음 진술도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청지기는 자신을 주인과 동일시한다.

그는 청지기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주인이 하였을 그런 방식으로 주인을 대신하여 그렇게 행하여야 한다. 주인의 관심사가 자기의 관심사가 된다. 청지기의 지위는 존엄한 것인데, 이는 그의 주인이 그를 신임한 까닭이다. 만일 어떤 경우이라도 이 기적으로 행동한다면, 즉 자기 주인의 돈으로 장사해서 얻은 이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그는 주인의 신임을 악용하는 것이다”(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113).

우리는 어떻게 선한 청지기가 되는가?

예수께서는 이 큰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무엇을 취하는 것인지를 아셨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지식에 비추어 성공을 가져올 주요한 원칙들을 정하셨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한 청지기이다.
-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시며 주님이신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이신 성령과 함께하는 신자의 공동체이다.
- 우리의 과업은 세계적이며, 도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인다.
- 우리는 우리의 시간, 재능, 소유, 봉사의 일부만이 아니라 모든 것, 심지어 생명 그 자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
- 우리의 삶과 드림의 도덕적인 특질을 결정하는 것은 동기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요약된 청지기 직분의 원칙을 따른다면 우리 지역 교회는 잘 무장된 장교와 일꾼들로 구성된 완전한 “군대”가 될 것이다. 그것은 관심을 갖고, 깨어 있고, 열정이 있고, 헌신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 구성원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청지기 직분의 이상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의 일이다. 목사들과 지역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에서 청지기의 환경을 만드는 데에 성공하였다.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재정 분야의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교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후원하고, 격려했다.

사람들은 삶 속에서 성경의 원칙들을 이행하고 있다. 그들은 더 관대해졌으며 예기치 않은 일들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저축하고 있으며 가게 부채의 속박 아래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들의 생활 양식은 절제, 규율, 만족으로 특징지어진다. 돈은 하나님과 경쟁하는 신으로 간주되어 제거되었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안식일 아침에 사람들은 예배드리러 온다.

그들의 용모에는 너그러운 기부자들로부터 나오는 빛나는 기쁨이 있다. 그들의 품행에는 평화가 느껴지며, 재정 문제에 대해 그다지 염려하지 않고 만족과 감사의 마음이 배어 있다.

돈을 둘러싼 부부 싸움은 대체로 사라졌다. 교인들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役事)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예배에 들어간다.

교회의 사역은 넉넉하게 자금이 마련되어 교회는 세계적으로 그리고 지역 사회로 강력하게 봉사 활동을 추진한다. 교회는 궁핍한 사람들에게 매우 실제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준다.

교회 시설물을 공급하기 위한 자금은 충분하여 사역은 놀랍도록 물 흐르듯 진행되고 아주 잘 관리되고 있다.

그들은 지도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풍부한 자원들을 위탁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나요?”라고 질문한다.

상을 바라봄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상에서 떼지 않도록 하자. 우리 마음은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있다. “그대의 생각은 영원이라는 위대한 상급에 고정될 것이다. 그대의 모든 계획은 미래의 불멸의 생명을 고려하여 세우게 될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보물에 이끌리게 될 것이다. 그대는 세속적인 이익을 따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을 추구함에 있어서 우리는 말없이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라고 묻게 될 것이다”(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342~343).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직분은 예수님과 시작하고 예수님과 끝난다. 그분은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분은 정당한 소유주이시다. 이생에서 우리는 단순히 그분을 위하여 그것을 관리할 뿐이다. 사물은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드릴 때에만 우리의 것이 된다.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 원수의 손에 떨어질 때까지 우리의 소유물에 집착할 것인가? …큰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원금을 줄여 하나님의 사업이 해외로 확장될 수 있게 해야 할 때이다. …우리가 영원한 세상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친 것뿐이다”(리뷰 앤드 헤럴드, 1887년 12월 6일).

우리는 창세기 1장으로 시작했으며 요한계시록 21:1~4을 보면서, 즉 에덴에서 시작하여 에덴에서 마치려고 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재정의 신실함에 대한 우리의 결심을 굳게 하자. 우리의 눈을 상에서 떼지 말고 아무 다른 것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게 하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삶의 이 중요한 영역에 대한 그분의 뜻을 찾는 당신과 당신

의 가족을 붙드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도한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입술로부터 다음과 같은 칭찬의 말씀을 듣는 무리에 들기를 바란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심화 연구

»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린도전서 4:1, 2, 5; 시편 19:7~11)(이 과의 첫째 부분 참조).

1 ▶ 우리에게 맡겨진 “신탁”이란 무엇이며 신실함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참고 여기서 “맡은 자들”이란 말은 “관리인들,” “청지기들”이란 뜻이며 가정이나 토지 같은 자산을 관리하는 개념과 연관되어 주인에게 속한 집이나 땅을 돌보고 관리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노예 혹은 자유인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 …복음의 청지기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며 교회의 복리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책임을 맡는다”(SDA 성경주석, 고린도전서 4:1). 한편, 신실한 “청지기는 자신을 주인과 동일시한다. 그는 청지기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주인이라면 하였을 그런 방식으로 주인을 대신하여 그렇게 행하여야 한다. 주인의 관심사가 자기의

관심사가 된다. 청지기의 지위는 존엄한 것인데, 이는 그의 주인이 그를 신임한 까닭이다. 만일 어떤 경우에도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면, 즉 자기 주인의 돈으로 장사해서 얻은 이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그는 주인의 신임을 악용하는 것이다”(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113).

2 지정된 시간은 무엇인가?

참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즉 우리의 일생이다.

3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는 개념에서 동기는 얼마나 중요한가? 설명하라.

참고 “구원받은 각 영혼은 한 달란트를 받은 것이다. 참으로 회개하였다면 진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 주신 영향력과 재물의 달란트를 사용하여 동료 인간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는 흑암과 오류 속에 있는 자들을 일깨우기 위하여 열성적으로 일할 것이다. 그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도움을 줄 것이다”(교 회증언, 2:660).

4 시편 19:11의 “상이 크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참고 “하늘이 잃은 자를 회복시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데려가기 위하여 사용된 수고와 에너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힘쓰자. 이보다 더 강한 동기와 더 강력한 대리자들이 주어진 일이 결코 없었다. 즉 하늘을 향유함, 옳은 일에 대한 크나큰 상급, 천사들과의 교제, 하나님과 그 아들과의 연합과 사랑,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능력이 고양되고 확장됨 등,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

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봉사를 우리의 창조주요 구주이신 분께 바치도록 촉구하는 강력한 보상과 격려가 아닌가?”(Bible Echo & 영문 시조, 1889년 2월 15일)

- »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브리서 11:6).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요한계시록 22:12).

5 ▶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믿음은 왜 필수적인가?

참고 “창조주는 무한한 반면, 그의 피조물들은 결정적으로 유한하며, 따라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동이다. 만일 그가 완전한 우주 안에서 자신에게 할당된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고자 한다면,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 안에서 최고로 실현되기 때문이다”(SDA 성경주석, 히브리서 11:6).

6 ▶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상급을 주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동기를 흐리게 하지 않는가? 설명하라.

참고 우리는 상급에 대하여 거의 이야기 하지 않는데 이는 그것이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장래의 유산을

너무 지나치게 물질적인 것으로서 보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유산을 우리의 분향으로 생각하도록 이끌어 왔던 바로 그 진리를 영적인 미로만 생각하여 왔다. ...인간의 언어는 의인이 받을 보상을 묘사하기에는 불충분하다. 그것을 목도하는 자들만이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유한한 지력으로는 하나님의 낙원의 영광을 이해할 수 없다.”(재림신도의 가정, 541). 상급이 동기를 흐리게 한다는 우려는 공로와의 혼동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의 공로로 구원 받지 못한다. 영원의 상급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며 결코 사람에게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한 바에 따라 받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만 한다. ...달란트의 비유는 이 주제를 예증해 주고 있다. 한 사람은 열 고을을 다스리게 되고, 다른 사람은 다섯 고을을, 또 다른 사람은 두 고을을 다스리게 된다. 각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의 정확한 분량에 따라,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빌려주신 달란트에 대하여 그가 증식시킨 정도에 따라 받는다. 그리고 최고의 보상을 위하여 분투하는 것은 각 사람의 특권이다”(복음교역자, 450).

7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참고 “그대의 생각은 영원이라는 위대한 상급에 고정될 것이다. 그대의 모든 계획은 미래의 불멸의 생명을 고려하여 세우게 될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보물에 이끌리게 될 것이다. 그대는 세속적인 이익을 따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을 추구함에 있어서 말없는 질문은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가 될 것이다”(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342~343).

8 예수님은 어떤 상을 갖고 오시는가?

참고 “우리는 모두 보상을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축복의 약

속을 감사하는 한편 주께서 옳게 행하실 것이며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보상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지만 예수께서는 우리가 보수에 관해서는 너무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신다. 주께서는 우리가 얻게 될 이익에 관계 없이 단지 그 일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신다”(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339).

9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상급을 받는다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참고 “그러나 목사들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한 바에 따라 받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만 한다. 큰 순회 재판에서 이루어질 심리(審理)는 행한 일에 기초하여 가장 정확하게 진행될 것이며 우리의 무관심함과 열정의 결핍이 그러한 결정의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이다. 달란트의 비유는 이 주제를 예증해 주고 있다. 한 사람은 열 고을을 다스리게 되고, 다른 사람은 다섯 고을을, 또 다른 사람은 두 고을을 다스리게 된다. 각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의 정확한 분량에 따라,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빌려주신 달란트에 대하여 그가 증식시킨 정도에 따라 받는다. 그리고 최고의 보상을 위하여 분투하는 것은 각 사람의 특권이다”(복음교역자, 450).

»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요한계시록 14:13).

10 “주 안에서” 죽는 것은 왜 “복이 있”는가?

참고 주 안에서 죽는 사람에게는 그들이 행한 일에 따라 주님께서 오실 때에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11 이 본문에서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는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참고 “주께서는 이루실 큰일을 갖고 계시며 그분은 인생에서 가장 충실하고 즐겨 봉사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것을 미래의 삶에 유업으로 주실 것이다”(실물교훈, 330).

»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마태복음 16:27).

12 어떻게 재림의 배경이 상급을 주시는 때가 될 수 있는가? 상급은 심판 후에 있어야 하지 않는가? 설명하라.

참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버린 자들은 이 세상 끝에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돌아올 때 그들의 생명을 얻을 보증을 받는다(고린도전서 15:51~55; 데살로니가전서 4:16, 17). 바로 그때 각인은 저마다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참조 디모데후서 4:8; 요한계시록 22:12). 다니엘 7장 9~13절에서는 인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서 심판을 베푸시는 장면이 등장한다. “다니엘은 조사 심판과 집행 심판의 마지막 국면들을 보았다. 조사 심판에서는 그리

스도에게 충성한다고 공언했던 모든 자의 기록이 검토될 것이다”(SDA 성경주석, 다니엘 7:10).

13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왜 우리의 행한 일에 따라 상급을 받는가?

참고 참된 믿음은 행위를 통하여 그 진실성이 증명된다. 그래서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야고보서 2:14)라고 말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누가복음 6:22, 23, 마태복음 5:11, 12과 비교).

14 22절을 당신이 이해한 대로 다시 표현하여 보라.

참고 탐욕적인 세상은 자아 희생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좋아하지 않고 따르려 하지 않는다. 세상은 자신들의 불의한 잣대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그 동기를 왜곡하고 그 의도를 불순한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가장 선하신 예수께서 불의한 자들과 같은 취급을 당하시고 마침내 가장 악한 죄인으로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

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주님의 선한 삶을 따라가다가 중상과 모욕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표가 된다. 그리스도의 “모든 언행이 하나님의 자비심을 나타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같지 않은 그분의 모습이 더할 수 없는 적의를 품게 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도 그와 같다. 의와 죄, 사랑과 증오, 참과 거짓 사이에는 억제할 수 없는 갈등이 있다”(산상보훈, 29).

15 “기뻐하는” 날은 무엇인가?

참고 “비난과 핍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자들이 하늘에서 받을 상은 크다. 백성들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가리켜 보이신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 상급을 전적으로 내세에서만 받게 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세상에서부터 받기 시작한다”(산상보훈, 34).

16 나쁜 취급을 당하고, 기뻐하고, 상을 받는 것 사이를 연결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언급된 상급은 무엇인가?

참고 “비난과 핍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자들이 하늘에서 받을 상은 크다. 백성들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가리켜 보이신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 상급을 전적으로 내세에서만 받게 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세상에서부터 받기 시작한다. 여호와께서는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창세기 15장 1절)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상급이다. 사람은 여호와 임마누엘, 곧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어 있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골로새서 2장 3, 9절)는 분의 특성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마음을 더욱 넓게 열 때 그분과 조화를 이루게 되고, 그분을 알

고, 그분을 소유하게 된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부를 소유하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에베소서 3장 18, 19절) 하심을 더욱더 잘 이해하게 된다”(산상보훈, 34~35).

17 고난의 때에 사람들을 신실하게 지켜주는 동기는 무엇인가?

참고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로마서 8:18)라고 말한다. 우리가 받을 상급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비하여 상상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작게 보일 것이다.

»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베드로후서 1:10~11)

18 10절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가?

참고 “부르심과 택하심은 하나님의 행위이다”(벧전 1:2; 2:21). 그럼에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폐”할(갈 2:21) 수도 있다. 따라서 신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빌 2:12). 그런 다음 그는 하나님이 이미 바라셨고 가능하게 하신 것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을 것이다”(SDA 성경주석, 베드로

후서 1:10).

19 ▶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는 구절은 무엇을 암시하는가?

참고 “사도는 그의 권면을 따르는 사람이 결코 죄에 빠지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그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배반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죄를 이길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사도가 진술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한, 전적으로 타락하여 제공된 구원을 상실하지는 않을 것이다”(상동).

20 ▶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참고 “주님의 모든 선물은 후하게 주어진다. 그분께서 신실한 신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미래는 인간의 가장 높은 기대들을 초월할 것이며 참으로 풍요로운 것으로 입증될 것이다”(SDA 성경주석, 베드로후서 1:11).

»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새”(마태복음 25:19).

21 ▶ 종들의 주인이 돌아오는 때는 언제인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참고 “모든 사람은 그분을 위해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저희가 이 요구에 어떻게 응했느냐에 따라 큰 심판 날에 그것에 대해 회계(會計)해야 할 것이다”(실물교훈, 326).

22 “그들과 결산한다”는 말의 의미를 설명하라.

참고 “나의 형제여 하나님의 신탁(神託)에 분명하게 제시된 의무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게 하십시오. 하늘의 책들은 하나님과의 당신의 계정의 과거 및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것입니다. 십일조와 헌물에 있어서 당신의 조물주께 엄격하게 정직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서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수중에 재물을 갖고 있는 동안 하나님과 당신의 계정을 바르게 하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업과 대의에 관련이 되어 있는 이 모든 거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원고, 20:37).

»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값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값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값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누가복음 14:12~14).

23 이 성경 구절에서 제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참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봉사를 위하여 구속함을 받았다. 우리 주께서는 인생의 참된 목적은 봉사에 있음을 가르쳐 주셨다. 그리스도 자신이 일꾼이셨으며 그분을 따른 모든 사람들에게 봉사의 법칙, 곧 하나님과 저들의 동포에게 대한 봉사의 법칙을 주셨다. 이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고상한 생애의 개념을 세상에 보여 주셨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봉

사하는 생애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결된다”(실물교훈, 326).

24 ▶ 당신은 이 잔치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는가? 설명하라.

참고 “이 바리새인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기의 자격에 대하여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가 천국에서 누릴 바 축복에 대하여서만 생각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큰 잔치의 비유를 가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공된 축복을 설명하신다. 이 준비된 양식은 곧 그리스도 자신이다. …세상은 복음이 부족하여서 멸망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리고 있으나 사람의 유전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자는 많지 않다. 비록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나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성경 가운데 두신 축복을 받지 못한다. 주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요구하시기를 사람들에게 당신의 기별을 전하라고 하신다. 영생의 말씀이 죄 가운데서 멸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전하여져야 한다”(실물교훈, 223, 230)

25 ▶ 여기서 언급된 “값음”은 부활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가?

참고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자기들을 위해 무거운 짐을 졌던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그 기쁨은 어떠하랴. 또,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지 않고, 별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사는 불행한 자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살았던 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흡족하랴! 그들은 다음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저희가 값음 것이 없는 고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값음을 받겠음이니라’”(복음교역자, 491).

26 ▶ 신실한 자들을 위해 준비된 상급에 대하여 더 많이 배웠다. 당신은 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참고 각자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하라.

참고문헌

- Blue, Ron, Splitting Heirs, Northfield Publishing, Chicago.
- Fithian, Scott C. Values Based Estate Planning, John Wiley & Sons, Inc., New York.
-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성경주석
- 화잇, 엘렌 G. 호주연합회 의사록
- ____. Bible Echo and Signs of the Times
 - ____. 산상보훈
 - ____. 서신
 - ____. 사도행적
 - ____. 선지자와 왕
 - ____. 원고, 4, 5, 20권
 - ____. 새 자녀 지도법
 - ____.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 ____. 구호봉사
 - ____. 실물교환
 - ____. 건강에 관한 권면
 - ____. 청지기예 관한 권면
 - ____. 교육
 - ____. 복음전도
 - ____. 복음교역자
 - ____. 부조와 선지자
 - ____. 리뷰 앤드 헤럴드
 - ____. 정로의 계단
 - ____. 교회증언, 2, 3, 4, 5, 6, 9권
 - ____. 증언보감, 2권
 - ____. 재림신도의 가정
 - ____. 시대의 소망

믿음과 재정

발행일 2015년 10월 15일

발행처 한국연합회 선교전략연구소

발행인 김대성 | 편집인 한송식 | 개발자 김동혜 | 디자인 이혜연, 배혜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홈페이지 <http://mtri.or.kr> | 전자우편 hanss417@hanmail.net

대표전화 (02)3299-5264

정가 6,000원

구입문의 : 한국연합회 선교전략연구소

Copyright © 2015 한국연합회 선교전략연구소

재림성도 양육단계 및 교재

1. 신자되기 (Making Adventist)



2. 제자되기 (Training as Disciple)



3. 일꾼되기 (Serving as Servant)



운영 지침서



청지기 교육 교재

믿음과 재정

이 교재는 재림 성도의 청지기 교육을 위해 개발된 교재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관점에서 재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교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충실한 청지기로서 축복으로 주신 재정을 잘 관리함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고,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1과 : 돈 관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이유

2과 : 삶을 위한 재정 계획 세우기

3과 : 드리는 일에 대한 고찰

4과 : 빛에서 벗어나기

5과 : 지출 계획 세우기

6과 : 자녀 훈련, 돈과 결혼, 돈과 독신자들

7과 : 주요 물품 잘 구매하기

8과 : 정직과 청렴 & 일

9과 : 은퇴를 위한 계획

10과 : 저축과 투자

11과 : 유산과 재산 분배 계획

12과 : 재정적 충실에 대한 보상